



4

주 체 88 (1999)

문 학 예 술 종 합 출 판 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주체88(1999)년 제 4 호

(루계 제 618 호)



## ◆◆◆◆◆◆◆◆◆◆ 차 례 ◆◆◆◆◆◆◆◆◆◆

태양절이 시작되는 땅에서 .....	4
새로운 전선 .....	5
위대한 영생 (외 1 편) .....	15
대오여 .....	16
사립문 .....	17
승리의 그날을 축하하네 .....	18
전설은 계속된다 .....	19
북방의 흑한속에서 .....	23
고향집에서 (외 1 편) .....	24
35 년도에 떠난 길 .....	24
봄과 함께 영원한 우리 수령님 .....	25
이 가슴에 빛나네 .....	25
태양절날의 뜻깊은 점심식사 .....	26
평양약수 .....	28
력사의 친필비앞에서 (외 1 편) .....	31
붉은 단풍나무 한그루 .....	31
한장의 사진앞에서 .....	32

미래에 대한 위대한 사랑의 역사를 격조높이 노래한 심오한 시적형상 .....	33
겨레의 합창 .....	36
축복의 새 전설 .....	38
명언해설 .....	40
고향시초 .....	41
불씨 .....	44
숲에 들렀다 가시라 .....	52
화환속에 파묻힌 죄인 .....	65
내가 사는 내 나라 .....	66
이끼덮인 성벽 .....	68
공격적성격 .....	72
불 .....	73
삼성사수난기 .....	75

# 태양절이 시작되는 땅에서

정동찬

봄안개 감돌고  
꽃향기 흐르는  
만경대초가집 트랙에서  
태양절 해돋이 맞고싶어  
사립문가에 섰노라

문득 차오르는 그리움속에  
목메여부르는  
어버이수령님

이날에 오실것만 같아  
솔솔너머 언덕길 한끝에서  
후더워오는 눈길 머무는데  
한껏 붉어지는 구름속을 가르며  
방금 솟는 해도 습벅이는가

뜨고 지고 뜨고 지며  
무궁한 세월  
우주를 공전하는 저 둥근해  
조선의 하늘에서 부딪친  
이 봄날의 환희에 젖어  
이 땅우에 낮추 떠오르고있구나  
인간세계에서  
태양절로 이름하는  
대명절이 시작되었노라고

수억만년을 두고  
열과 빛으로만은  
그 위업 다할수 없었으리  
캄캄한 세월의 낭떠러지에서  
사슬에 칭칭 묶이운 손들  
빛을 다오 빛을 다오  
너를 향해 피터지게 쳐들었어도  
그저 굵어볼수밖에 없었으리

인류의 머리에 들썩워진  
온갖 불의와 재난을 막을수 없는 너  
사람들 얼굴에서 눈물을 어이 거두며  
멍든 상처 어이 가실수 있었으랴

하건만  
운명의 태양신을 불러불러  
해쫓는 지점 한번 밝아도  
태양복 받으리라 기원한 못사람들

누리에 그 얼마였더냐

그대를 더는 무료로  
더는 무료로 명복을 빌고빌어  
해뜨는 바다에 뛰어들지 말기를  
원하거든  
저기 군함바위앞에 마주 웃는  
어린것 추켜안아보시라  
그러면 곱게 빛은 머리에 내린  
태양의 체온 느끼리

만경봉 샘물가  
살랑이는 한떨기 꽃을 안아도  
고목에 인생의 꽃을 피우는  
태양의 인력에 끌려  
그대 스스로 움직여지는  
마음의 지향봉 찾으리

소원을 빌기전에  
집집의 문을 먼저 두드리고  
인사를 받으시기전에  
벌써 눈내리는 설령을 넘으시던  
우리 수령님

아, 온 세계앞에  
위인의 태양상 보여드리신  
우리의 **김정일**장군님 아니게시면  
아, 이날의 태양절을  
어떻게 시작할수 있었단 말인가

영생기원의 눈길들을 한데 모아  
온 세상이 우리의 태양을 보는날  
이날의 명절기념광장은  
만경대, 금수산기슭에서부터  
지구의 한끝까지 가없고  
저 둥근해도 구만리 창공높이 솟아올라  
태양절의 커다란 등이 되었구나

오, 태양절  
저 하늘의 해가 머리속여  
자기의 빛나는 이름과 영원한 자리를  
인간세계의 위대한 태양앞에 내어드리는  
온 우주의 태양절이여라

## 새로운 전선

강복레

10월초, 청신하고 고요한 대기속에 해빛은 밝고 하늘은 류달리 파랗다. 점점이 흩어진 하얀 구름조각들은 마치 바다우를 날으는 갈매기들마냥 가볍게 유유히 떠돌고있다. 오래간만에, 참으로 오래간만에 포연이 사라진 맑은 가을하늘이 높이 드리웠다.

해빛도 검은 연기에 흐려지고 푸른 하늘마저 포연과 불길에 가리워 빛을 잃었던 3년간의 전쟁은 끝났다. 허나 전쟁이 끝난지 불과 두달반, 하늘은 맑고 해빛은 따사로웠으나 이 땅우에는 여전히 전쟁의 참화가 들쭉은 무서운 파괴의 흔적들, 파헤쳐진 폭탄구덩이들이며 무너지고 불타버린 건물의 잔해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전쟁때나 다름없이 골짜기나 산밑에 지은 반토굴과 방공호들에서 살았다. 그들은 지금도 문득 머리우에서 요란한 적기의 발동기소리가 들려오고 하늘땅을 뒤흔드는 폭음이 울려올것만 같아 놀란듯 하늘을 쳐다보곤했다. 그리고는 신기해서 중얼거리는것이였다.

《야, 우리 하늘이 저렇게 파랗단가?》

...아침해가 새벽이슬을 걸으며 산마루에 높이 떠올라왔을 때 강원도 분계연선의 어느 한 소로길로 몇대의 승용차가 달리고있었다. 크고 까만 일반 승용차들도 있었고 보위색의 군용승용차들도 있었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일성**동지께서 어느 한 연합부대 산하의 한 박격포중대로 가시는 길이였다. 미제 침략자들은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정전협정에 도장을 찍은지 얼마되지 않았으나 벌써부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있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 무력을 증강하면서 새로운 무기들을 끌어들이 일 궁공이를 하고있었다. 미국놈들은 3년간의 전쟁에서 심대한 참패를 당했으나 전조선을 강점할 침략의 야망은 결코 버리지 않고있는것이다.

승용차들이 달려가는 길 한쪽에 펼쳐진 그리 넓지 않은 논밭에도 물이 가득 고인 폭탄구덩이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었으나 성한 논판에서는 누렇게 익은 벼이삭들이 설레이고있었다. 여기서도 벼가율이 한창인듯 녀인들 몇이 여기저기 널려서 벼를 베다가 낫을 든채 허리를 펴고 지나가는 승용차들을 바라보고있었다.

남편들과 아들딸을 다 전선으로 보내고 후방을 지키며 3년간 전시 식량생산을 감당했던 녀인들이였다. 승리한 오늘을 위해서 전쟁의 온갖 시련과 곤난을 꺾듯이 이겨내며 땅을 갈아 씨를 뿌리

고 낱알을 가꾸어 군량미를 전선으로 보냈던 그들이였다. 그들은 이 가을도 남성들이 없이 벼가율을 하고있었다.

차창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거의 절박한 심정에 휩싸이며 속으로 외우시였다.

(농촌에도 빨리 청장년들을 보내주어야 한다. 저 폭탄구덩이들을 다 메우고 농업생산을 추켜올리자면 젊은이들이 있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색은 재더미만 남은 다 파괴된 도시와 마을들, 공장과 농촌들로 옮겨졌다.

하루빨리 전쟁의 상처를 가지고 공장과 농촌, 도시와 살림집들을 일떠세워야 하며 전쟁으로 령락된 인민생활을 추켜세워야 한다. 그래서 당은 모든것을 전후복구건설에로 집중할데 대한 구호를 제시하고 웅대한 복구건설의 설계를 펼치였다. 그러나 복구건설을 감당해서 수행해야 할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직도 전선에 있다. 침략의 야망을 버리지 않고있는 미국놈들과 맞서있는 조건에서, 적들의 도발책동이 점점 더 엄중해지고 있는 조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수령님께서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해오신것을 다시한번 확정하시기 위해 전선으로 나오신것이다.

...길안내를 하느라고 앞에서 군용승용차를 타고 가는 련대장 리철웅은 저 맑은 가을하늘도, 어느덧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 주위의 산천초목도, 벼가율을 하는 인민들도 눈에 안겨오지 않았다.

오늘아침 사단에 내려오신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께서 련대장급이상의 지휘관들앞에서 신중하게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이미 말했지만 정전은 완전한 평화가 아니요. 미국놈들은 정전협정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 협정을 위반하고 벌써부터 군사분계선일대에 새로운 무기들을 끌어들이려고 획책하고있소. 정전이 되었다고 해서 안일해이한 현상이 없도록 훈련을 강화하고 교양사업도 잘해야겠소.》

그러시고는 좀 부드러운 음성으로 물으셨다.

《지금 전사들의 정신상태는 어떻소? 총소리가 멎었으니 완전한 평화가 왔다고 생각하는건 아니요? 련대장동무들이 말해보시오.》

처음 누구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전사들의 달라진 분위기를 다 알고 물으시는것 같아서였다. 그이께서는 웃음을 지으시며 리철웅을 바라보시였다.

《1련대장동무, 동무가 말해보시오.》

리철웅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미국놈들에 대한 전사들의 적개심은 변하지 않았습시다.》

그는 확신을 가지고 말을 뱉으나 순간 최고사령관동지께 사실대로 말씀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심심히 자기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말을 이었다.

《그런데 제가 일을 잘하지 못해서 간혹 평화적 기분에 사로잡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있습니다.》

로동자출신전사들은 당6차전원회의 문헌을 받아안자 은근히 공장이나 건설장으로 돌아가 복구건설에 참가하고싶어하는 동무들이 있습니다.

농촌에서 나온 동무들은 벌써부터 고향의 농사일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고급중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반에서 입대한 동무들은 제대되면 대학이나 전문학교에 가겠다고 짬만 있으면 외국어와 수학 공부를 하고있습니다. 심지어 젊은 소대장들과 중대장들 속에서도 학교에 가겠다고 들썩거리는 동무들이 있습니다.》

리철웅은 이 마지막말을 할 때 그것때문에 욕을 했던 한 중대장을 회상했다.

그가 말을 끝내고 자리에 앉자 최고사령관동지 옆에 앉아있던 사단장이 좀 어이없어하는 어조로 최고사령관동지께 말씀올렸다.

《저 동무네 련대에선 아주 평화가 온것처럼 벌써 지상건물을 짓고 갱도에서 나온 중대가 있습니다. 갱도에 습기가 많다고 하면서 지상건물을 짓겠다고 하기에 승인했더니 어느새 건설을 끝내고 전중대가 갱도에서 나왔습시다.》

사단장이 지상건물이야기를 꺼내자 리철웅은 큰일을 저지른것처럼 얼굴이 화끈했다.

아닐세라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몹시 놀라듯 물으셨다.

《벌써 지상건물을 짓고 갱도에서 나온 중대가 있던 말이요?》

《예, 1련대 3대대 박격포중대가 갱도에서 나왔습시다.》

사단장의 대답을 들으시자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뜻밖에도 얼마간 부드럽게 말씀하시였다.

《전쟁이 끝난지 두달밖에 안되었는데 빠르구만.》

그러시고는 사단장에게 다시 물으셨다.

《집을 무엇으로 지었소? 자재는 어디서 보장해주었소?》

사단장은 힘을 얻은듯 다소 스스럼없는 어조로 말씀올렸다.

《중대자체로 석비레블로크를 만들어 지었습시다. 중대장이 좀 엉뚱한데가 있는 동무입니다.》

《중대자체로 지상건물을 짓고 갱도에서 나왔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혼자 외우듯 말씀하시더니 불쑥 자리에서 일어서시였다.

《그럼 우리 다같이 벌써 지상건물을 짓고 갱도에서 나왔다는 중대로 가봅시다. 사단장동무, 다른 일은 뒤로 미룹시다.》

이 일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였다. 그리하여 리철웅은 중대장 정영수에게는 물론 대대장에게도 알릴 틈을 얻지 못하고 길을 떠났다.

박격포중대가 자리잡고있는 석담리 밤나무골이 가까와올수록 리철웅의 심중에서는 중대에 미흡한점은 없겠는지, 최고사령관동지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릴 그런 정황에 부닥치거나 않겠는지 하는 불안이 점점 더 커졌다.

(그때 단호하게 건설을 중단시켰어야 하는건데...)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가 건잡을수 없이 갈마들었다.

...정영수가 대대장을 통해서 지상건물을 짓고 갱도에서 나오겠다고 제의한것은 정전이 되어 반달도 되기전인 8월중순이였다. 리철웅은 이 뜻밖의 제의에 놀라면서 대대장을 나무랐다.

《뭐이요? 그 사람이 또 무슨 똥판지같은 생각을 하누만... 대대장동무는 정전이 완전한 평화가 아니라는걸 몰라서 그런 제의를 들고 다니오?》

그는 말을 끊었다가 중대에서 올라온 제의이니 만큼 사단에 보고해서 결론을 받으리라 마음먹고 음성을 좀 낮추어 덧붙였다.

《하여간 내가 조상학에 갔다 와서 사단에 반영하겠소. 중대장에게는 사단에서 결론이 있을 때까지 훈련이나 잘하라고 하시요.》

대대장은 알았다고 대답하고 돌아섰다. 그런데 리철웅이 군단에서 조직하는 10일동안의 조상학을 끝내고 돌아오자 그사이 정영수네 박격포중대에서 지상건물의 건설을 시작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리철웅은 놀람기도 하고 화도 나서 곧 중대로 내려갔다. 그러나 그때는 소대별로 되는 병실과 식당까지 4동의 지상건물의 기초공사가 한창이였다.

어느새 공사장 주변에는 석비레로 만든 토피벽돌이 무데기로 쌓여있었다.

리철웅은 어이가 없어 중대장을 호되게 꾸짖었다.

《동무는 상부의 승인도 없이 이게 무슨 자유주의요. 어디서 이런 자유주의를 배웠소?》

정영수는 욕을 먹을것을 각오하고있었던지 낯색도 달라지지 않고 태연하게 대답했다.

《갱도안에 습기가 많아서... 전쟁때는 참을수 있었는데 이젠 못참겠습니다.》

《전쟁때는 참을수 있었는데 이젠 못참겠다.》

리철웅은 정영수의 말을 비웃듯이 되뇌이고 정색해서 덧붙였다.

《그러니 동무는 미국놈들이 코앞에 그대로 있고 전쟁이 다시 일어날수 있다는걸 잊었소. 우린

평화적기분에 사로잡힐 권리가 없소.》

그런데 욕을 먹는 정영수의 얼굴에 뜻밖에도 미소가 떠올랐다.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그때 또 갱도에 들어가 싸우겠습니다… 런대장동지는 그렇게 많은 싸움을 하고도 전쟁이 무섭습니까?》

정영수의 이 배짱에 리철웅이도 그만 어찌지 못하고 웃고말았다. 그는 타협하듯 음성을 낮추었다.

《하여간 사단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보겠으니 그때까지 기다리오. 그리고 건설을 한다고 훈련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소.》

반응낙을 받았다고 생각했던지 정영수의 목소리는 힘있게 울렸다.

《알았습니다.》

리철웅이 사단에 보고하기 위해 건설형편을 료해하고 중대를 떠나려고 하는데 정영수가 따라서며 간청하듯 말했다.

《런대장동지, 이제 학교추천사업이 있으면 저도 학교에 보내주시시오.》

《뭐요?》

리철웅은 걸음을 멈추고 눈초리가 푹푹해서 따져물었다.

《학교추천사업이 있다는건 어디서 들은 소리요? 누가 그런 말을 했소?》

《사단군의소에선 그런 말이 짜하게 돈답니다. 군의들이 학교지망자들에게 대수공부까지 시킨답니다.》

리철웅은 어이가 없어 코웃음을 치고나서 음성을 높였다.

《동무 제정신을 가지고 하는 말이요? 사단군의소에선 무슨 일이 있든 하전사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동무야 지휘관이 아니요. 동무까지 학교소리를 해서야 되겠소.》

정영수는 얼굴이 불깃해졌으나 물려서지는 않았다.

《런대장동지, 전 어려서 입대하는 바람에 공부를 못했습니다… 내내 싸움만 했지…》

《그걸 내가 모르오?》

리철웅은 정영수의 말허리를 꺾고 나무라듯 덧붙었다.

《우리 지휘관들은 그런 평화적기분에 사로잡힐 권리가 없소. 그러고보니 동무가 지상건물을 서둘러 짓는것도 문제가 있소.》

정영수는 입을 꼭 다물고있었으나 심드렁해진 표정으로 보아 런대장의 충고가 접수되지 않았음을 의미하였다. 리철웅은 무슨 말을 더 할가 하다가 그도 차츰 리해하리라 믿고 말하지 않았다.

…

리철웅은 지나간 일을 돌이켜보며 어느새 자신도 평화적기분에 사로잡힌것이나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 (그때 건설을 중단시켜야 하는건데.)

승용차들은 황금빛 들판을 지나고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 산굽이를 돌고돌았다.

정영수네 박격포중대가 자리잡고있는 석담리 밤나무골어귀에 들어서자 멀리 골짜기 막바지에 있는 보초막이 바라보였다. 그때 보초막앞으로 누구인가 달려내려오고있었다. 리철웅런대장은 그가 중대장 정영수임을 인차 알아보았다. 골짜기로 승용차들이 들어온다는 보초소의 보고를 받고 급하게 달려온듯 정영수는 보초막앞에 와서야 헉떠밀로 웃옷의 앞자락을 잡아당기며 옷매무시를 바로하고있었다. 달려가는 승용차앞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서는 중기에 몸이 다부지게 생긴 정영수의 둥그스름한 얼굴은 몹시 긴장되어있었다.

보초막앞에서 군용승용차들이 몇자 리철웅은 차에서 내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타신 승용차로 달려갔다. 그때 이미 멈춰선 승용차의 문이 열리고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차에서 내리시였다.

순간 정영수의 청높은 구령이 골짜기에 메아리쳤다.

《중대 차렷.》

중대장은 구령을 치는것과 거의 동시에 최고사령관동지앞으로 달려가 손을 올렸다.

《최고사령관동지, 중대는 전투훈련중입니다. 중대장 정영수.》

보고를 올리는 정영수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하여 약간 떨렸다.

《쉬엇하시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쉬엇》 구령을 친 정영수의 손을 잡아주시며 만족한듯 말씀하시였다.

《중대장이 췌었구만.》

그러시고는 아직도 긴장해서 서있는 중대장에게 스스럼없이 물으셨다.

《벌써 지상건물을 짓고 갱도에서 나온 중대가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소. 나에게 중대를 좀 보여주겠소?》

너무도 소탈하시고 친근하신 그이의 물음에 정영수의 얼굴에 어렸던 긴장감은 얼마간 사라졌다.

그는 젊은이다운 활기를 띠고 씩씩하게 대답올렸다.

《알겠습니다.》

그때 보초막뒤의 산굽이를 돌아 중대의 군관들, 하전사들이 우르르 달려내려왔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오셨대요.》

《어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어디 계시오?》

전사들이 달려오며 흥분해서 주고받는 말소리도 들렸다. 비록 물낱은 군복을 입고 군모를 썼으나 미국놈들을 죽치며 수천리 전선길을 걸어온 역세여보이는 검실검실한 얼굴들이였다. 마흔살쯤 나보이는 아바이전사가 있는가 하면 스무살도 되나마나한 애어린 전사들도 있었다. 그들의 열



굴에는 한결같이 최고사령관동지를 뵈고싶은 막을수 없는 절절한 열망과 흥분이 어려있었다.

리철웅련대장은 지금의 전사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수 있었다.

불비 쏟아지던 락동강의 불바다속에서도, 전략적후퇴와 적후전선의 멀고 간고한 행군길에서도, 진지방어전의 가렬치절한 싸움속에서도 오직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승리한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안고 무비의 영웅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용감하게 싸워온 전사들이다.

그러니 미제침략자들을 타승하고 전쟁이 승리한 이 땅에서 최고사령관동지를 만나뵈게 된 전사들의 감격과 기쁨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그러나 중대의 전사들이 너무 무질서하게 달려오는것 같아 그는 중대장에게 나무라듯 나직이 말했다.

《중대장동무, 전사들을 정렬시키오.》

정영수도 창황중에 어쩔줄 모르고 서있다가련대장의 충고를 듣고서야 급히 전사들에게로 뛰어가며 구령을 쳤다.

《동무들, 이게 뭐요. 중대 모였, 3렬횡대... 나란히!》

그때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웃으시며 중대장을 만류하시였다.

《중대장동무, 일없소. 나도 전사들을 만나보고싶소.》

그러시고는 당황해서 대렬을 짓고있는 전사들앞으로 걸어가시였다.

《동무들, 잘 싸웠소. 얼마나 수고가 많았소.》

《최고사령관동지, 안녕하십니까.》

찌렁찌렁 울리는 병사들의 목소리...

그이께서는 환히 웃으시며 전사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였다. 그 순간 전사들속에서 격정이 폭발했다. 수많은 전사들은 최고사령관동지의 손을 잡으며 입술이 떨려 자기 이름도 제대로 대지 못하고 눈을 습벅거렸다. 림름해보이던 하사관들도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자기 이름을 입박에 내고는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다. 그들을 바라보던 중대장 정영수도 눈물이 그렇게져서 고개를 숙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러는 전사들의 손을 더 힘있게 잡아주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시였다.

《미국놈들과 싸워 이긴 전사들이 울면 되나. 울지들 말고 병실로 가서 이야기들을 하자구.》

그이께서는 마지막으로 동무들의 뒤에 수집어하며 서있던 어린 전사의 손을 따듯이 잡아주시고는 그 전사의 손을 잡으신채 팔짜기우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어린 전사는 얼굴이 빨개졌으나 눈은 행복에 넘친 환희로 빛나고있었다.

다른 전사들도 모두 기뻐서 어쩔줄 몰라하며 그이의 옆과 뒤에서 걸어갔다. 마치 오래 떨어져있던 아버지를 만난 아들들처럼 환희에 넘쳐있는 전사들을 바라보며 리철웅련대장은 부지중 가슴속에서 뜨거운것이 솟구쳐올라 목을 짹 메우는것을 느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전사들과 같이 보초막뒤의 산굽이를 돌아 맞은켄 산밑에 새로 지은 4동의 지상건물앞으로 오시여 걸음을 멈추시였다.

마치 땅속에서 솟아난것처럼 산밑에 산뜻하게 서있는 지상건물을 한참이나 바라보시던 그이께서 무척 만족하신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병실을 아주 잘 지었구만! 팬찮아.》

그러시고는 사단이며 군단의 지휘관들을 돌아보시고 감개무량한듯 말씀을 이으셨다.

《아직은 어데 가나 파괴된 거리와 마을뿐인데 이렇게 새 집을 지은걸 보니 기분이 좋소! 우리 전사들은 싸움도 잘하지만 집도 제일 먼저 지었소.》

그 어떤 충고의 말씀을 기다리며 가슴을 조이고 있던 리철웅은 안도의 숨을 내쉬였으나 하마트면 자신이 이 건설을 하지 못하게 할번했구나 싶어 속이 뜨끔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병실앞에 새로 닦아놓은 휴식터를 둘러보시더니 정영수에게 말씀하시였다.

《중대장동무, 병실안은 조금 있다 보구 우리모두 저기 앉아서 이야기들을 하자구.》

그러시고는 전사들과 같이 휴식터로 가시여 아직도 송진냄새가 날듯한 통나무의자에 앉으시며 전사들에게도 가까이 와서 앉으라고 말씀하시였다.

전사들은 모두가 더없이 기쁘고 행복한 얼굴로 최고사령관동지 주위에 앉기도 하고 서기도 했다. 군단이며 사단의 지휘관들은 전사들의 뒤에 서있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가까이 서있는 한 분대장에게 물으셨다.

《분대장동무는 지금 몇살이요?》

분대장은 차렷자세를 하며 대답올렸다.

《스물아홉살입니다.》

《입대는 언제 했소?》

《50년 7월에 입대했습니다.》

《전투를 많이 했겠구만. 그래 어느 전투에 참가했소?》

최고사령관동지의 소탈한 물음에 분대장은 자신이 참가한 전투들에 대해서 보고하였다.

《락동강까지 진격했던 동무구만. 락동강까지 나갔던 동무들은 다 귀중한 보배들이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펍 대견해하시며 말씀하시요나서 다시 물으셨다.

《전쟁전에는 무슨 일을 했소?》



《기계공장에서 선반공으로 일했습니다.》

《고향에는 누가 있소?》

분대장은 부모님들과 녀동생 그리고 입대하기 전에 결혼한 안해가 있다고 대답올리며 얼굴을 붉혔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웃음을 지으시며 너그럽게 말씀하시였다.

《전쟁이 끝났으니 고향으로 돌아가고싶겠구만.》

분대장은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렸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맞은편 통나무의자에 앉아있는 중대에서 제일 나이들어보이는 상등병에게로 시선을 돌리시였다.

《동무도 락동강까지 나갔댔소?》

상등병은 벌떡 일어섰다.

《예, 락동강도하전투와 령산전투에 참가했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귀중한 동무라고 말씀하시고 상등병의 나이와 전쟁전 직업에 대해서 물으셨다. 상등병은 나이는 38살이며 전쟁전에는 고향에서 농사일을 했다고 대답올렸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정색해지시며 다시 물으셨다.

《고향에 가서 농사하고싶은 생각은 없소?》

이 뜻하지 않았던 물으심에 상등병은 영문을 몰라선지 주뭉거리며 대답을 올리지 못했다. 다른 전사들도 의아해하는 시선으로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러러보고있었다. 리철웅련대장은 아까부터 속이 조마조마했다.

아침에 사단에서 로동자출신 전사들은 공장이나 건설장으로 돌아가 복구건설에 참가하고싶어하며 농촌에서 입대한 동무들은 고향의 농사일을 걱정한다고 한 자신의 말이 최고사령관동지께 무슨 큰 심려를 끼쳐드리지나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이께서는 대답을 못하는 상등병을 앉으라고 하시고는 그 상등병옆에 앉아있는 아까 보조막옆에서부터 손을 잡고 올라온 어린 전사에게 물으셨다.

《꼬마는 언제 입대했나?》

어린 전사는 얼굴이 붉어지며 벌떡 자리에서 일어섰다.

《금년 4월에 입대했습니다.》

《전투에 참가해보았나?》

어린 전사는 단박에 기가 죽어서 기여들어가는 듯한 소리로 대답올렸다.

《큰 전투는 못해보았습니다.》

그이께서는 웃으시며 또 물으셨다.

《집으로 돌아가고싶은 생각은 없나?》

어린 전사의 얼굴에 비졌던 기가 죽은듯한 빛은 순간에 사라지고 결연한 표정이 떠올랐다.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쟁쟁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어린 전사를 앉으라고 하시고는 옆에 서있는 중대장을 돌아보시였다.

《중대장동무, 이 중대에 락동강까지 진격했던 동무들이 얼마나 되오?》

삼분의 일이 락동강을 넘어갔던 동무들이라는 보고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심중하게 말씀하시였다.

《동무들이 체험한 전투경험은 아주 귀중한거요. 미국놈들은 정전협정에 도장을 찍고도 전조선을 강점할 침략의 야망을 버리지 않고있단 말이요. 놈들은 벌써부터 군사분계선일대에 새로운 무기들을 끌어들일 공공이를 하고있소. 때문에 우리는 복구건설을 하면서도 미국놈들이 다시 덤벼들면 단매에 족칠수 있게 준비되어있어야 하오. 동무들, 자신있소?》

《자신있습니다.》

전사들은 일제히 대답올렸다.

방금전까지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소탈하고 친근하게 물으시는 바람에 허물없이 대답올리며 기쁨에 넘쳤던 그들의 얼굴에 다시 긴장한 빛이 떠올랐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의자에서 일어서시며 정색해서 말씀하시였다.

《그럼 이제부터 동무들의 전투준비상태를 내가 검열해보겠소.》

전사들은 벌떡벌떡 자리에서 일어섰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중대장에게 명령하시였다.

《중대장동무, 적이 나타났소. 박격포들을 밖에 내다가 저 둔덕우에 전투준비를 시키시오.》

리철웅련대장은 이런 명령이 내릴줄은 몰랐다. 그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전쟁이 끝난지 석달도 되기전에 전사들이 지어놓은 지상전물을 보러 오신것이 아니라 그런 중대의 전투준비상태를 검열하러 오신것이 아닌가싶어 더욱 긴장해졌다.

그렇다. 정전은 완전한 평화가 아니다. 미국놈들이 침략의 야망을 버리지 않고있는 한 우리는 언제나 적들의 침공을 단매에 쳐부실수 있게 준비되어있어야 한다. 그는 온 정신을 집중해서 전사들의 동작을 눈여겨보았다.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은 중대장은 신속히 중대를 정렬시키고 전투임무를 주었다. 전사들은 병실로 달려들어가 박격포들을 분해해가지고 나와 병실뒤 둔덕우에 설치했다.

최고사령관동지께 자기들의 전투준비상태를 보여 드리게 된 전사들의 동작은 놀랄만큼 민활했다. 규정시간의 절반밖에 안되었으나 모든 포에서 《전투준비 끝.》, 《전투준비 끝.》 하고 보고하였다.

포옆으로 다가가신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약간 음성을 높여 전투명령을 하달하시였다.

《모든 포들에서 내 명령을 들으시오. 지금 저

건너편 산 큰 바위밑에서 미국놈들의 기관총이 불을 뿜고있소. 적의 기관총을 조준하시오.》

전사들은 민활한 동작으로 고저기와 방향기를 돌려 목표를 조준했다. 이어 여기저기서 《사격준비 끝.》, 《사격준비 끝!》하고 보고드렸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한 포열으로 다가가시며 말씀하시였다.

《조준한걸 내가 한번 보겠소.》

그이께서는 조준수자리에서 허리를 굽히시고 조준경을 들여다보시였다. 그렇게 몇문의 포의 조준경을 들여다보신 그이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뒤에 서있는 사단이며 군단의 지휘관들에게 말씀하시였다.

《동무들도 한번 와서 보시오. 이 동무들이 조준을 아주 잘했소. 목표를 정확히 조준했소.》

긴장했던 리철웅은 안도의 숨을 후 내쉬었다. 정영수도 가슴을 조이고있었던지 최고사령관동지의 칭찬을 받자 손바닥으로 이마를 문질렀다.

그러나 리철웅이 안도의 숨을 내뉜것은 한순간이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한 조준수옆에 서있는 어린 탄약수결으로 오시였다. 줌전에 휴식터에서 최고사령관동지의 물음에 금년 4월에 입대했으며 큰 전투에는 참가해보지 못했다고 기가 죽은 소리로 대답올리던 그 어린 전사였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어린 탄약수에게 직접 목표를 제시하시였다. 맞은편 산굽이를 돌아나오는 땅크가 목표물이었다.

단독으로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주신 전투명령을 받은 어린 전사는 첫순간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졌다.

리철웅련대장은 숨을 죽이고 어린 탄약수의 거동을 주시했다. 련대에는 이런 전사들이 많았다. 입대하여 별로 큰 전투에 참가해보지 못하고 정전을 맞이한 18살이나 19살밖에 안되는 그들에 대해서 특별히 힘을 들여 훈련을 시키도록 강조하기는 했으나 이제 어떤 결과를 보여주겠는지...

그런데 한순간 당황했던 어린 탄약수는 조준경 앞으로 다가서더니 침착하게 목표를 조준하고 쾅쾅한 목소리로 《사격준비 끝.》하고 보고드렸다.

주의깊은 시선으로 어린 탄약수의 동작을 지켜보시던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탄약수의 결으로 오시여 조준경을 들여다보시였다. 잠시후 조준경에서 시선을 빼신 그이께서는 만족한 웃음을 지으시며 어린 탄약수의 어깨를 두드리주시였다.

《조준을 정확히 했구만. 훈련을 아주 잘했소.》

어린 탄약수는 다시금 얼굴을 확 붉히며 시선을 떨구었다. 그러나 당황했던 줌전과는 달리 최고사령관동지의 칭찬을 받은 전사의 무한한 행복감이 어린 빛나는 얼굴이었다. 그런 전사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며 지휘관들도 미소를 지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이어 포 지휘성원들에게도 한등급이상의 임무를 주시고 훈련상태를 검열하시였다. 이윽고 훈련을 끝내신 그이께서는 매우 만족하신 어조로 사단이며 군단의 지휘관들에게 말씀하시였다.

《이 중대동무들이 훈련을 아주 잘했소. 이 동무들은 어떤 정황에 부닥쳐도 능히 한등급이상의 임무를 수행할수 있게 준비되어있소. 이런 군대가 바로 간부군대요. 우린 앞으로 전군을 이렇게 한등급이상의 임무를 수행할수 있는 간부군대로 준비시켜야 하오.》

《간부부대.》 리철웅련대장은 처음 듣는 이 말을 입속으로 되뇌이였다. 그것은 모든 병사와 지휘관들이 어떤 정황에 부닥쳐도 또 어떤 전투임무를 받아도 능히 수행할수 있게 준비되어있어야 함을 의미할것이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중대 전원에게 오늘 훈련을 잘했다고 높이 치하하시고나서 훈련을 끝내시였다.

그이께서는 전사들을 휴식시킨후 자신께서는 잠시의 휴식도 없이 중대장에게 말씀하시였다.

《중대장동무, 이제는 새로 지은 병실들을 보여주시오.》

《알았습니다.》

정영수는 자신만만하게 대답올렸다. 중대가 훈련을 잘했다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치하를 받고난 지금 그는 하늘에라도 날아오르고싶은 심정일것이다. 그이께서는 정영수를 앞세우고 1소대 병실로 들어가시였다. 다른 지휘관들도 다 따라들어갔다.

병실안은 새 건물답게 산뜻한데다 침구며 장구류들도 잘 정돈되어있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아직도 송진내가 풍기는 기둥이며 침상의 널을 만져보시고 미장한 벽의 두터이도 가늠해보시였다.

《중대장동무, 이 집을 얼마동안에 지었소?》

그이의 물으심에 정영수는 잠시 생각하고나서 《건설만은 한달반동안에 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

《한달반? 빠르구만.》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혼자소리처럼 말씀하시거나 다시 정영수에게 물으셨다.

《벽체는 토피로 쌓은것 같은데 토피는 어디서 가져왔소?》

《우리 동무들이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석비레 땅입니다.》

《천정과 침상에 간 널은 어떻게 구했소?》

《산에 다니며 폭격에 부러진 통나무들을 날라다 아래마을에 가서 제채해왔습니다. 마을에 제채톱이 있어서...》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긍정하시듯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지휘관들을 돌아보시며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이 동무들이 큰 문제를 시사했소. 전쟁이 끝난지 두달반밖에 안되었는데 어데서 도와줄걸 바라지 않고 모든걸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면서 건설을 하고 갱도에서 나왔소. 이것이 바로 자력갱생이요. 우리는 지금 모든것이 파괴된 폐허우에서 방대한 복구건설을 시작한것만큼 앞으로 이 자력갱생의 구호를 높이 들어야겠소. 이 동무들처럼 자체의 힘으로 해내겠다는 각오가 무엇보다 귀중한거요.》

의미심장하게 말씀을 마치신 그이께서는 밖으로 나오시며 다른 소대 병실들과 식당까지 일일이 다 돌아보시였다. 그러시면서 거둬 건설을 잘했다고 만족해하시였다. 이윽고 병실을 다 돌아보신 그이께서 생각나신듯 중대장에게 물으셨다.

《중대장동무, 동무들이 살던 갱도는 어데 있소? 갱도를 물어버리지 않았소?》

《아닙니다. 저쪽 산 밑에 있습니다.》

정영수는 뜻밖인듯 성급하게 대답올렸다.

《그럼 그 갱도도 가보자구. 갱도로 안내하오.》

정영수는 알았다고 대답올리고는 병실로 들어가 손전지를 들고 나왔다.

잠시후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지휘관들과 같이 정영수의 안내를 받으며 산골이를 돌아 전쟁시기에 쓰던 갱도입구에 이르시였다. 얼마전까지 전사들이 살던 갱도였으나 문을 열자 안에서 찬바람이 쏘어나오며 눅눅한 습기와 곰팡이냄새가 확 풍겼다.

정영수는 갱도의 문앞에서 전지불로 컴컴한 갱도안을 비쳤다.

《안에까지 들어가보자구.》

그이께서 정영수의 왼쪽팔을 잡으며 재촉하시였다. 리철웅련대장은 아니 이 빈집같은 갱도안에까지 들어가시다니 하고 놀랐으나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벌써 정영수의 팔을 끼시고 걸음을 옮기시였다. 사람이 살지 않는 갱도의 벽들은 물기가 배여 번들거리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습기가 더 짙었다. 갱도안에까지 다 들어가신 그이께서는 전지불로 침실자리며 식당자리까지 다 비쳐보시고 갱도의 벽들도 주의깊이 살펴보시였다. 그러시고는 감회가 새로운듯 지휘관들에게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갱도전을 했기때문에 미국놈들의 기술적우세를 짓부시고 장기전을 할수 있었소. 이 동무들은 갱도도 아주 잘 건설했소. 이 갱도는 잘 보존해야겠소.》

그이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걸음을 옮겨 갱도밖으로 나오시였다. 어느덧 해는 하늘중천을 지

나 많은 시간이 지나간것이다.

갱도밖으로 나오시여 잠시 걸음을 멈추신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지휘관들을 돌아보시며 다시 말씀하시였다.

《지금의 갱도들은 잘 보존하되 전사들을 빨리 갱도에서 나오게 해야겠소. 갱도의 습기속에서 오래 살면 전사들의 건강이 나빠집니다. 지휘관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응당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리철웅련대장은 자책감으로 하여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자신은 물론 지휘관들도 전사들의 부상이나 죽음에 대한 우려가 없어진 지금 그들의 건강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으랴! 전사들에 대한 그이의 세심하고도 뜨거운 사랑에 리철웅은 다시금 머리가 숙어지고 가슴이 후터웠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웃음을 지으시며 강조하듯 말씀을 이으셨다.

《미국놈들이 다시 덤벼들면 또 족칩시다. 그러나 이제는 지상건물을 짓고 전사들을 갱도에서 나오게 해야겠소. 갱도에서 나온다고 해서 평화적기분에 사로잡히는건 아니지 않소. 우리가 보란듯이 지상건물을 짓고 갱도에서 나오는걸 보면 미국놈들도 아연해질거요.》

그이의 신심과 락관에 넘치는 말씀에 지휘관들의 얼굴에도 한결같이 가슴 후련하고 힘이 충만되는 표정들이 떠올랐다.

갱도앞에 몇그루 밤나무가 서있는 오솔길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던 그이께서 길옆에 떨어져있는 밤 두알을 보시였다. 하나같이 잘 익어 반들반들 윤기가 도는 큰 밤알들이였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허리를 굽히시고 그 밤 두알을 주으셨다.

《밤알이 꽤 크구만.》

그이께서는 기쁜듯이 말씀하시고 옆에 서있는 큰 밤나무를 올려다보시였다. 밤나무가지들에는 금시 밤알이 떨어질듯 송이가 버그러진 큰 밤송이들이 가득 매달려있었다.

《금년에 밤이 많이 달렸소.》

대견한듯 웃으며 말씀하시던 그이께서는 그 밤나무가지에 매달아놓은 싸리바구니에 시선을 멈추시였다. 의아해서 그 싸리바구니를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조금 옆에 서있는 다른 밤나무들에도 같은 싸리바구니들이 매달려있는것을 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중대장을 돌아보시였다.

《중대장동무, 저 밤나무에 매달아놓은 바구니들은 웬거요? 밤나무마다 바구니가 매달려있구만.》

군단이며 사단의 지휘관들도 밤나무들에 매달아 놓은 바구니들을 의아해서 쳐다보았다. 리철

응련대장도 요즘은 이쪽 골안으로 오는 일이 별로 없어서 보지 못했던 바구니들을 쳐다보며 영문을 몰라했다.

정영수는 계면쩍은 미소를 지으며 나직이 대답을 올렸다.

《아래마을 아이들이 자꾸 밤파러 오는데 위수 구역이 돼서 함부로 들여놓을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무들이 생각하다가 밤나무들에 바구니를 매달아놓고 떨어지는 밤을 주어넣었다가 그걸 모아 마을에 내려다주기로 했습니다. 얼마전부터 한번에 두어배낭씩 몇번 내려다주었더니 이제 아이들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정영수의 대답을 들으시는 그이의 안광에 더없는 만족과 기쁨의 미소가 환히 빛났다.

《동무들이 참 좋은 일을 하고있소. 동무들이야말로 참된 인민의 군대요. 인민의 군대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할수 없소... 전사들에 대한 교양을 아주 잘했소. 교양을 잘했소.》

그이께서는 너무도 기쁘시여 큰소리로 거듭 축하하시고나서 또다시 한참이나 밤나무들에 매달아놓은 짜리바구니들을 신기한 보물처럼 쳐다보시었다. 그러시다가 자신께서 손에 들고있는 밤두알을 보시고 《그럼 나도 내가 주는 밤알을 바구니에 넣어야지.》라고 하시며 밤나무밑에 있는 바위우에 올라서시여 바구니에 넣으셨다. 그때 바구니안을 들여다보신 그이께서는 땅에 내려서시며 기뻐서 말씀하시었다.

《밤이 많이 찼소. 마을 아이들이 좋아하겠구만.》

정영수는 자기들이 한 자그만한 일이 그토록 그이를 기쁘시게 하여드리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한듯 오히려 얼굴이 불길해졌다.

중대 야외휴식터로 돌아오신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아까 전사들과 같이 앉으셨던 통나무의자에 다시 앉으셨다. 그러시고는 정영수에게 옆에 와서 앉으라고 말씀하시었다. 정영수는 처음 송구하고 황송해서 어쩔줄 몰라하다가 그이께서 거듭 앉으라고 하시자 의자끝에 엉겨주춤 걸터앉았다.

《중대장동문 지금 몇살이요?》

정영수쪽으로 몸을 돌리신 그이께서 처음으로 나이를 물으셨다. 정영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스물세살입니다.》

《스물세살?》

그이께서는 놀라듯 되뇌이시더니 정영수에게 다시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주위에 앉아있는 지휘관들을 둘러보시며 만족하신티어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중대장이 나이는 젊는데 전사들에 대한 교양을 잘했소. 훈련도 잘하고 건설도 잘했소. 나는

오늘 좋은 중대장을 알게 되어 기쁘오.》

정영수는 너무도 과분한 치하에 몸둘바를 몰라하며 눈길을 떨군채 앉아있었다.

정영수를 대견하게 바라보시던 그이께서 다시 물으셨다.

《중대장동무는 언제 입대했소?》

정영수는 시선을 들며 일어섰다.

《1946년도에 38경비대에 입대했습니다.》

《46년? 그럼 그때가 몇살이요?》

그이께서는 좀 놀라시는듯했다.

《16살입니다.》

《16살? 어떻게 그렇게 일찍 군대에 입대했소?》

《우리 마을 청년들이 입대할 때 따라가서 저도 입대하겠다고 조르니까 려단장동지가 항일유격대에도 어린 동무들이 있었다고 하며 받아주라고 해서 입대했습니다.》

《려단장이 누구요?》

《최현동지입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빙그레 웃음을 지으셨다.

《최현동무가 사람들을 잘 키웠소.》

그이께서는 곧 웃음을 거두시고 다시 물으셨다.

《중대장동무는 어느 전투에 참가했소?》

정영수는 생각을 더듬는듯 잠시 입을 다물고있었다.

전쟁전에 38경비대에서 중대장으로 복무한 리철웅은 정영수가 걸어온 전투의 길을 잘 알고있었다.

주체35(1946)년 5월, 38경비대 제3려단 훈련소에 입대한 그는 나이는 어더도 총을 잘 쏘는것으로 하여 려단장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다.

주체37(1948)년 5월에 있는 송악산전투에서는 우리 경비대원들을 살해하고 주변의 인민들을 략치해갈 목적으로 경비대초소에 기여들었던 국방군 장교놈을 단방에 쏘아눕힌것으로 하여 려단의 명사수로 이름을 날리었다. 19살에 화선입당한 영수는 38경비대에 처음으로 박격포소대가 조직되자 그 소대의 소대장으로 임명되였다. 그후에 있는 은파산전투에서 그의 소대의 박격포들은 적들의 머리우에 백발백중의 명중탄을 퍼부었다. 전쟁이 일어난후 박격포중대장으로 임명된 그는 인민군대가 걸어온 수천리 전투의 길에서 높은 책임성과 영웅성을 발휘하여 말려진 전투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였다. 락동강연안의 피어린 전투들에서, 진지방어전의 가렬한 싸움에서 그의 중대의 박격포들은 적들에게 드세찬 불벼락을 들뜨우군했다.

정영수는 말을 시작했으나 최고사령관동지의 시간을 너무 지체시키는것 같아선지 큰 전투들만 주려서 성급하게 대답올렸다. 정영수의 말을 한번도 중단시킴이 없이 주의깊게 듣고계시던 그이



게서 만족한 웃음을 지으며 말씀하시었다.

《중대장동무는 어려서 혁명에 참가하고 전투에서 단련된 훌륭한 혁명가요.》

그러시고는 지휘관들을 둘러보시며 신심에 넘친 어조로 말씀을 이으셨다.

《오늘은 이 중대장과 같은 동무들이 우리 인민군대의 골간이요. 이런 지휘관들이 있고 이 중대 전사들처럼 잘 준비되고 교양된 군대가 있는 한 미국놈들이 다시 전쟁의 불을 지른다 해도 우리는 무서울것이 없소.》

최고사령관동지의 말씀에 지휘관들도 공감하며 중대장이 일을 잘했다고 칭찬들을 아끼지 않았다. 정영수는 더 웅색해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윽고 통나무의자에서 일어서신 그이께서 따라 일어난 지휘관들을 둘러보시며 의논하듯 말씀하시었다.

《이제는 나이든 전사들을 제대시켜 고향에도 보내고 공장과 건설장으로도 보냅시다. 학교에 가고싶어하는 동무들은 학교에도 보내고...》

이 뜻하지 않았던 말씀에 지휘관들의 얼굴에 어렸던 환희의 빛은 사라지고 다소 놀란듯한 표정들이 떠올랐다. 심상치 않은 정세에 대한 생각이 순간에 그들을 사로잡았을것이다.

지휘관들의 의견을 대변하듯 사단장이 말씀을 렸다.

《나이든 전사들을 제대시키면 부대의 핵심이 빠지게 되겠는데 정세로 보아 일었겠는지... 지금 부대의 핵심은 전쟁전과 전쟁이 일어난 직후에 입대한 나이든 동무들입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공감하시듯 머리를 끄덕이시였으나 확신에 넘쳐 힘있게 말씀하시었다.

《일없습니다. 나는 오늘 이 중대 전사들의 훈련정형과 교양상태를 보고 결심이 확고해졌습니다. 어린 동무들도 이 중대에서처럼 훈련과 교양이 잘 되면 능히 싸워서 이길수 있습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창건된 력사가 길지 않아도 미국놈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지휘관들은 아직도 선뜻 대답올리지 못했다. 리철웅련대장도 나이든 전사들을 제대시키는 문제는 생각도 할수 없었던 일이었다. 그도 사단장이 우려한것처럼 부대의 전투력을 생각하며 최고사령관동지의 다음말씀을 기다렸다.

그이께서는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정색해서 말씀하시었다.

《동무들, 우리는 미국놈들이 어떤짓을 해도 복구건설을 해야 합니다. 지금 당은 모든것을 전후 복구건설에로 집중할데 대한 구호를 제시하고 웅대한 복구건설방향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복구건설을 담당수행해야 할 사람들은 다 인민군대에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모든것을 전쟁승리를 위하여>라는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청장년

들은 모두 인민군대에 나오고 후방에는 녀성들과 로인들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정전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하루빨리 미국놈들이 무참히 파괴한 도시와 마을을 일으켜세워야 하며 농업생산을 늘려 전쟁으로 령락된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과학과 문학예술도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 모든것을 담당수행하여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 전사들입니다. 내가 오늘 사단에 내려온 목적도 바로 이 문제때문입니다. 지금 조국은 우리 인민들을 복구건설에로 부르고있습니다.》

그이께서는 말씀을 끊었다가 주먹친 손을 드시며 더 힘있는 어조로 말씀을 이으셨다.

《우리는 복구건설에서도 미국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어야 하오.》

그때에야 지휘관들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떠올랐다.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아까 우려하는 마음을 말씀올렸던 사단장이 환희의 어조로 대답올렸다.

《알았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의 말씀대로 전사들모두를 한등급이상의 직무를 수행할수 있게 준비시키면 일부 나이든 전사들을 제대시켜도 능히 감당해낼수 있습니다.》

《그렇소, 바로 그거요. 우리 전사들모두를 이 중대 전사들처럼 잘 교양하고 훈련하여 무적의 전사들로 키우면 일부 전사들을 제대시켜 복구건설을 하고 나라를 발전시키면서도 원썬놈들의 침략책동에 맞서 조국을 지켜낼수 있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힘있게 말씀하고나서 웃음을 지으시며 다른 지휘관들에게 물으셨다.

《동무들은 어떻게 생각하오?》

지휘관들은 활기를 띠고 대답올렸다.

《예,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그렇게 하겠습니다.》

리철웅련대장은 한없이 부풀어오르는 경모의 마음에 휩싸이며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러러보았다.

그이께서 오늘 이 박격포중대에 오신것은 단순히 정전이 된후 두달동안에 지어놓은 지상건물을 보시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중대에서 거의 반나절을 보내시며 전사들의 훈련상태도 검열하시고 생활도 료해하신것은 전후복구건설의 방대한 계획을 승리로 령도하여 부강한 조국을 일떠세울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시기 위하여서였다. 본계선너머에는 아직도 미제침략자들이 남아있고 적들의 재침야망이 가셔지지 않았으나 그이께서는 또다시 방대한 전후복구건설의 사령관이 되시여 인민들을 새로운 전투에로 부르고계신다.

리철웅련대장의 눈앞에는 재더미만 남은 도시와 마을들, 다 파괴된 공장과 농촌들, 아직도 방공호에서 살고있는 인민들의 모습이 삼삼히 떠올

랐다.

그러나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복구건설을 승리에  
로 령도하고계시는 한 멀지 않아 조국은 재더미  
를 헤치고 일떠설것이며, 조국의 미래는 휘황찬  
란하리라는 락관과 신심이 온몸에 차고넘치였다.

그러면서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인민의 운명과  
행복을 위하여,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바치시는  
그이의 불면불휴의 로고를 생각하게 되고 자연  
가슴속에서 뜨거운 열풍이 솟구쳐올랐다.

활기를 띤 지휘관들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  
는 감사의 정이 넘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동무들이 나를 리해해주어 고맙소.》

그러시더니 손목시계를 보시고 사단장에게로  
시선을 돌리시였다.

《자, 그럼 이제 사단으로 돌아갑시다.》

그이께서 비로소 중대를 떠나려고 걸음을 옮기  
시는데 정영수가 불쑥 최고사령관동지 앞으로 다  
가섰다.

《최고사령관동지, 한가지 제기할만합니까?》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리철  
웅련대장은 저으기 놀라며 이젠 또 무슨 외람된  
짓인가? 하고 마뜩지 않게 정영수를 바라보았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중대에 오시여 그렇듯 많  
은 시간을 보내시며 중대를 료해하시고 높이 평  
가하여주시였는데 이 사람이 또 무슨 엉뚱한 소  
리를 하려나싶어 속이 달아올랐다. 다른 지휘관  
들도 의아해하는 시선으로 중대장을 바라보았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너그럽게 말씀하시였다.

《제기하시오.》

정영수는 지휘관들의 못마땅한 시선이 자기에  
게 쏠리는것을 느껴선지 성급하게 말씀올렸다.

《저도 학교에 보내주십시오.》

지휘관들은 그런 하찮은 일때문에 최고사령관  
동지를 지체시키는 중대장의 태도에 어이없는 표  
정을 짓는데 그이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물으셨  
다.

《그래 무슨 학교에 가겠소?》

정영수는 힘을 얻은듯 목소리를 낮추며 심중의  
말씀을 드렸다.

《아직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16살때부  
터 전연에서 복무했기때문에 어떤 학교에 가야겠  
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은 더 간절합니다. 저는 아는것이 많지 못  
합...》

정영수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최고사령관동지  
께서 웃으시며 다짐을 받듯 말씀하시였다.

《그럼 동무는 우리가 가라는 학교에 가야 돼.》

그러시고는 사단장을 돌아보시였다.

《사단장동무, 우리 지휘관들도 모두가 한등급  
이상의 지휘능력을 소유할수 있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풍  
부한 전투경험과 현대적인 군사과학기술로 무장  
한 지휘관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된 우  
수한 지휘관들이 있고 잘 교양되고 훈련된 전사  
들이 있으면 어떤 원쑤가 덤벼들어도 무서울것이  
없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다시  
정영수에게로 시선을 돌리시였다.

《중대장동무, 좋은 의견을 제의했소. 다른 의견  
은 없소?》

《없습니다.》

썩썩하게 대답올리는 정영수의 눈은 기쁨으로  
빛났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가벼운 걸음으로  
보초소앞으로 걸어가시였다. 지휘관들의 뒤에서  
따라가는 리철웅련대장은 학교에 보내달라고 한  
정영수를 나무랐던 일이 떠올라 자기의 근시안적  
인 견해를 무겁게 돌켜보았다. 그이의 구상과  
뜻은 얼마나 깊고 원대하고 락관적인가!

그렇다, 조국은 멀지 않아 재더미를 헤치고 일  
떠설것이며 미제침략자들이 다시 덤벼들어도 단  
매에 족칠수 있게 준비된 무적의 군대를 가지게  
될것이다.

그는 충만되는 힘을 느끼며 맑고 푸른 가을하  
늘을 쳐다보았다. 오늘 처음 쳐다보는 유정한 가  
을하늘이였다.

×

그로부터 얼마후 전전선에 걸쳐 나이든 전사들  
과 하사관들을 제대시키는 사업들이 진행되였다.

3년간의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운 전사들은 희망  
에 따라 공장과 건설장으로, 농촌과 어촌으로 떠  
나갔다. 배움의 열망을 안고 대학과 전문학교, 로  
동학원으로 떠나가기도 했다. 떠나간 전사들의  
자리에는 모든 전사들을 한등급이상의 직무를 수  
행할수 있는 간부군대로 키울데 대한 최고사령관  
동지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전투정치훈련에  
서 단련된 새 세대 전사들이 서있었다.

리철웅련대장은 제대되는 전사들을 배웅할 때  
마다 이렇게 말하곤했다.

《동무들은 새로운 전선으로 떠나갑시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제시하시고 령도하시는 방  
대한 전후복구건설전선이 동무들을 기다리고있습  
니다. 동무들은 어제날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전쟁에서 그리하였던것처럼 복구건설에서도 용  
감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승리자가 되리라고 믿  
습니다. 여기 전선은 넘려마시오. 강철의 령장,  
우리의 최고사령과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는 그 어떤 원쑤놈들의 침략책동도 단매에  
족칠수 있는 무적의 군대로 준비되어있을것입니  
다. 동무들의 승리의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 위대한 영생 외 1 편

문동식

화창한 봄빛이 흐른다  
주체년호로 불리우는 세월에  
인류의 태양 **김일성** 동지  
그이의 사랑의 해빛이 흐른다

만경대의 사립문을 나서신 그날부터  
인민에게 운명의 봄빛이 되신 그이  
자주의 초행길을 헤쳐오시여  
만민에게 광명한 세계를 주신 그이

그이는 오늘도 걷고계시여라  
만고불멸의 위대한 사상으로  
복된 락원에 안겨사는 인민에겐  
더 밝은 창문을 열어주시여라

길을 잃고 벼랑끝에 나선 사람들  
그들에겐 구원의 길 열어주시여라  
자본의 살풍에 얼어든 가슴들은  
품에 안아 따뜻이 녹여주시여라

신령과 관념 숙명의 사슬에  
결박되어 암야에 묻히는 그들에겐  
만물을 지배하는 주인의 넋을 주어  
력사의 룡마우에 태워주시여라

소박하고 근면한 인민에게 주시는  
그이의 사랑엔 국경이 없노라  
차별없이 베푸시는 그이의 인덕은  
누리에 넘치는 훈풍으로 뜨거워라

민족과 종족들의 가슴마다에  
모든 인간들의 가정마다에  
그이의 자애는 해빛으로 흘러들어  
인류는 그이를 구세주로 부르나니

주체의 태양 **김일성** 동지  
폭군들의 눈도 빛을 잃고마는  
그이께서 이끄시는 무궁한 세월은  
그이의 영원한 사랑의 대하여라

그 사랑의 열과 빛을 안고

해와 별이 우주에 빛을 뿌리고  
그이의 열화같은 숨결이 흘러들어  
강물이 굽이치고 대양이 파도치고

예속과 치욕의 멍에를 벗어던진  
운명의 주인들이 붉은기 휘날리며  
권리와 자유 존엄을 찾아  
자주의 무성하는 대오를 이루나니

주체년호로 불리우는 세월로  
영생불멸하시는 **김일성** 동지  
해와 달과 지구를 그이께서 이끄시여  
오, 인류의 리상 공산주의는  
승리의 월계관을 번쩍이리라

봄이여, 네가 웨쳐다오  
시내가 실버들에 새움을 띄워  
소생의 환희를 안겨주는 봄이여  
말해다오  
너의 빛, 너의 꽃, 너의 노래는  
어디서 걸음떼고 오늘로 왔느냐

땅을 빼앗겨  
봄도 산천도 생명도 빼앗겨  
웃음도 노래도 없던 이 땅우에  
그 언제부터 봄빛이 흘렀더냐  
꽃구름 피어서 향기를 풍겼더냐

눈석이도 오기전에  
꿈결에도 뵈고싶던 어버이수령님을  
성에긴 추녀낮은 초가막에 모시고  
울고웃던 농민들의 그 마음안고  
봄꽃이여  
너희는 피어나지 않았더냐

3월 5일 그날은  
대통운의 날이었지  
-토지는 발같이하는 농민에게!  
우리 수령님 터치신 봄우뢰소리에  
초목들아 너희는 설음에서 깨어나  
한껏 머리 쳐들고 목메여 설레었지

진정 그날의 웃음과 노래  
 땀과리 새납소리 날리리 상모춤...  
 그 봄을 후세에 길이 물려주자고  
 씨앗마다 새싹마다 서로 불러 손잡고  
 산에 들에 초록색 봄단장 펼치누나

이 봄의 살진 이랑이랑에  
 뿌리내려 솟는것이 어찌 쌀산뿐이라  
 땅을 다시 찾은 그날로부터  
 봄도 산천도 생명도 다시 찾은  
 주인들의 복된 삶의 빛발이거니

다시 노예의 멍에를 씌우려  
 한파를 몰아오는 제국주의얼음산에  
 스리스리 다 녹여버리는  
 위대한 주체의 나의 조국에

찾아오는 봄이여, 3월의 봄이여

네가 웨쳐다오  
 자랑해다오

망국노의 울분이 사무치던 이 땅에  
 우리 수령님 안겨주신 사랑의 법령  
 -토지는 발갈이하는 농민에게!  
 불처럼 뜨거운 그 은혜가  
 영원한 새봄으로 깃들어있다고

길이길이 웨쳐 전하여다오  
 어버이수령님 찾아주신 이 땅우에  
**김정일**장군님의 사랑의 해빛넘쳐  
 영원무궁토록  
 화창한 봄날만이 꽃피나고있다고

## 대오여

### 권강일

대오여  
 흐르는 열병대오여  
 무한계도철갑들에, 비껴든 포신들에  
 강성하는 내 조국의 힘이 실린 흐름이여

무슨 말이면 이 마음 다 터치라  
 꽃다발 손에 든채 바라보노니  
 분하구나  
 이렇게도 강한 군대를 두고  
 우리는 절반땅 아픔을 안았구나

《결사옹위》 《총폭탄》 《조국통일》...  
 철갑마다 새긴 저 글발은  
 빈말이 아니다  
 땅도 크지 않은 땅  
 인구도 많지 않은 나라  
 우리는 세상 누구보다 어렵게  
 자위의 이 힘을 길렀다

더 세우고싶은 학교와 유치원과  
 더 두고싶은 평화로운 공장들을  
 후날로 후날로 미루며  
 흘린것은 방울방울 땀이던가 피였던가

전쟁과 맞서온 준엄한 날들에  
 우리 인민은 치르었다 평화를 지켜  
 전쟁으로 입는 피해보다 몇곱절  
 더 큰 손실과 가슴아픈 회생을

값을 내라 제국주의침략자들이

저 총대 하나하나마다에  
 참고참으며 방수포를 벗기지 않은  
 저 포문 하나하나마다에

일일천추 통일을 바라고바라도  
 유리 한장 나무 한그루  
 깨여지고 불에 타는것을 원하지 않는  
 우리는 대대손손 이 땅에 살아야 할 주인

그래서 80평생을 바치시고도  
 어버이수령님 분계선에  
 평화통일을 유훈으로 새기시였고  
 무적강군을 키우시고도 우리 장군님  
 전연시찰의 고지에서 엄엄히 내리시거니

물리가라 제국주의침략자들이  
 더러운 검은 피로  
 네놈들의 몸뚱이를 적시기전에  
 하루하루 침략자의 오명과 최악이 커지는  
 전쟁을 견어안고 소굴로 돌아가라

전쟁에는 그 무슨 배상금이 있다지만  
 값지 못하리라 그 어떤 대가로도  
 자주 평화로 전쟁을 이긴 우리 인민에게는  
 자주 평화로 통일을 이룩할 우리 조국앞에는

아, 대오여  
 세상 둘도 없는 아픔을 안은  
 우리 인민 분노여  
 정의를 비껴든 무적의 힘이여

## 사립문

화창한 봄이 오면 일만가지 아름다운 경치를 펼쳐놓는다고 하여 그 이름도 만경대.

추녀낮은 만경대고향집앞에 이르면 사립문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언제나 열려져있다.

여기에는 가슴뜨거운 사연이 있다.

주체34(1945)년 10월 14일, 이날 가을하늘은 류달리도 맑았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전의 나날 어느 한시도 잊으신적 없는 조국과 인민 앞에 개선의 첫 인사를 하시고서야 오매에도 그리운 고향 만경대를 찾으시였다.

스무해만에 돌아오시는 고향길이였다.

백두의 험산준령을 주름잡으시며 일제 백만대군을 족치시던 장구하고 준엄한 싸움의 그 나날 얼마나 가고싶으신 고향길이였던가.

조국해방의 큰뜻을 품으시고 만경대고향집사립문을 나서시여 20년, 우리 아버지수령님께서 스무해 긴긴세월 간고무쌍한 행군의 종착점인 고향 만경대를 찾으시였을 때 만경대 동구밖에서는 온 동네가 떨쳐나 수령님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악수, 포옹, 인사 그리고 만세, 만세의 환호!

이날 만경봉에서 다박솔향기가 싱그럽게 불어왔고 마을쪽에서는 다듬이방치소리가 구성지게 울려오는가 하면 갈매지벌쪽에서 《음메-》하는 소의 영각소리가 길게 울려왔다.

20년만에 맛보게 되는 고향의 정다운 향취에 수령님께서서는 그만 목이 짹 메이시였고 주마등처럼 떠오르는 못잇을 추억에 잠기시였다.

동무들과 함께 군사놀이를 하시던 즐거운 소풍시절, 감옥에 계시는 아버지생각으로 쪽잠마저 어설프던 그 유년시절이 떠오르시였다.

10대의 어린 시절에 고향을 떠나시여 30대의 림름한 청년장군이 되시여 스무해만에 아름다운 고향땅을 밟으시였으니 그이께서 얼마나 감회가 깊으셨으랴.

일만장강을 건느다가 물에 오른 심정으로 눈에 익은 고향집추녀를 바라보시는 순간 그이께서는 어린 시절 자장가를 불러주고 입김으로 언손을 녹여주시던 아버님과 어머니님, 함께 돌아오시지 못한 아버님과 어머니께서 인자한 옛모습 그대로 소생하여 《성주야!》하고 소리쳐부르며 달려나와

두팔을 벌리고 그이를 부둥켜안는것 같은 환각에 사로잡혀 걸음을 선뜻 떼지 못하시였다.

삼촌어머니로부터 수령님께서 오신다는 연락을 받고 할머니께서 사립문밖으로 달려나오시였다.

《우리 장손이 틀림없구나!》

《할머니!》

할머니께서는 수령님의 넓은 품에 그대로 안기시였다.

《네가 기어이 돌아왔구나! 이게 꿈이냐, 생시냐!》

나라찾을 큰뜻을 품으시고 떠나면 이국땅으로 떠나간 아들과 며느리, 손자분들이 독립만세를 부르며 돌아오리라느 크나큰 기대를 마음의 기둥으로 삼고 곳곳이 살아오신 할머니이시였다. 그런데 막손자분께서 드디어 크나큰 영광을 안고오시였으니 정녕 할머니의 기쁨은 이루 헤아릴수 없이 크시였다. 그럴수록 이 기쁜 날에 함께 돌아오지 못하시는 일가분들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모질었던 그 긴긴세월 가슴속깊이 묻어두셔야 했던 설움이 북받쳐오름을 금할수 없으시였다. 할머니께서는 《너를 보니 한생에 쌓인 시름이 다 풀리는구나! ...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는 어데다 두고 이렇게 혼자 왔느냐... 같이 오면 못쓴다더냐!》 하며 그이의 가슴을 두드리시였다.

할머니의 심정이 이처럼 비통할진대 만리타향에 누워있는 선친들의 유해마저 모시지 못하고 고향집사립문에 홀몸으로 들어서신 우리 수령님의 마음이신들 얼마나 아프셨으랴.

고향을 떠날 때는 모두들 나라를 찾고서야 돌아오겠다면서 씩씩하게 사립문을 나서신 일가분들의 모습이 선하시였다.

일생을 독립운동에 바치신 첫날부터 모진 풍파를 다 겪으시다가 고향으로부터 수천리 떨어진 지역의 자그마한 지붕밑에서 망국의 한을 풀지 못한채 너무도 일찌기 32살에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님.

생의 마지막순간까지도 모든 정신력을 오직 혁명 하나만을 위해 소모하신 어머니님, 인정에 무르면서도 세상에 드문 강직한 성품을 지니신 어머니님께서 6년후에 안도에서 독립의 날을 보지 못한채 돌아가시였다.

10살을 넘기기 바쁘게 혁명에 나서신 사랑하는 동생도 스무살도 채 되지 못한 꽃나이에 전장에서 싸우다 희생되어 그 유해조차 건지지 못하였다.

몇해후에는 카룬회의방침을 받들고 싸우시던 삼촌도 마포형무소에서 모진 고문끝에 옥사하였으며 돈이 없어 삼촌의 시신은 형무소공동묘지에 묻히지 않았던가.

나라를 찾고 꼭 돌아오겠다며 사립문을 나선 끝끝하던 일가분들이 스무해사이에 다들 이렇게 낯설은 이국땅에 뿔뿔이 흩어지었다.

이러한 크나큰 상실의 아픔을 안으시고 홀로 사립문에 들어서시던 이날을 회고하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이렇게 쓰시었다.

《나는 그때부터 남의 집 사립문에 들어설적마다 이 사립문으로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은 몇이며 돌아오지 못한 사람은 얼마일가 하는 생각을 하곤하였다. 이 나라의 모든 사립문들에는 눈물에 젖은 리별의 사연이 있고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 혈육들에 대한 목메인 그리움과 뼈를 에이는 상실의 아픔이 있다.》

망국은 순간이요 복국은 천년이라는 말이 있듯이 순간에 잃은 조국을 찾느라고 만경대혁명일가분들을 비롯한 이 나라의 장한 아들딸들이 정든 고향집사립문을 나서서 수십년간 산에서 풍찬로

숙하며 지어 그 길에서 애젊은 청춘을 서슴없이 바친 사람들은 정녕 그 얼마이던가.

자기와 가정을 생각하기에 앞서 겨레와 조국을 먼저 생각하였기에 이들이 흘린 피가 그토록 값있는것이다.

이런 피와 눈물의 바다를 넘어 포연탄우를 헤치시며 우리 수령님께서 망국 40년만에 조국을 찾고 리향 20년만에 고향을 찾게 되시었으니.

사람들이여, 무심히 보지 말라.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서시라, 만경대고향집사립문에.

만경대고향집사립문! 이는 나라잃은 우리 민족, 매 가정이 당한 불행과 고초를 보여주는 한 축도이다.

여기서 독립의 불씨가 자라 거연한 불길이 온 나라에 퍼졌고 마침내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 인민의 세상이 이 땅에 현실로 꽃피난것이다.

만경대혁명일가분들이 고향집을 떠날 때의 모습, 씩씩하고 튼튼한 생전의 모습으로 들어서기를 기다리는듯 오늘도 열려져있는 만경대고향집의 사립문!

바로 여기로 만경대혁명일가분들의 《지원》의 사상, 애국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우려 온 나라 인민이, 아니 인류가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선다.

신경애

## 승리의 그날을 축하하네

프레드 아그보블리

세월은 흘러 어느덧 수십년  
오늘 우리 감회깊이 돌이켜보노라  
장쾌한 승리, 값비싼 승리의 갈피를  
위대한 수령님의 굳센 손길에  
제국주의침략자들이 당한 패배의 력사를

강철의 령장 **김일성**대원수님  
그이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암운이 드리웠던 조선의 하늘에 찬란히 솟아오른  
밝은 태양  
그이의 위대한 령도아래 조선은 일떠섰어라

민족의 운명 한몸에 지니신분  
악랄한 제국주의침략자들 쳐물리치고  
위대한 조선의 기상 떨치시었네

그 길에서 한목숨 서슴없이 바친  
용감한 조선의 아들딸들  
주체조선에 지상락원 꽃피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따뜻한 사랑속에서  
오늘도 영생한다네

수십년세월 흘러간 오늘에도  
위대한 승리의 크나큰 기쁨  
수백만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네  
제국주의지옥을 쳐없애고 령구차에 실어  
저세상으로 보낸 그날을 새겨주네

(필자는 가나혁명수호위원회 아라크시  
제7구역비서임)

## 전설은 계속된다

-총서 《불멸의 력사》 중 장편소설 《대지의 전설》에 대하여-

김성우

전설은 태고적인류의 신화적환상의 산물로서 태여났다. 유년기인류는 신비로운 자연의 미와 그 놀라운 위력앞에 끝없이 매혹되어 당시 인간의 지성으로써는 알지 못한 그 모든 현상을 《신》의 조화, 《신》의 기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인간이 꾸준한 탐구의 길을 거쳐 과학의 열쇠를 찾아쥐고 우주세계의 비밀의 문을 열어제끼었을 때 유년기의 환상은 깨어져나가고 전설의 매력은 사라졌다.

하지만 총서 《불멸의 력사》 중 장편소설 《대지의 전설》(김삼복)을 펼치면 그속에서 우리는 주체시대가 엮은 가장 매혹적인 전설의 한페지를 읽을수 있다. 여기에는 하늘이 낸 위인이 조선에 계시어 전후 이 땅에 펼쳐진 사회주의농업협동화의 새 시대가 감동적인 필치로 그려져있다. 말그대로 전설이라고밖에는 달리 표현할수 없는 조선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며 우리는 이 땅에서 전설의 시대가 다시 열려지고 꺼져버렸던 전설의 매력이 다시금 광채를 띠고 되살아나는 것을 황홀한 기쁨속에 확인할수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후 우리 나라 농촌의 구체적실정과 농민들의 혁명적지향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기술적개조에 앞서 경리형태를 개조할데 대한 농업협동화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개인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습니다.》**

장편소설 《대지의 전설》은 전후 농업협동화운동을 승리에로 이끄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성을 심오히 형상하고있다.

작가는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인덕정치의 은혜로운 빛발아래 전후 우리 나라 농촌에서 사회주의협동화의 새 력사가 어떻게 펼쳐지게 되였는가를 참으로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재현하고있다.

남들은 현대적공업의 기초를 쌓은 다음 그 지원밑에 비로소 집단경리의 첫걸음을 떼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었단가. 전쟁이 남겨준 참혹한 폐허와 봉건이 물려준 락후한 소농기구... 그것이 전부였다.

하기에 아직도 입에서 흘레브와 빠다맛이 가시

지 않은 《얼마우재》 강봉석농업성부상은 이렇게 말하였다.

《저걸 보오. 느릿느릿 세월없이 굴러가는 소달구지 하나가 겨우 눈에 띄이고있소. 저 소달구지우에 꼴호즈라고 하는 짐을 싣자고 하오? 세상이 웃겠소.》

이전 쏘련에서 대규모꼴호즈의 농산기사로 일한바 있는 그의 시점에서 보면 전후 농업협동화문제는 완전한 공상에 불과한것이였다.

그러나 우리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무엇을 믿고 무슨 타산으로 지체없이 협동화를 실현할 대담한 결심을 내리신것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농민들속으로 들어가시였다. 평양시 근교의 한 농촌마을 강춘보로인일가를 만나보시고 그들이 마을의 빈농민들과 함께 호미를 들고 일떠서 불타고 파헤쳐진 논밭을 가꾸기 시작한 모습에서 형언할수 없는 기쁨과 힘을 받아안으시였다. 전쟁통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집마저 불타버린

우리 인민이 오히려 어버이수령님께 괴로워마시라고, 저희들이 전쟁속에서도 좋은 작황을 마련해놓았다고 위로의 말씀을 올릴 때 수령님께서서는 한없이 고마운 심정으로 그들을 품에 안아주시는것이다. 전쟁을 이긴 인민, 전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되고 성장한 인민의 참모습을 보시게 된것이 기쁘시였다. 이런 농민들을 가지고있는데 복구건설을 왜 못하겠는가. 강봉석이가 우리 농촌을 느릿느릿 굴러가는 소달구지에 비유하여 숨답답한 모습으로 보고있는것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허황한것인가.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평남관개공사를 앞당길 대책을 토의하는 협의회에서 개인농민경리의 협동화와 관련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에게는 전쟁에서 단련되고 성장한 인민의 혁명적열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밑천입니다. 인민대중의 힘은 무궁무진합니다. 이 힘을 조직동원할수 있는 실체가 협동경리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두개의 서로 다른 관점, 두개의 서로 다른 철학의 대립이 제시되고있다. 강봉석을 비롯하여 기성의 리론과 앞선 나라들의 경험만을 절대시하는 사람들은 객관적조건을 고찰함에 있어서 물질적인것만을 보고있다. 다시말하여

우리 공업과 농업의 물질적파괴상만을 보고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은 침울해지고 의기소침해지며 허무감과 패배주의에 빠지게 된다. 또 다른 나라의 원조에 기대를 걸고 손을 내밀게 된다. 즉 자주성을 잃게 된다. 그러나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보면 문제가 달라지는것이다. 전쟁을 통해 물질적으로는 손실을 보았지만 사람들의 사상정신상태는 멀리 앞으로 나아갔다. 우리 농민들은 전쟁기간에 품앗이반, 소겨리반을 무어 서로 돕고 이끌면서 난국을 타개하였고 전쟁이 끝난 오늘에도 그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합심하여 일할것을 요구하며 또 그렇게 하고있는것이다. 이것이 귀중한것이다.

농업협동화라는 건물을 공업화의 토대우에 짓지 않으면 기초가 약한 건물이 허물어지듯 어차피 실패를 면치 못한다는 물질중심의 관점과 바로 협동화를 해서 사람들을 묶어세워야만 령락된 인민생활도 안정시키고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사회주의농촌도 건설할수 있다는 사람중심의 관점이 이 소설에 설정된 문제와 갈등의 기초에 날카롭게 얹혀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을 믿고 그들의 가슴속에 불타는 혁명적열의를 믿고 농업협동화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치시였고 파감히 밀고나가시였다.

그러나 농업협동화의 길은 순탄치 않았다. 소설은 경험적단계를 거쳐 대중적단계에 이행하는 전과정에 얼마나 복잡한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 모든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는데서 수령의 현명한 령도가 어떻게 결정적역할을 노는가를 실감있게 보여주었다.

소설에서는 농업협동화의 《황금이삭》이 최창익도당이 일구어놓은 좌우경의 찬바람도, 현상도와 같은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의 악랄한 도전도 다 이겨내어 풍만한 열매로 주렁지게 된 근본요인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뜨거운 은정 속에서 찾고 수령님과 운명적으로 련결된 산 인간들의 생동한 형상을 통하여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밝혀내고있다.

진리는 백번 정당하고 아름다운것이지만 그것이 현실속에 구현되는것은 순탄치 않은 법이다. 당이 지퍼준 신념의 화불을 높이 들고 협동화의 초행길에 나선 현촌마을의 최옥금이네 《화불농업협동조합》을 비롯한 집단경리의 첫 씨앗은 움터나자마자 흑심한 된서리를 맞게 된다. 계급적원썹들은 몇마리 안되는 부림소를 독살하였다. 최창익의 지령을 받은 줄개들은 령세농민들의 생활을 돌보기 위해 내각결정으로 배당된 대부금을 협동조합에는 대부해줄수 없다며 맹정하게 배척해버렸다. 락후한 조합원들은 온종일 연약한 몸으로 두엄지계를 진 치너관리위원장의 뒤소리를 하며 일터에 나오지 않는다. 당원들은 모여앉아

나어린 최옥금을 도와 끝까지 조합을 지켜나갈 대책을 토론하지만 아직은 앞길이 막막하다. 봄비가 내리는데 지붕우의 눈까지 녹으며 떨어지는 락수물소리가 그치지 않는 밤...

문득 문밖에서 옥금을 찾는 목소리가 들린다. 너무도 귀에 잊은 우렁우렁한 목소리, 그이이시다! 어버이수령님이시다! 옥금이네는 문을 박차고 뛰어나갔다. 우리의 어버이수령님께서 꿈처럼, 정말 꿈처럼 이 시골의 자그마한 마을에 너무도 평범하게 조용히 찾아오신것이였다.

전설들은 이런 순간을 두고 가장 감동적인 말마디를 골라 시적인 노래를 엮는 법이다. 그러나 소설에서는 《우산을 드시고 트랙에 서계시는 그의 모습은 평범한 날 허물없이 딸을 찾아온 친아버지의 모습그대로였다.》고 소박하게 그리고있다.

그렇다. 모진 시련속에 주저앉을뻔했던 우리 농민들을 일으켜세우시고 그들의 앞길에 광명을 주시려고 찾아온 우리의 운명의 《신》이신 어버이수령님의 모습은 이처럼 친아버지의 모습그대로 평범하고 친근한것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들의 고심을 일일이 다 들어주시고 농민은행에서 개인농들에게는 대부금을 주면서도 협동조합에는 주지 않은 사실에 대해 즉시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그러시고는 고마움에 겨워 눈물을 짓는 옥금이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였던가.

《...내가 조합원들한테 사죄하오.》

인민앞에 죄 많은 일꾼들을 대신해서 사죄의 말씀을 하시는 수령님! 그 심중에 고쳐치는 크나큰 심려가 가슴에 마쳐오는 순간 농민들은 너무도 걱정이 사무쳐 아무 말썹도 못올리고 세차게 울음을 터뜨렸던것이다.

《옥금이의 고충이자 내 고충이고 옥금이의 기쁨이자 내 기쁨이요. 그러니 우리 힘을 합쳐 농업협동화운동을 잘 이끌어나가기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바로 이런분이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자신의 생신날에도 농민들을 찾아 조합일을 의논해주시였고 조합원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자신에게 차례지는 모든것을 다 양보하시였다. 홍명희부수상이 정부청사설계도를 안고 찾아왔을 때 그이께서는 우리가 이런 궁전같은 정부청사에 틀고앉아 청사를 보기 위하여 막대한 돈을 써야 하겠는가, 한푼이라도 있으면 나는 농민들에게 주고싶다, 나는 밥상에 마주앉을 때마다 농민들에게 약속한 대부금을 다 주지 못한 가책으로 손가락이 잘 올라가지 않는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바로 이런 어버이수령님이시기에 인민은 수령님을 친아버지로 믿고 따랐으며 그 모진 시련속에서도 기어이 사회주의협동경리를 생명처럼 지켜냈다.



아버 이수령님께서 사회주의의 길로 우리 농민들을 이끄시는 과정은 그이의 대해같은 인간애의 품속에서 사람들이 새 인간으로 탄생하고 사회주의 대가정의 한식술로 굳게 뭉쳐지는 인간개조의 력사이기도 하였다. 소설에서는 정의춘과 같은 부농들, 헌덕칠과 같은 중농들이 생활의 흐름속에서 협동경리의 우월성을 깨닫고 사회주의근로자로 교양개조되는 모습을 진실하게 그렸을뿐 아니라 강봉석과 같은 사대와 교조에 물젖었던 일꾼들도 아버 이수령님의 품속에서 주체의 신념을 체득한 새 일꾼으로 변모되는 모습을 감명깊게 그리고있다. 특히 강봉석의 개조선은 작품의 사상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밝히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강봉석은 아버 이수령님의 크나큰 믿음속에서 농업성에서 협동화문제를 책임진 부상으로 일하고있다. 그는 허심하고 성실한 사람이여서 미움을 사고 비난받을수 있어도 앞에서 말하는 성미였다. 하기에 아버 이수령님앞에서도 공업화의 토대가 없으면 협동화가 실패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다. 그가 진심으로 자기식의 걱정을 하면서 당의 로선과 정책에까지 감히 의문을 표시하였지만 아버 이수령님께서서는 그것을 탓하지 않으시였다. 오히려 그의 진심을 믿고 현실속에서 당정책의 정당성을 몸과 마음으로 깨달을수 있도록 보다 책임적인 임무를 맡겨주시였다. 그러나 그가 이전 쏘련에서 물먹은 사대와 교조의 인습은 쉽게 빠지지 않았다. 그는 대중적단계에서 거의 불가피하게 산생한 결함을 놓고 속도가 지내 빠르다느니, 어떻다느니 하는 뒤소리에 고개를 기웃거리였다. 최창익과 그의 출개 안대식은 즉시 세포총회를 열고 출당, 철직 처벌을 내렸다. 김일부수상도 그의 파오를 인정하고 동의하였다. 강봉석은 더는 자신을 지탱할 신심을 잃고 도로 쏘련으로 들어가겠다는 편지를 위대한 수령님께 올리였다.

아버 이수령님께서서는 분노하시였다. 그러나 그 분노는 강봉석이가 범한 파오 그자체때문이 아니였다. 자신께서 안겨주신 믿음을 배반하고 스스로 의리를 저버리는 그의 나약성을 용서하실수 없으시였다. 아버 이수령님께서서는 그를 엄하게 질책하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내 오늘 솔직히 말하겠소. 동무가 우리 나라에서의 농업협동화를 정면으로 반대하면서 소달구지우에 끌호즈를 올려놓으려 한다고 말하고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강봉석이를 농업성부상자리에서 떼버리고 농업부문에서 제거해버리자고 했소. 사실 강봉석이가 제일 큰 방해군이였고 걸림돌이었소. 그러나... 나는 어째서인지 가슴이 쓰리였소. 나는 한번 믿음을 준 사람은 그가 배신하기전에는 버리지 않소. 나는 우리 같이 조선의 농업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자고 약속을 한 당

신을 떼버리자니 가슴이 쓰렸단 말이요. 그래 내 그때 당신에게 한번 더 믿음을 주기로 했소.》

아버 이수령님께서서는 이 **김일성**이 당신을 믿으면 됐지 그밖에 또 무슨 담보가 요구되는가, 말하오, 다 주겠소라고 하시며 안타깝게 꾸짖으신다.

빠져리는 가책속에 모대기는 강봉석이가 무서운 처벌만을 기다리고있을 때 아버 이수령님께서서는 천만뜻밖에도 김일부수상에게 가서 과업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것이다. 그를 당중앙위원회의 집중지도사업에 망라시켜 협동조합에 내려가 실시 체험을 통해 배우도록 이끌어주시는것이다.

이런 사랑, 이런 믿음 속에서 《얼마우재》 강봉석이기도 새 일꾼으로 재생하게 된다. 농업협동화운동이 승리적으로 결속되고 풍요한 가을이 왔을 때 아버 이수령님께서서는 관리위원장 옥금이더러 꽃강냉이를 구워서 점심식사를 마련하도록 이르신다. 처음으로 먹어보는 구운 강냉이를 들며 맛이 어떤가고 물으시는 아버 이수령님께 강봉석은 역시 그다운 대답을 하였다. 사실 빠다나 고기통줄임보다 구운 강냉이가 더 맛있을수야 없지 않는가고, 하지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맛있다고... 그러자 아버 이수령님께서서는 통쾌하게 웃으시였다.

《따와리쉬 강이 맛있다니 됐소!》

이 유모아에 담겨진 뜻은 얼마나 큰것인가. 쏘련적인 강봉석이가 조선적인 구운 강냉이를 맛있다고 하니 되었다고 그 한마디로만 해석할수 있겠는가.

그때까지 사회주의라고 하면 사람들은 쏘련식만을 절대시하고 숭배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우리 식, 조선식을 가지게 되었다. 주체의 신념과 의지를 지니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시여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해나가는 전변의 시대가 마련되었다. 기성의 궤도에서 벗어나 주체의 궤도에 새로 올라선 조선식사회주의의 력사가 시작되었다.

소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예지와 한없이 숭고한 인덕의 해발아래 땅도 사람도 새로 태어나는 거창한 현실을 통하여 조선이 이룩한 기적의 참뜻을 심오히 밝혀주고있다.

오직 전설로만 엮을수 있는 이 기적의 신은 바로 우리의 아버 이수령님이시였다. 이 신은 하늘에 있는것이 아니라 우리 인민들속에 있었다. 인민들과 함께 진궐길을 걷고 인민들과 함께 구운 강냉이를 들며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고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운명의 신도 하늘에 있다고 할수 있을것이다. 우리의 아버 이수령님께서 한평생 생활의 본령으로 삼고계신 **《이민위천》**의 지론에 담겨져있는것처럼 우리의 신-아버 이수령님의 하늘은 바로 인민이기때문이다.

이처럼 장편소설 《대지의 전설》은 아버 이수령

님께서 사회주의적농업협동화를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실수 있었던 근본요인을 그이께서 지니신 주체의 신념, 인민의 힘에 대한 믿음에서 찾고 적절하게 설정된 인물관계를 통하여 깊이있게 해명할수 있었다.

소설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매력은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형상과 함께 수령님의 정도를 받들어 충효의 한길을 걸어온 우리 농촌혁명가들의 형상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창조한 것과도 관련되어있다.

소설에는 스물한살 나 어린 처녀의 몸으로 《해불농업협동조합》을 조직하고 이끌어가는 관리위원장 최옥금, 그를 적극 내세워주고 뒤받침해주는 리당위원장 강명우, 체소한 몸으로 협동화의 무거운 앞채를 메고 앞장서나가는 빈농 박인수, 좀 과격하고 덜통하나 열정적인 자위대장 장철복 등 각이한 개성을 가진 농민들의 형상이 등장하고있다. 이들은 각이한 성격의 소유자들이지만 어버이수령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순박하고 근면하고 혁명적인 농촌혁명가의 전형으로서 생동하게 묘사되어있다. 그가운데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그려진것은 최옥금이다.

작가는 농민처녀 최옥금을 《작아도 고추》라는 속담을 생각하게 되는 몸매 작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특징지었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리인민위원장을 하던 아버지는 원썬놈들에게 학살당하였고 같이 끌려갔던 어머니는 매맞은 후파로 허리를 상해 누워있는데 두 어린 동생이 그에게 매달리게 되었다. 하여 열여섯살 처녀가 네식구를 이끄는 가장이 되었다. 갑자기 호박이든 피쌀이든 무엇이건 먹을것을 구하기 위하여 어린 처녀가 무슨 일인들 안했으며 또 어떤 수모와 부끄러움과 고생인들 안겪었겠는가! 그해 말과 이듬해초의 엄혹한 겨울과 굶주림을 이를 악물고 이겨낸 옥금이는 마을사람들과 품앗이반을 못하고 땅을 걸구었으면 이악하게 농사를 지어 식구들도 살리고 인민군대도 원호하였다. 그리하여 다수확농민으로서 평양에서 열리는 전국농민열성자대회에도 참가했고 영광스럽게도 어버이 **김일성** 장군님을 만나뵈고 강령적인 가르치심과 친어버이인 정을 받아안게 되었다.

최옥금은 전후 현촌마을에서 농업협동화운동의 앞장에 서며 모진 시련과 곡절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조합의 첫해농사를 훌륭히 해내고야만다. 무엇이 이 작고 연약한 처녀로 하여금 소달구지 하나 변변한것이 없는 최악의 조건에서 사람들을 한마음한뜻으로 묶어세워 첫 수확의 풍요한 가을을 가꾸어내게 한것인가. 그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절대의 신념과 한량없이 뜨거운 사랑이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가르치신대로만 하면 우리 농민들이 잘살게 된다는 신념, 오직 그 하나의

생각이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굽힘없이 땅을 딛고일어서게 한 힘이었고 빛이었다. 어버이수령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그의 이 신념은 가장 어렵고 힘든 고비마다 구원의 손길을 뻗치여 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이 안겨준것이었다.

어버이수령님은 옥금이에게 있어서 농촌혁명의 선두에 자기를 내세워주고 이끌어주신 운명의 은인이시였을뿐아니라 자기의 사랑까지 지켜주고 꽃피워주신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 옥금이는 현촌마을에서 함께 자란 종원이란 청년을 사랑하였다. 그는 남먼저 전선에 달려나가 조국수호의 성전에 청춘을 바친 영예군인이였다. 그런데 그가 바로 마을에서 따돌림을 받는 부농 정의춘의 아들인것이다. 《파수원집》아들과의 이 범연치 않은 사랑으로 해서 그는 심한 마음속 고통을 겪게 되었다. 《계급적원칙》을 떠드는 안대식(그는 정의춘의 처남이요, 종원의 외삼촌이다.) 이와 같은자들은 물론 중앙지도성원인 강봉석이라도 이 문제를 엄격히 본다. 더우기 어머니가 결사반대한다. 온 마을이 반대하는데 오직 한사람 당위원장 강명우가 지지하지만 그도 결정적인 해결책은 찾지 못한다. 바로 어버이수령님께서 영영 갈라질변하였던 이들의 사랑을 따사로운 은정의 해발로 다시 꽃피워주시는것이다. 옥금은 자기를 잊어 달라고 하는 종원에게 무엇을 믿고 사랑을 고백했던가.

《나는 개개로 흩어져 살아가기 힘들어하는 우리 농민들을 협동화어로 이끌어주시는 **김일성** 수상의 사랑의 품이 진정한 대지의 품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대지의 참뜻은 그거예요!》

진정한 어머니대지의 품-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의 품은 마침내 두 청춘을 사회주의를 따르는 한길에서 결합시켜주는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현지지도의 길에서 만난 옥금이를 차에 태우시고 그의 가슴에 맺힌 사랑의 사연을 들어주시였으며 이제는 누구도 동무의 가슴속에 타고있는 그 불을 끌수 없을것이라고, 나도 리당위원장과 같은 지지자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니신 인간 사랑과 믿음의 해발아래서 부농 정의춘도 마침내 협동경리의 품속에 안기게 되며 종원과 옥금의 사랑도 이루어질수 있게 된다.

최옥금이가 농업협동화운동의 빛나는 승리를 총화하는 대회의 연단에서 토론한것처럼 농업협동화의 《황금이삭》은 이렇게 열리어 온 나라 협동벌에 물결치게 되었다. 우리 농민들은 사회주의지상락원으로 전변된 어머니대지의 품에서 살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 농민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어버이로 모신 하나의 대가정에서 살게 되었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소설은 사회주의적협동화의 과정을 우리 농민

들이 어버이수령님을 친어버이로 모신 하나의 대가정속에서 살게 되는 과정으로 일반화함으로써 자기의 주제사상적과제를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해결할수 있었다.

소설은 사회주의협동전야에 대한 시적인 묘사로 끝나고있다.

흰눈덮인 논벌과 아담한 마을, 농가의 굴뚝들에서 오르는 흰연기, 평화와 안식이 깃든 풍요한 대지... 이제 훈훈한 바람이 불어오고 해별이 따뜻하게 비치면 땅우에 두터운 숨이불처럼 덮인 눈이 녹으면서 토양은 단물을 흠뻑 빨아들이고 거뭇거뭇 부풀어오를것이다. 그러면 종다리가 우짖고 뼈꼭새 노래하고 겨우내 살이 오른 황소들에 연장을 메워 밭갈이를 시작하게 된다. 트랙터들이 달려와 협동벌을 갈아엎는다. 어느덧 버들이 자라고 뜨거운 해별이 내려쬐이는속에 이삭들이 여물어간다. 언덕과 들에 서늘한 바람이 불면서 익은 낱알냄새와 과일향기를 풍기는속에 복받은 대지는 황금빛단장을 한다. 좌- 황금이삭 물결치는 협동전야에 우리 수령님 걸어오신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짓고... 겨울, 봄, 여름, 가을 빠짐없이 농민들을 찾으시여 논벌로, 마을로 쉬임없는 길을 걸으시는 우리 수령님의 기쁨이 황

금이삭의 물결을 타고 넘실거린다... 어제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이렇게 대지의 전설은 끝나고있다.

그러나 우리는 끝나지 않은 전설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있다. 전설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 되고있다. 아니 현실속에서 전설은 계속 창조되고있다.

인민의 힘을 믿고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여 빈터우에서 협동화의 새 봄을 불러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전설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의하여 그대로 계승되고있다.

오늘의 현실은 전후의 그날처럼, 아니 그보다 더 엄혹하고 준엄하다.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더 쓰러지고도 남았을 이 시련속에서 조선은 사회주의붉은기를 계속 지켜내고있으며 오히려 강행군을 다그쳐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을 이룩하고있다. 다시한번 세계는 놀라움속에서 20세기의 최대의 기적을 창조하고있는 위대한 혁명의 영재, 창조의 신을 우러러 보고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령도밑에 또하나의 아름다운 전설을 엮고있는 인민과 함께 우리 작가들도 나아가고있다. 영원한 전설의 가수로 된 우리 작가들처럼 행복한 사람들이 또 어디 있으랴!



## 북방의 흑한속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일군들은 사무실적사업작업을 철저히 없애고 아래에 내려가 실정을 깊이 료해한데 기초하여 제기된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하겠습니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이 앞채를 메고 강행군의 앞장에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지난해 1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북방의 추운속에서 자강도에 대한 6천여리의 현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때의 일이다.

령하 40도를 오르내리는 몹시 추운 날씨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처음으로 찾아신것은 다람쥐의 채바퀴를 련상시키는 이채로운 수차들이 흰 물갈기를 날리며 기운차게 돌아가는 북천의 띄우개식 발전소였다.

그처럼 추운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발전소며 띄우개식수차를 일일이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발전소를 아주 멋이 있게 잘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그 구조와 출력, 얼음의 두터이와 그밑으로 흐르는 물량, 띄우개에 얼음이 붙는 정도까지 헤아려보신 다음 도처에 이런 발전소를 건설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추운 날씨에 오랜 시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는것이 너무도 송구스러워 수행한 일군들은 어서 떠나시

라고 말씀올렸다.

그러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내가 이 추운날에 왜 여기를 찾은줄 아는가고 물으시였다. 그 물음에 의아해하는 일군들을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런 날에 와보아야 갈수기이고 강이 얼어붙은 겨울의 조건에서도 발전기가 잘 돌아가는가 하는것을 정확히 알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제서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처럼 추운 날씨에 중소형발전소건설정형을 알아보시려 자강도를 찾아신 까닭을 알게 된 일군들은 가슴이 후더워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들에게는 일을 거충다 짐식으로 하지 말며 언제나 현실에 깊이 들어가 아래실정을 손금보듯 파악하고 실속있게 일할데 대하여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의 참뜻이 심장깊이 새겨지는것이였다.

진정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우리 혁명앞에 드리운 난국을 앞장서 헤쳐가시면서 북방의 흑한속에서도 6천여리의 현지도의 길을 이어가시였다. 그 불멸의 자욱우에 강행군을 락원의 행군으로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을 불러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거창한 투쟁으로 내세워주셨던것이다.

## 고향집에서 외 1편

김명익

밤, 달빛은  
사립문가에 은은히 흘러내리어  
벽에 건 빨찌산군복을  
적시고 또 적시고...  
철썩, 철썩-  
달빛에 부서지는  
순화강나루가의  
유난스러운 밤물결소리,  
이따금 흐느끼는듯한  
결에 누우신 조부모님의 숨결소리  
가슴에 젖어드는데  
할머니의 팔에 안겨 누웠던  
그이께선 끝내 일어나앉으시었다  
떠난 세월 오는 세월  
어언-스무해  
청춘시절은 벌써  
만주철원에서 다 흘렸고나  
그이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굵이쳐내린  
이밤은 해방년 10월 14일  
귀향의 밤이었다

모란봉공설운동장에서  
평양이 낳은 개선장군을 맞이한  
이 나라 사람들  
그 상봉의 열광속에  
비로소 자유론 제 땅에서  
사슬을 풀어헤치고  
깊은 단잠에 들어들어...  
노저어라  
노저어라  
민주의 광망한 대양에 노를 저어라  
아, 끝없이 펼쳐지는  
**김일성**장군의 명상의 바다여...

산넘고 들넘어  
푸른 강 넘고넘어  
항일대전의 혈전만리

우우- 천리수해에 울부짖던 눈바람은  
이밤에도 사립문을 울리는듯  
사령관의 무릎우에서 숨지며  
죽어서도 해방된 조국에 꼭 가고싶다던  
전우들의 마지막부탁  
그 부탁안고 나라는 찾았어도  
어떻게 세워야 하리, 이 신생조선을  
건국을 하려니, 5천년력사국을 세우려니  
산에서 싸우다 빈배당 하나밖에  
지고온것이 없구나...

문노니 력사여  
말해다오 조선아  
망국 40여년에 남은것이 무엇이드노  
식민지 후진국이더냐  
한많은 류량의 망향가뿐이더냐  
아니다!  
온 세상이 세계지도우에서  
강성한 동방의 금수강산을  
다시, 다시 찾게 하자  
그지없이 선량하고  
절개높고 아름다운  
나의 민족에게  
제일 살기 좋고 길이길이 복락하는  
창창한 인민의 공화국을 세워주자  
장차, 해와 별 찬연한  
사회주의새집을  
백두산하에  
크게도 빛나게도 세워주자  
...

×

못잊을 고향, 해방년의 그밤  
우리 수령님  
서른세살에 처음으로 고향집에서  
담배를 태우신 밤이었다

## 35 년도에 떠난 길

그대와 반생에는 있었다  
수인번호 94번  
그대의 한생에는 있었다  
306-당원증번호가

옥중고초속에  
당원증번호를 잃었다면  
장기수 94번은 일찌기  
사슬을 풀수도 있었으리

그래서 원썬들 보려고 했다  
공산주의자가 변절하는것을  
전향하라, 전향하라-  
아니, 안한다!

피 토하며 거꾸로 매달리고  
기절하면서도, 안한다!  
단마디 그 한마디때문에  
옥살이는 길기도 길었다

철창가에 찬바람이 불어  
백발이 흘날려 돌이켜보니  
아 무정도 하구나  
해를 못본 세월이 서른네해라...

하거늘, 육신은 찢어져  
남에 누워있었어도  
복엔 조선인민군 중군기자의  
당적이 있었나니

가사

오, 적후전사-리인모동지여  
그대는 다시 받아안았더라  
당의 창건자이신 수령님으로부터  
그이 수표하신 306번호 당원증을

문은 있어도 들어가는 문만 있고  
문은 있어도 나가는 문은 없다는  
청주 보안감호소의 3사 18방 장기수  
그대를 두 수령께서 찾아주셨을 때

어이 잊었으리, 35년 장백으로  
김대장빨찌산 찾아 떠나던 길  
어이 다 알았으리, 그 길에 장장 60년이 다되어  
운명의 그분을 끝내 뵈울줄을...

오, 조선로동당원은 자기 수령앞에  
피가 변하지 않는 사람  
우리 당 대렬의  
306번째 당원이여!

## 봄과 함께 영원한 우리 수령님

김선지

이 세상 날들은 많고많아도  
꽃피는 봄날에 탄생하셨네  
해방의 새봄을 안아오시여  
이 땅에 영원한 봄을 주셨네  
아 봄과 함께 영원한 우리 수령님

인민들은 언제나 수령님 못잊어  
사계절 꽃을 피워 삼가 드리네  
만수대언덕은 언제나 봄계절

수령님은 꽃속에 영생하시네  
아 봄과 함께 영원한 우리 수령님

장군님 따라 한길로만 가라고  
오늘도 손드시여 앞길 밝히네  
인류에게 봄날만을 안겨주시려  
수령님은 이 세상 태양되셨네  
아 봄과 함께 영원한 우리 수령님

가사

## 이 가슴에 빛나네

량률

저 하늘의 태양처럼 영원한 그 영상  
인민의 아버지로 친근한 그 영상  
세월이 흐를수록 그리운 정 더해주며  
수령님 초상휘장 이 가슴에 빛나네

기쁨넘친 길을 가도 우리 심장 가까이  
시련의 길 헤쳐가도 우리 숨결 가까이

희망찬 밝은 앞길 따듯이 축복하며  
수령님 초상휘장 이 가슴에 빛나네

온 세상에 자랑높은 우리의 이 영광  
**김일성**민족의 크나큰 이 영광  
만민의 흠모속에 천만년 길이 모실  
수령님 초상휘장 이 가슴에 빛나네



## 태양절날의 뜻깊은 점심식사

만물이 소생하는 봄계절, 파사로운 해별은 대지를 포근히 어루만져주고 그 빛발아래서 또 한해 엄혹한 겨울을 이겨낸 세상만물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재생의 기쁨을 노래하는 환희의 계절, 우리의 4월.

위대한 수령님 태양으로 솟아오르시여 우리 민족과 온 인류에게 영원한 봄을 안겨주신 4월. 4월의 봄명절을 맞으며 끝없이 이어지는 만경대고향집으로 향한 사람들의 물결.

그들과 함께 만경대고향집으로 들어서는 우리의 가슴 저도 모르게 뜨거워진다.

그 옛날 이 나라 어딜 가나 볼수 있었던 수수한 추녀낫은 보통초가집.

목안이 깔깔한 수수타개죽으로 끼니를 에우지 않으면 안되는 대대로 가난한 집안에서 탄생하시여 자라나신 우리 수령님.

그 나날 나라잃은 우리 민족이 당하는 불행과 고초를 체험하시며 기어이 이 땅에 해방의 새봄을 안아오실 굳은 맹세를 다지신 아버지수령님.

그 력사의 맹세를 안으시고 고향집 사립문을 나서신 그날로부터 우리 수령님 겪으신 고생, 바치신 로고 우리 어찌 다 이야기할수 있으랴.

때로는 눈독인 맹물 한모금으로, 때로는 산나물과 풀뿌리로, 때로는 동지들과 함께 나누시는 한흙의 미시가루로 배고픔을 이겨내시고 한장의 얇은 모포로 살을 에이는 혹한도 이겨내시며 장백의 험산준하를 넘고 헤쳐오신 우리 수령님.

우리 수령님도 인간이실진대 따뜻한 고향집 아래목, 단란한 가정이 어찌 그리지 않으셨으랴.

하지만 그 모든 고생을 조국과 인민의 운명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으로 이겨내시며 이 땅에 광복의 새봄을 안아오신 아버지수령님.

너무나도 고생 많으신 우리 수령님의 한평생이여서 수령님의 위대한 생애를 돌이켜보는 우리의 가슴 이토록 뜨겁고 눈귀 젖어드는것 아니던가.

오늘은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이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혁명의 진두에 서시여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겪으시기에 더더욱 뜨거워지는 우리의 마음.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의 유산인 우리 식 사회주의를 지켜 선군혁명령도로 불변불휴의 날과 달을 이어가시며 이 땅위에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살아갈 주체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우시기 위해 헌신분투하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우리 장군님 걸으시는 그 길에는 명절날, 휴식

날이 따로 없고 쪽잡과 췌기밥이 우리 장군님께서 제일로 달게 여기시는 단잠이고 천하별식이거니.

사람들이여, 돌이켜보자. 뜻깊은 태양절날에 있는 감격넘친 그 이야기들.

작년 4월 15일은 우리 인민이 뜻깊게 기념한 태양절이었다. 이날을 맞으며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아버지수령님의 영생을 삼가 기원하며 명절의 하루를 더없이 즐겁고 뜻깊게 보내었다. 그러면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이날 하루만이라도 편히 쉬여주시기를 절절히 바랬다.

그러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날도 휴식을 미루시고 아침일찌기 머나먼 전선길에 오르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건강을 넘려하여 잠시라도 쉬여주시기를 바라며 선뜻 걸음을 떼지 못하는 일군들에게 그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수령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던 병사들 생각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군인들이 명절을 어떻게 쇠는지 찾아가보아 마음놓일것 같습니다.》**

가시려는곳은 멀고먼 전방부대, 그 길은 중중첩첩한 산밭을 헤쳐야 하는 길이였고 험산준령들을 넘어야 하는 험한 길이였다. 하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주저없이 떠나시었다.

힘준한 산밭들과 가파로운 령들을 오르내리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목적지에 도착하신 때는 중낮무렵이었다.

최전연에 있는 자기들의 부대를 찾아 뜻깊은 명절날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오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군부대장병들은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차에서 내리시는 장군님을 뵈옵는 순간 너무도 놀랍고 걱정이 커서 그저 눈물만을 흘리었다.

**《장군님, 저희들이 무엇이라고 태양절날에 이 먼데를...》**

부대지휘관은 말끝을 맺지 못한채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손을 잡으며 어깨를 들먹이었다.

**《태양절을 맞는 동무들이 아버지수령님을 그리워할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군부대장병들의 림름한 모습을 정겹게 바라보시었다.

자애로운 장군님의 그 모습에서 아버지수령님의 그리운 영상을 보면서 군인들은 감격과 기쁨으로 가슴을 설레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명절을 어떻게 쇠는지



어디 좀 보자고 하시면서 천천히 병실들이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먼길을 오신 피로도 푸시지 않으시고 부대의 여러곳을 일일이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을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그리고 군인들의 예술공연도 보아주시였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점심시간이 지났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군인들과 함께 식사나 한끼 같이하자고 하시며 식당으로 가시였다.

크지 않은 수수한 방에 군인들이 쓰는 보통밥상에 군부대장병들이 다 둘러앉아 장군님께서서는 모두 좀더 가까이 나왔으라고 이리시고는 **《변변치는 못하지만 내가 싸은 점심밥이 있으니 같이 드시다.》**라고 하시며 마련해가지고 오신 점심박을 풀어놓으시였다.

순간 군인들은 왈칵 쏟아져내리는 눈물을 건잡지 못하며 고개를 떨구고말았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밥은 뜻밖에도 쥬기밥이었던것이다.

크지 않은 주먹밥에 몇가지의 보통나물채... 바로 이것이 뜻깊은 명절날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드시려는 점심식사였다.

아, 아무리 나라의 식량형편이 어렵다고 하여도 어떻게 경애하는 장군님께 이런 식사를 드릴 수 있단 말인가.

군인들은 너무도 격하여 장군님을 모시고 온 일군들에게 원망의 눈길을 던지였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귀중한 우리 장군님을 어쩌면 이렇게 모실수 있는가고, 장군님께서 검박하시고 겸허하시여 좋은 식사를 마다하시여도 어떻게 이런 식사를, 그것도 명절날에 드시게 할수 있는가고 막 항의하는 목소리가 군인들의 말없는 눈길속에 울리고있었다.

**《자, 어서들 드시오. 그래야 나도 먹을게 아니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거듭 이렇게 말씀하시였지만 군인들은 수저를 들지 못하였다. 그러는 그들앞에 밥박을 밀어놓으시며 장군님께서서는 오늘은 뜻깊은 명절날이니 한잔씩 들라고 하시며 축배도 부어주시였다.

그래도 선뜻 잔을 들지 못하는 군인들의 심정을 헤아리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의 영생을 기원하여 들자고, 수령님의 유훈을 언제나 잊지 말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계속하여 지금 우리인민은 준엄한 시련을 이겨내며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을 하고있다, 우리 인민들은 수령님의 유훈을 기어이 관철하기 위하여 그 어떤 고생도 참

고 견디며 부강조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용감히 투쟁하고있다, 우리는 오늘의 고생을 락으로 여기며 수령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조국통일을 반드시 이룩하여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에 새기며 그이께서 안겨주신 쥬기밥을 두손에 받아드는 군인들의 가슴은 세차게 높뛰였다.

쥬기밥!...

힘난한 혁명의 길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드시였고 오늘은 우리 장군님께서 드시는 쥬기밥.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고 언제나 인민들과 고락을 같이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결한 품모의 상징인 쥬기밥.

언제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쥬기밥을 달게 드시며 내가 냉이뿌리를 캐다가 만든 반찬을 먹어보았는데 맛이 좋다고 하시면서 냉이반찬을 만드는 방법까지 손수 가르쳐주시였다.

냉이반찬이 맛이 있으면 얼마나 맛이 있으랴만 그것이 바로 항일전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대원들과 풀뿌리를 함께 드시며 혁명을 위해 풍찬로숙하신 준엄한 투쟁의 력사가 비껴있기에, 그 한뿌리한뿌리에 오늘의 고생을 보람으로 여기며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우리 인민의 의지, 험로역경을 뚫고 헤치며 전진하는 투쟁의 맛, 혁명의 맛이 깃들어있기에 우리 장군님 것처럼 달게 드신것이 아니던가.

그렇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늘 가르치신것처럼 쥬기밥맛, 풀뿌리맛을 잃으면 우리는 혁명을 끝까지 하지 못한다.

하기에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경애하는 장군님과 함께 쥬기밥도 냉이뿌리도 달게 들며 그 어떤 고난도 웃음으로 넘고 헤치며 앞으로 나아가는것이다.

조선혁명의 준엄하고도 영광스러운 력사, 투쟁의 만단사연이 어려있는 쥬기밥, 그것은 몇백만 톤의 쌀이나 산해진미로도 대신할수 없는 가장 귀중한 혁명의 량식이다.

이 고귀한 혁명의 량식에서 힘과 용기를 얻으며 희망찬 미래를 락관하며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의 행군대오.

그 길에서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언제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과 생사운명을 같이할것이며 그이의 현명한 령도따라 이 땅우에 부강하고 번영하는 주체의 강성대국, 세상에 부럼없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기어이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 평양약수

옛날 우리 조상들은 평양성을 배와 관련시켜 주령성이니 선성이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평양의 대동강과 보통강의 줄기찬 흐름에 에워싸여있어 그 지형이 마치 물위에 뜬 하나의 거대한 배를 편상시켰기때문이라고 한다.

그 말을 듣고봐서인지 대동강과 보통강이 합수되는곳은 지금도 그 형국이 신통히도 배머리를 방불케 한다.

이렇듯 평양이 배의 형상을 하고있으므로 이곳 사람들은 성안에 우물을 파는것을 매우 꺼려했다.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는 이야기도 이런 리유로 평양사람들이 우물을 파지 않고 강물을 길어먹었기때문에 생겨난것이다.

옛사람들은 평양땅에 우물을 파는것은 곧 배안에 구멍을 뚫는것과 같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니 그때 평양성에서 사는 사람들이 먹는 물을 매우 귀하게 여기는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무엇이 없거나 부족하면 그에 대한 소망이 더 간절해지는것이 사람들의 심리여서 그것이 화제에 자주 오르군하니 자연 전설이 생겨나는것은 생활의 순리이다.

먹는 물이 귀했던 평양에 술샘이 솟았다는 주암산전설이나 효능높은 약샘이 솟았다는 증홍사의 약수에 대한 전설은 다 옛날 사람들의 념원이 반영되어 창조된것이다.

그러나 오늘 평양사람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김정일**장군님의 은덕으로 먹는 물 걱정을 모르며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뿐만아니라 약수도 형제산구역 하당2동에 있는 평양약수를 비롯하여 보통강약수, 옥류약수, 성북약수 등 여러곳에서 솟아나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하고있으니 오늘 이에 대한 새 전설이 창조되어 전해지는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이 전설은 옛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평양시 모란봉구역 인흥동에는 옛절터자리가 있다.

지금은 현대적인 건물들이 일어서고 인총이 많아 여러가지 편의봉사시설이 촘촘히 들어서서 옛절터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힘들지만 한때 그자리에는 증홍사라는 큰 절이 있었다고 한다.

증홍사는 불교가 고구려의 국가종교로 되었던 초기인 393년(광개토왕 2년) 평양지방에 9개의 절을 지을 때 모란봉의 영명사, 대성산의 광법사와 함께 세웠다고 한다.

그때는 강대한 봉건국가였던 고구려의 광개토

왕이 나라를 통치하고있었는데 임금이 직접 증홍사의 터를 잡아주었다는 말도 있다.

증홍사는 아근의 절들에 비해 그리 크지 않았으나 당시는 꽤 유명한 사원으로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그것은 증홍사 앞마당에서 약수가 나왔는데 그 물의 효능이 신명스러울만치 커서 몇백리 지어 몇천리밖에서까지 그 약수를 길러 왔기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는 모르나 지금까지 구전되어오는 이야기들은 증홍사에 대한것보다 그 약수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다. 옛날 증홍사를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는데 그들의 생활처지는 말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때 제가 먹을 쌀을 지고 로자도 자체로 부담하면서 아무런 보수도 없이 절 짓는 공사에 동원되었으나 나라에서는 그들이 거처할 막조차 제대로 지어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무작정 휴식도 시키지 않고 주야로 공사에 내몰았다.

그러다나니 동원된 인부들중엔 병자가 무리로 생겨나고 지어 목숨을 잃는 참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그들가운데는 통악산기슭 어느 한 마을에서 온 젊은이도 있었다.

성품이 어지고 착한 그는 안해가 첫 아이를 낳은 바로 그 다음날에 공사장에 끌려왔다.

내외가 의지가할데 없는 고아들이라 가까운 살붙이가 없는데 결혼을 하여 1년만에 생남을 하였으니 그들부부의 기쁨은 한량없었다.

애아버지가 된 젊은이는 노상 얼굴에서 웃음이 가실줄 몰랐다.

온밤 산모와 시중을 들며 안해와 갓난아기 곁에서 뜬눈으로 새웠으나 그는 조금도 피곤한줄을 몰랐었다. 그런데 다음날아침 관가에서 달려들어 젊은이를 증홍사 공사장으로 끌어갔다.

그는 자기 집의 딱한 사정을 말하였으나 되려 곤욕만 치르고말았다.

얼마전부터 마을에 중들이 목탁을 두드리며 나타나 연방 나무아미타불을 불려대면서 나라가 흥하도록 하기 위해 증홍사절을 짓는데 모두가 지성을 다 바치라고 하였었다.

그러더니 이렇게 관가의 힘을 빌어 강제로 사람들을 공사장에 내모는것이였다.

젊은이는 할수없이 안해와 갓난아이를 두고 절 짓는 공사장에 끌려오지 않을수 없었다.

젊은이는 조석으로 안해와 아이가 걱정되였다.

물론 인정많은 이웃들이 어련히 돌봐주려만은 모두가 짜지게 가난한 살림이라 제 구복을 채울 겨를도 없는 형편에 산모를 제대로 봐주기가 어려웠다.

가끔 집에서 오는 소식을 들으면 젊은 안해는 산후탈에 시달리고 아이는 젖이 모자라 여월대로 여위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새로 끌려온 마을사람이 집소식을 가지고왔는데 아이가 병에 걸려 생명이 위태롭다는 것이었다.

젊은이는 당장 집으로 달려가고싶었다. 그러나 공사장을 잠시도 뜰수가 없었다. 몰래 도망치려고 해도 곳곳에 파수군들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있어 도저히 빠져나갈수 없었다.

설사 빠져나간다 해도 빈손으로 집에 가서야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의 눈앞엔 사랑하는 안해의 모습과 앓고있는 아이의 불쌍한 정상이 자꾸만 떠올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가 공사장 한쪽끝에서 자귀로 대들보감을 다듬고있을 때였다.

저쪽 집터를 닦는쪽에서 갑자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웬일인가 하여 그쪽으로 머리를 돌리니 기초를 파는 자리에서 난데없이 물이 팔팔 솟구쳐오르는 것이었다.

《이게 웬 변인가? 무슨 화가 미칠 조짐이 아닐까?》

《글쎄말이요.》

《다 닦아놓은 집터를 다른곳으로 옮겨야겠군.》

모여든 사람들은 저마끔 한마디씩 하였다.

숫구치는 물에서는 알릴듯말듯 쇠비린내가 풍기었다.

중들이 달려나오고 공사를 맡은 관리가 뛰어왔다. 그후 며칠동안 공사는 중지되었다.

중들이 제를 올리고 불공을 드린다고 분주하게 돌아치더니 절을 조금 뒤로 옮겨짓기로 하였다. 거기가 명당자리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다 닦아놓은 집터를 다시 메우고 새로 땅을 파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때문에 고역을 치르고 녹아나는것은 인부들뿐이었다.

그들은 물이 솟아나는 샘 주변을 잘 꾸리고 멀리 있는 샘물대신 그 물을 마시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였다.

그 물을 마시자 사람들이 모두 얼굴에 화색이 돌고 사지에 힘이 뻗치는것을 느끼었다.

서로 자기 몸의 변화를 신기하게 여기며 말을 주고받던 그들은 이것이 그 물의 효능이라는 생각에 미치었다.

앓던 사람들도 모두 이 물을 마시고 일어나 일

을 하였다.

그리하여 그 물의 신비한 약효에 대한 소문이 한입건너 두입건너 온 평양성안은 물론 이웃고을에까지 파다하게 퍼져갔다.

하늬바람이 사흘만 불면 안가는데가 없다고 그 소문이 어느새 이웃나라인 당나라와 신라땅에까지 돌았다.

한편 그 젊은이는 약수를 앓고있는 안해와 아에게 가져다줄 생각을 하였다.

죽기를 각오하면 호랑이도 강아지처럼 보인다고 앓고있는 안해와 아들을 위해 제 한목숨도 기꺼이 바치리라 굳은 마음을 먹으니 파수군도 감독놈도 무섭지 않았다.

어느날 자정이 지난 깊은 밤 조롱박에 물을 떠넣은 젊은이는 졸고있는 파수군들의 눈을 피해 룡악산기슭의 자기 집으로 달려갔다.

때아닌 밤중에, 그것도 몇달만에 바람처럼 나타난 남편을 눈이 휘둥그래서 쳐다보는 안해에게

그는 다짜고짜로 그 물을 먹이였다. 그리고 어린아이에게도 술갈로 그 물을 조금씩 떠먹이였다. 그랬더니 이게 웬 일인가? 거짓말처럼 그들의 얼굴에 금시 생기가 돌았다.

안해는 깃털처럼 몸이 가벼운 감이 난다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오래간만에 둘은 한자리에 들었으나 날밝기전에 가닿아야 하니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또 리별하지 않을수 없었다.

약수의 효능이 이쯤되자 날이 갈수록 소문은 더 크게 번져가 이곳을 찾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그러자 나라에서는 어지를 내려 그 약수를 증홍사의 중들이 관리하도록 하였다.

중들은 그 약수가 하늘에서 증홍사에 내려보낸 감로라고 하면서 속인들은 마실수 없다고 파수군을 세우고 단속하게 하였다.

그러나 땅속에서 계속 솟구치는 물이라 그 물을 몽땅 가두어둘수는 없었다. 어차피 물은 넘쳐나면 흐르기마련이어서 약수는 물끓을 따라 흘러내리었다.

인민들은 그 물을 떠다가 병치료에 리용하였다.

날이 갈수록 약수의 효능은 소문이 더 났다. 언젠가는 북쪽변방에서 외적과 싸우다가 부상당한 군사들이 이곳에 와서 약수를 마시고 그 물로 몸을 씻었는데 끔찍하던 상처가 자리도 없이 깨끗하게 아물었다.

이윽고 증홍사는 완공되고 앞마당의 약수는 날로 강대해지는 고구려와 더불어 융용히 솟구쳐올랐다. 427년(장수왕 15년)에 평양으로 고구려가 수도를 옮긴 다음에도 약수는 마를줄 모르고 쉽

없이 솟아올랐다.

그러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해온 고구려가 자기의 존재를 끝마치게 된것과 때를 같이하여 이 약수도 말라버리고말았다.

그후 고려와 조선봉건왕조를 거쳐 이 땅에 천수백년의 역사가 흘렀으나 약수는 나오지 않았고 그에 대한 전설만이 입에서 입으로 구승되었다.

나라가 흥하면 다시 약수가 솟구친다는 말이 떠돌아 한때 사람들은 행여나 하고 기다렸으나 허사였다.

천수백년의 역사가 흘렀으나 이 땅에 언제한번 나라가 흥해본적이 있었는가.

그리하여 대를 이어오던 이 약수에 대한 희망마저 언젠지 모르게 저절로 사라지고말았다.

1970년대중엽이었다.

어느해 봄 철도기관구에 다니는 한사람이 속탈을 만나 오래동안 치료를 하였으나 별로 차도를 보지 못하고있었다.

큰병원을 찾아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그리 중한 병은 아니라고 하였으나 입맛이 떨어지고 날로 몸이 수척해지는데 특히 야밤에 아픔이 심하여 그 괴로움이란 이루 말할수가 없었다.

어느 일요일날이었다. 남들은 휴식을 즐기느라고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산으로 들로 봄놀이를 나가는데 그만은 배에 두손을 갖다붙이고 멍하니 창밖만 내다보고있었다.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니 제풀에 화가 났던지 갑자기 속이 달아올라 갈증을 느낀 그는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나갔다.

그런데 독에 받아놓은 물은 차지 않고 뜨뜨미지근하여 달아오른 속을 식힐수가 없었다.

이때 어디선가 물흐르는 소리가 줄줄 들려왔다.

갈증이 난 그는 물소리에 저도 모르게 이끌려 한결음한결음 그 소리를 따라갔다.

그랬더니 둔덕진 발머리아래에서 난데없는 샘물이 뽕뽕 솟구쳐오르는것이였다.

그는 샘물을 보자 다짜고짜 넘적 엎디어 꿀꺽 꿀꺽 마시었다.

얼마나 시원하고 찬지 대번에 속이 쨍 열리고 몸이 거뜨해졌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그 물을 마신 다음 배의 아픔이 똑 멎는것이였다.

언제나 낮에는 참을수 있을 정도로 쌀쌀 배가 아프다가 밤에는 심한 동통으로 이마에 땀방울이 내뿜곤하였는데 그것이 다 씻은듯이 없어졌다.

다음날도 그다음날도 그는 열심히 그 샘물을 마시었다.

그랬더니 한달후엔 얼굴이 불깃불깃해지고 몸이 나기 시작하였다.

그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도 샘물을 길어다 마셨는데 그들도 그 물의 신기한 효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후 광천탐사대가 동원되어 그 물이 효능높은 약수라는것을 확정하고 물줄기를 찾아 본격적인 탐사를 시작하였는데 주체71(1982)년 4월에 형제산구역 하당2동에서 오늘의 평양약수의 기본물줄기를 발견하게 되었다.

광천탐사대 일군들의 기쁨은 한량없이 컸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평양시민들의 건강을 넘려하시어 멀리에 있는 강서약수를 가져다가 공급하도록 여러차례 지시를 주시었는데 그보다 더 좋은 약수가 평양에서 솟아나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

약수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평양사람들은 위대한 수령님 탄생 70돐과 경애하는 장군님 탄생 40돐이 되는 해에 효능높은 약수가 솟구쳐오른것은 두분의 덕망이 누리를 비쳐 땅이 부린 조화라고 하였다.

그런데 더 신기한것은 그해 주체71(1982)년 4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의료부문 일군들에게 고려의학을 발전시킬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자연치료, 광천치료를 널리 리용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었는데 바로 그로부터 며칠후에 이 약수가 발견된것이였다.

그후 보통강구역 서재동에서는 보통강약수를 찾아냈으며 옥류약수와 성북약수가 련이어 발견되었다.

그 약수들은 모두 성분이 비슷한데 효능이 높기로 유명하다.

사람들은 약수를 마시면서 1,300여년전에 말라버린 증홍사의 그 신기한 약수가 다시 솟아난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고보면 전설에 나라가 흥하면 증홍사의 약수가 다시 솟아난다고 한것이 헛말이 아니요, 다 의미가 있는것 같다.

반만년력사에서 언제 오늘처럼 우리 나라가 흥하고 강국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친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약수도 한곳이 아니라 여러곳에서 솟구쳐오른다고 말하는것은 당연한 리치이다.

그러고보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보시면서 일대 변혁을 일으킨신 1980년대초엽에 평양약수가 솟아나기 시작한것을 우연한 리치라 하기엔 너무도 신통한 일이다.

그러니 우리 장군님을 하늘이 내고 땅이 받들어 올린 위인이시라고 칭송한것은 참으로 지당한 것이다.

김우경

# 력사의 친필비앞에서 외 1편

-김일성 고급당학교 친필비앞에서-

리석

설레이며 속삭이는 전나무야  
너 말해다오  
1946년 8월 X일  
력사의 친필비에  
어이하여 날자가 없는가를

해방의 감격 터져오르던  
8월의 그날로부터  
어느날이나  
인민의 참된 총복들이 태어나는  
그날에 그날엔  
날자를 적어주시겠다고 하시던  
아버이수령님

하루만이 아닌 달과 달, 해와 해를 이어  
끝없이 오실 그날들이 너무 많아  
하루로는 새길수 없어  
비워둔 자리 아니나

머슴군이 피눈물 흘리며  
땅을 갈던 그 투박한 손들에  
새 조국 건설의 첫 붓을 쥐여주시던 그 사랑  
어느 하루에만 담을수 없어  
비워준 저자리가 아니나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은  
퍼내고퍼내어도 끝을 모르는  
우리 수령님 사랑이

호수처럼 끝없이 넘치는 자리  
안겨오누나  
비록 날자는 공백이여도  
수령님의 깊으신 그 심중의 이야기를  
전하고 또 전해주고있거니

이름없는 부엌데기 너인에게도  
건국조선의 당일군의 존엄을 안겨주시던  
갈길 몰라 헤매이던 이 나라 젊은이들의 손과  
손에  
진리의 필봉을 쥐여주시던  
수령님의 그 모습 환히 어려와라

조국을 떠멘 우리 당의 핵심골간  
수령님께 충성다할 충신들의 천만대오  
하늘의 은하수처럼 키워내시려  
우리 수령님 간직하신 크나큰 뜻

친필비의 저 작은 공백에서  
하늘보다 더 큰 화폭이  
내 눈에 뜨겁게 안겨오나니

오, 친필비에 남아있는 공백이여!  
너의 날자는 비여있어도  
이 나라 혁명가들의 천만대오가  
하나의 모습, 하나의 숨결로 태어나는  
우리 수령님의 끝없는 사랑의 품으로  
무궁한 세월 길이 빛나고있구나

## 붉은 단풍나무 한그루

푸르싱싱 자라  
설레이는 단풍나무야  
그 언제 그 누가 너를 여기에 심었느냐

돌기돌기 년륜을 감으며  
실하게도 자랐구나 높이도 자랐구나  
그 누구는 너를 심고 첫 물을 주었으리  
그 누구는 펼쳐진 아지 하나하나 세여보며  
너처럼 푸른 꿈 여기서 키웠으리

이 가을날 단풍이 붉게 타는 그 잎새  
하나하나 내 뜨겁게 바라볼수록  
여기서 배우고 여기서 자라  
먼저 떠나간 졸업생들의

불타던 심장이 다 보여오거니

주고받은 약속과 다짐은 없어도  
한그루 나무로 세월과 세월을 이어  
이 학교 넓은 프락에서  
우리 당의 골간핵심들  
수령님과 장군님을 목숨으로 결사옹위하자고  
말없이 다지는 약속과 맹세여

그 뜻을 안고 오늘도 불타는 단풍나무잎새들  
아, 내 예서 보노라  
어제날도 오늘도 그리고 래일도  
여기 교정에서 하나로 불타는  
우리 당 충신들의 불타는 심장들을



## 한장의 사진앞에서

김대성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을 몸소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께서 지난해 10월 22일 고산진혁명사적지를 현지지도하신 후 이 력사의 땅을 찾는 참관자들의 수는 날로 늘어나고있다. 사적관을 참관하는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듯이 한장의 사진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오래도록 움직일 줄 모른다.

조국해방전쟁의 가장 준엄했던 시련의 시기에 여기 구봉산의 림성골에 자리를 잡고있었던 최고사령부지휘소, 당시 우리 나라 농촌마을 그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었던 수수한 농가의 사립문앞에서 기관단총을 틀어잡고 차렷자세로 서있는 나 어린 친위대원의 모습이 담겨진 사진이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사적관을 몸소 돌아보시다가 그 사진앞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추억에 잠기신 음성으로 이 동무는 총을 잘 쏠줄 몰랐는데 제법 기관단총을 메고 서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무엇을 녀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다른 수행원들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그러나 준엄했던 그 나날에 사진의 주인공과 함께 최고사령부를 보위하는 친위대원이었던 수행원들은 그 말씀의 뜻이 너무도 가슴뜨겁게 헤아려져서 눈시울이 젖어듬을 금할수 없었다고 한다.

이해 여러차례에 걸치는 위대한 장군님의 자강도에 대한 력사적인 현지지도를 몸가까이에서 보좌해드리는 영광을 지닌 도당책임일군도 고산진에서 최고사령부지휘소를 보유했던 어제날의 나 어린 친위중대원이였다. 그의 부모들은 지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결전장에서 장렬하게 희생되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 해방직후 해야 할 일들이 많고많았지만 우선 희생된 전사들의 유가족들을 찾아 조국에 데려오기 위한 사업을 친히 조직하시였다. 하여 만주광야에 흩어져서 막돌처럼 버림을 받던 혁명가유자녀들이 해방된 조국에 돌아와 만경대혁명학원에서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역군으로 자라게 되었던것이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조국해방전쟁이 시작되자 혁명가유자녀들의 신변안전이 못내 걱정되시여 아직 인민군대에 나갈 나이가 되지 못한 나 어린 그들로 친위중대를 조직하도록 하시고 언제나 최고사령부의 가까이에 두고 자신께서 친히 보살펴주시였다. 사실 최고사령부를 보위해야 할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친위중대는 전군적으로 선발된 펄펄 나는 싸움군들로 꾸려야 마땅했다. 하지만 전쟁시기에 만경대혁명학원출신들로 꾸려진 친위중대의 대원들은 고산진혁명사적관에 전시되

여있는 사진의 주인공처럼 총도 제대로 쏠줄 모르는 애송이들이였다.

도당책임일군은 그때를 감회깊이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가릴치절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우리 친위중대원들에게 베풀어주신 사랑은 참으로 자애로운것이였습니다. 고산진에 최고사령부가 자리를 잡고있을 때에도 아버이수령님께서 매일같이 우리의 병실을 찾아오시여 머리칼 한오리라도 상할세라 세심한 주의를 주시고 반항공대책도 친히 취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웃으시며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너희들이 나를 지켜주는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자고 이렇게 결에 두고있는거다, 이 전쟁통에 너희들이 한명이라도 잘못되더라도 하면 나는 희생된 너희 부모들앞에 면목이 없게 된다, 너희들은 앞으로 승리한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기둥감들이다, 그러니 군무생활도 잘하고 공부를 착실히 해야 한다라는 가슴뜨거운 당부였습니다.》

정녕 친아버이만이 친자식들에게 할수 있는 말씀이시다.

돌이켜보면 눈보라 천만리를 헤쳐가는 항일혁명의 나날에도 마안산의 아동단원들을 혁명의 대를 이어갈 기둥감으로 키우시려고 그들로 소년중대를 조직해주시고 행군을 할 때나 숙영을 할 때나 한품에 안아 보살펴주신 우리 수령님, 그이의 친아버이사랑속에서 자라난 소년중대원들이 해방된 조국에서 건당, 건국, 건군의 력사적인 위업을 수행하는데 골간으로 되였고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우리 혁명무력의 유능한 지휘관들로서 용감하게 싸운것이다. 항일의 눈보라속에서도 친아버이의 따뜻한 사랑의 품에 안겨 자라난 소년중대원들이 그러했듯이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속에서도 머리칼 한오리 상하지 않고 자라난 친위중대원들이 오늘은 당과 국가의 중책을 지니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고있다.

준엄했던 전화의 나날에 승리의 붉은 화살표가 솟아오른 력사의 땅 고산진혁명사적지. 여기에 전시되어있는 한장의 사진앞에서 우리는 대를 이어 장군복을 누리며 위대한 령장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영광스러운 혁명의 길을 걸어오는 자신들을 보게 된다. 하여 가슴가슴은 한없는 긍지와 행복감으로 부풀어오르고 새삼스레 다지는 맹세도 불길처럼 타오르거니,

위대한 령장의 품속에 대를 이어 안겨사는 우리 전사들은 충성으로 받들어나가기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를!

# 미래에 대한 위대한 사랑의 역사를 격조높이 노래한 심오한 시적형상

-서사시 《세상에 부럼없어라》에 대하여-

안성

지금까지 나온 시들가운데서 최고작이라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값높은 평가속에 시대의 기념비적명작으로 이름을 떨치며 주체문화발전의 새로운 높은 경지를 과시하고있는 서사시 《세상에 부럼없어라》. (명준섭)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토록 심원하고 숭고한 정서의 세계속에 짙은 여운을 남기고 독자들의 열렬한 공감과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이 서사시의 비상한 감화력과 견인력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주체문화건설의 기본의 기본이다.》**

서사시 《세상에 부럼없어라》는 일찌기 인류가 알지 못했던 한없이 위대하고 고결한 친어버이 사랑으로 우리의 어린이들을 따듯이 보살펴주시고 세상에 부럼없이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과 위인적풍모를 구체적인 역사적사실들에 대한 깊이있는 시적형상으로 노래하고있는 시대의 명시이다.

후대들에 대한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헌신적이며 무한대한 사랑은 그분들께서 지니신 가장 숭고하고 특출한 위인적천품의 하나이다.

서사시 《세상에 부럼없어라》가 커다란 견인력과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평양학생소년궁전에 깃들어있는 사랑의 이야기들에 대한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빛나는 한생에 담겨진 의미를 새롭게 밝혀냄으로써 우리의 심장을 틀어잡고있는데 있다.

서사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심장속에 강렬히 새겨안는것은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력사는 그대로 미래에 대한 위대한 사랑의 역사이라는 심오한 철의 진리이다.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수령님의 력사는 흐르고/미래에 대한 사랑으로/장군님의 력사는/줄기차게 이어》진다는 강렬한 사상적주장은 서사시의 전반에 력력히 숨배여있다.

서사시는 우선 우리 수령님의 한평생은 미래에

대한 사랑으로 수놓아진 위대한 사랑의 력사이라는것을 예술적으로 힘있게 확인하고있다.

항일혈전의 나날 우리 수령님께서 유격근거지의 《콜마다 메아리치는/아이들의 랑랑한 글소리》를 들으시며 뜨거운 눈물을 눈가에 지으신것은 무엇때문인가. 나라를 빼앗겨 사랑하는 자식들의 잔등에 책가방이 아니라 부자집아이들을 업혀야 했던 이 나라 녀인들의 쓰라린 마음이 너무도 잊혀지지 않으시여, 근거지아이들에게 자그마한 통나무귀틀집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안되었던 괴로움이 그리도 가슴에 걸리시여 심중이 무거운신 수령님이시였다.

그래서 아동단학교의 첫 개교식에 나오시여 더 벽머리아이들을 쓰다듬으시며 조국이 해방되는 날 너희들에게 새 집을 지어주겠다고, 이 세상 제일 큰 궁전을 지어주겠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그날로부터 《우리 수령님/빨찌산 군복자락에/아이들을 감싸안으시고/천신만고 달게 여기시며/백두에서 안고오신 집》이 바로 평양학생소년궁전임을 서사시에서는 격조높이 토로하고있다.

우리는 아동단학교의 그 통나무귀틀집이 다듬어져 궁전의 《억년 드눌지 않는/대리석기둥으로》 세워지고 그 작은 프락이 《오늘은 이처럼 넓은/운동장으로》 펼쳐졌으며 하늘높이 번쩍이는 은빛 창문들은 그 통나무귀틀집의 《작은 띄창》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

《수령님의 력사는/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미래에 대한 락관으로 시작되였다고...》 그 언제인가 뜨겁게 하신 장군님의 말씀은 우리모두를 한없이 숙연한 감정에 휩싸이게 한다.

평양학생소년궁전이 간직해온 수많은 사랑의 이야기들은 우리의 가슴을 또 얼마나 뜨겁게 울려주며 수령님의 한평생에 대한 감동깊은 추억을 불러일으키는가.

해방된 조국땅에 이제는 수령님을 잘 모시고싶어 평양의 명당자리 장대재언덕에 집터를 고르실것을 아뢰이던 인민의 소원은 참으로 간절한것이였다. 그러나 《항일의 혈전만리/피로 찾은 이 땅을/그대로 아이들의 왕국으로/미래에게 물려주》고 싶으신 수령님께서 장대재에는 아이들의 궁궐을 멋있게 지어주자고 하시며 몸소 거기에 궁전

터전을 잡아주시었다.

충돌이 솟아오르던 소년궁전이 전쟁의 참화로 하여 폐허로 되었을 때 너무도 가슴이 아프시여 그 언덕우에서 오래도록 발걸음을 못떼시였고 밟길도록 최고사령부 작전탁우에 궁전설계도를 펼치시고 날이 새도록 보아주시던 우리 수령님, 전후 채더미만 남은 이 땅에 한순간의 족잡도 없이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걸음으로 장대채언덕우에 오르시여 건설장의 아슬한 발판도 밟으시고 《수업이 고쳐그린 설계도를/다시금 다시금 보아주시며/아이들 가슴이 탁 트이라고/전망대까지 세워주시던》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그 사랑에 떠받들려 소년궁전이 훌륭히 일떠섰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몸소 개관식의 테프를 끊으시고 《이제는 내 평생의 소원이 풀렸소》라고 환하신 웃음을 지으시며 아이들의 앞날을 축복해주시었고 외국수반들이 올 때마다 궁전에 나오시여 귀여운 아이들을 내세워주시었다.

정녕 우리 《알면서 받은 사랑》, 《모르고 받은 사랑은》 그 얼마였던가.

풍부한 역사적사실들에 대한 사색적인 분석과 감동적인 생활세부들에 대한 집약화된 형상을 통하여 서사시는 우리 수령님의 한생은 미래에 대한 위대한 사랑과 더불어 시작되고 흘러온 자애로운 아버지의 거룩한 역사임을 절절히 깨우치고 있는것이다.

서사시에서는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력사가 미래에 대한 사랑으로 래일도 계속되며 이 땅에 영원할것이라는 심오한 사상적주장을 정서깊이 밝혀내고있다.

《혁명도 후대들을 위하여!/건설도 후대들을 위하여!/이 위대한 사상으로/우리 조국은 강대하고/우리 혁명은 승승장구한다고...》 장대채언덕의 비술나무밑에서 장군님 하시던 말씀은 얼마나 강렬히 우리의 심금을 울려주는것인가.

이런 신념, 이런 사랑으로 수령님과 함께 우리의 미래를 품어주시고 가꿔주시고 키워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다.

몸소 소년궁전의 《설계가도 되시고/건설자도 되시던》 그날의 심혈과 로고를 수령님의 사랑으로 빛나는 궁전의 밝은 불빛에도 바치시며 그것이 더 아름답고 더 환하도록 보살펴주신 우리 장군님. 아이들의 웃음속에서 힘을 얻는다고 하시며 집무실도 소년궁전결에 정하신 우리 장군님이 아니신가.

서사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인생관으로 하여 미래에 대한 위대한 사랑은 이 땅우에 영원히 계속된다는것을 형상적으로 힘있게 확인하고있다.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것, 《이것은 우리 장군님의 락관의 의지》이다. 《오늘만이 아니라

/먼 래일에 가서라도 손색없이》 창조하자는것, 《이것은 우리 장군님의 불변의 의지》이다.

미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는 이 의지를 심장속에 새기시고 《사나운 광풍이 몰아칠수록/더 뜨겁게 아이들을 안아주시는/우리 장군님》이시거니.

설날이 오면 수령님을 그리워할 아이들을 생각하며 온밤 잠들수 없었다고, 동무가 나대신 찾아가 설날을 축복해주라고 전설길에서 울리시던 그날의 음성은 우뢰처럼 우리의 귀전에 메아리친다.

이 의지를 지니시고 《먼먼 앞날까지 안고 사시는》 우리 장군님 계시기에 강성대국으로 《끝없이 번영할 조국과 함께/세계 1등급의 아동병원/아동도서관 아동백화점도/높이 솟아》 있을것이라고 우리는 굳게 확신하고있다.

이 의지를 그대로 새겨안고서 우리 인민은 《가는 길 험난하다 해도/웃으며 가는》 것이며 《최후에 웃는 승리자의 조선/새 세기에 찬란한 조선》을 반드시 세계앞에 보여주게 될것이다.

이 의지로 이 땅에 영원할 그 사랑을 절감하며 시인은 평양학생소년궁전은 《**김일성**민족의 후손들이/자자손손 복락을 누리갈 행복의 탑》이며 《세월의 한글까지/태양의 빛으로 영원할 미래의 집》이라는 격찬을 환호성처럼 터치는것이다.

그 사랑의 절정우에서 끝없는 환희와 기쁨에 넘쳐 우리의 행복한 아이들이 목청껏 합창하는 심장의 웨침은 오직 한마디 《우리는 세상에 부럼없어라》, 바로 이것이 아니겠는가.

《수령님 모시여/장군님 모시여/우리의 미래는 찬란하여라》, 참으로 격동적인 이 주정속에는 절세의 위인들의 위대한 사랑으로 더욱 부강번영할 내 나라, 내 조국의 래일에 대한 철학적인 의미와 깊이있게 담겨져있다.

우리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빛나는 한생, 불멸의 혁명력사를 미래에 대한 사랑의 세계와 결부시켜 격조높이 노래하면서 시대와 력사의 심오한 진리를 밝혀내고있는데 이 서사시의 무게가 있고 진가가 있는것이다.

서사시 《세상에 부럼없어라》가 커다란 견인력과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것은 다음으로 탐구적인 예술적형상으로 정서의 열도가 비상히 강렬한 서정세계, 감명깊은 서사시적화폭을 진실하고 무게있게 펼침으로써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있는데 있다.

서사시에 반영되어있는 이야기들은 모두가 력사의 갈피를 헤쳐 오늘에야 펼쳐보이는 새로운것이 결코 아니며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실재한 사실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새로운 의미로, 보다 뜨겁고 절절하게 그것을 느끼고 받아안게 되며 그래서 서사시는 더더욱 감흥의 진폭이 크게 가슴마다에 새겨지는것이라.

이것은 시인의 깊이있는 시적체험과 진지한 창

작적사색을 통하여 정서적지향이 강렬한 서사시적화폭을 펼쳐놓고있는 높은 예술적형상성에 기인되는것이다.

수령형상시가작품에서 수령의 고귀한 업적내용과 감동적인 사실자료들을 라렬하고 설명하는것만으로는 독자들의 심금을 울릴수 없고 사상적높이에 상응한 견인력을 가질수 없다.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에 기초하여 정서의 열도를 비상히 높여 승엄한 서정세계속에서 서사시적화폭을 펼칠때만이 그것이 보장될수 있다.

시대의 미학적요구에 맞는 특색있는 구성조직과 다양한 작시법의 능란한 활용, 생신하면서도 무게있는 시적표현의 구사 등은 서사시의 서정세계에 정서적열도를 더해주는 주되는 형상적요인으로 되고있다.

서사시에서는 일정한 감정론리적흐름선과 주제사상적공통성에 기초하여 력사적사실을 엮어나가면서 시적화폭을 창조하는 우리 식 서사시의 새로운 구성수법을 특색있게 살려쓰고있다.

장대재언덕의 위대한 수령님 동상앞에서 한없이 경건한 마음으로 그리움의 걱정을 터치는것으로 시작된 서사시에서 력사적사실자료들과 시적세부들은 그 어떤 인간관계의 설정으로부터 전개되는 사건줄거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와 칭송의 일관한 감정흐름을 타고 상대적독자성을 가지면서 시간순차성에 따라 펼쳐지고있다. 그러나 비약과 함축, 집약의 수법으로, 정서적으로 치밀하게 맞물리면서 탄력성있는 형상밀도를 보장하고있으며 시적감정의 양양을 이루면서 하나의 사상주제적내용을 천명하는데로 자연스럽게 집중되고있다.

더우기 서사시에서 력사적사실들을 시화함에 있어서 단순히 전달이나 소개에 그치는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있는 심오한 의미를 정서적으로 깊이있게 밝혀냄으로써 보다 강렬하고 승엄하고 격동적인 서사시적화폭을 감명깊게 펼치고있는것이다.

아동단학교의 첫 개교식에 나오시여 생각깊으신 모습으로 서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시적형상에서 우리는 그 대표적실례를 찾아보게 된다.

근저지 끝마다 메아리치는  
아이들의 랑랑한 글소리  
어이하여 그이의 안광엔  
뜨거운 이슬이 맺히셨던가

학교가는  
부자집아이들을 업고 돌다리 건느는  
사랑하는 자식을 바래우며

몽당치마에 얼굴을 묻던  
이 나라 녀인들의  
그 아픈 마음을 헤아리시는가

편지 한장 읽어줄 사람이 없어  
집집의 문을 두드리며  
답답한 가슴 쥐어뜯던  
이 나라의 캄캄한 밤을 안으셨는가

물어선 무엇하랴  
그이의 심벽을 두드리며  
파도치며 굶니는 천만생각  
빼앗긴 조국  
짓밟힌 겨레의 절규여

아이들의 글소리를 들으시면서도 조국과 겨레의 운명을 안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의 세계를 얼마나 정서깊이 노래하고있는가.

서사시는 나래치는 시적환상과 격조높은 주정토로, 깊이있는 시적일반화 등 다양한 형상수법들을 세련되고 능란한 솜씨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자기의 품격을 과시하고있다.

시인의 풍부한 시적환상은 시공간의 제한이 없이 반세기이상에 달하는 오랜 력사적기간을 종횡무진으로 오가면서도 하나의 완결된 서사시적화폭을 창조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그리고 격조높은 주정토로는 형상세계의 정서적강렬성을 돋구어주는데서 효과적으로 리용되고있다. 평양학생소년궁전의 지붕우에서 《만리창공을 향해 빛발치는 불빛》을 바라보며 터치는 주정토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바치시는 불멸의 로고, 그 빛나는 한생에 대한 감명깊은 형상으로 공감의 파도를 일으키고있다. 서사시는 평양학생소년궁전에 깃들어있는 사랑의 이야기들을 주선으로 끌고 나가면서 이 땅의 모든 후대들에게 돌려지는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을 깊이있게 일반화함으로써 시적형상의 품위를 높이고있다.

수많은 력사적사실들을 다루면서도 감정론리의 흐름선이 끊기지 않고 정서적열도가 강렬한 서사시적화폭을 조화롭게 창조하는데서 시적언어표현의 솜씨있는 구사는 큰 몫을 담당하고있다. 서사시에서는 정서적빛깔이 선명한 시어들을 다양한 표현수법으로 결합시켜나가면서 상대적독자성이 강한 실재자료들을 자연스럽게 련결시켜 하나의 일관한 감정적흐름에 복종시키고있으며 시적감흥을 풍부히 하는데 적극 기여하고있다.

실로 서사시 《세상에 부럼없어라》는 주체문학발전의 새로운 경지를 보여주는 우리 시대의 또 하나의 기념비적작품이다.

## 겨레의 합창

박세일

### 어버이의 부르심앞에

분렬민족의 정상이 얼마나  
얼마나 가슴 아프셨으면  
첫째  
둘째  
셋째...  
불행한 자식들에게 행운을 계시하듯  
꼭꼭 순번을 정하며 쓰셨습니까

겨레구원의 사명감으로 얼마나  
얼마나 가슴 불태우셨으면  
-민족자주원칙으로  
-애국애족기치아래  
-북과 남 관계개선...  
비둘에 비문을 쏘아박듯이  
심혈을 짜서 쓰셨습니까

잉크로 쓰신것 아니옵니다  
종이우에 쓰신것 아니옵니다  
인덕의 바다에 붓을 적시여  
7천만겨레의 가슴 갈피에  
아 **김정일**장군님 손수 적어주신  
민족대단결 통일의 대강

눈으로 읽지 않았습시다  
마음에 고이 담았습시다  
잘난 자식 못난 자식 차별이 없이  
타함이 없이  
다시 모여 살자고 한식술로 살자고  
해방의 한품에 불러들이는  
아 어버이의 절절한 그 부르심

분계선이 갈라놓은  
혈육의 피와 피를 합쳐줍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형제의 정과 정을 뭉쳐줍니다

그렇습시다  
세상에 어버이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할 자식은 없습시다  
사랑을 뿜는 심장의 당부에

외면할 자식은 더구나 없습시다

어버이의 부르심앞에  
달려가 안기며 열광으로 호응함은  
인간본능이 아니겠습니까  
자식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 4 월

51년전...  
그날은 4월이었다

평양하늘밑에서  
북남 온 누리에  
민족단합의 종소리 울려가던  
남북련석회의 그 나날은...

...50년 후  
역시 4월이었다  
파랑게 열린 평양하늘에  
민족대단결의 단심줄을 엮으며  
5대방침기발이 계양된것은...

아 어버이수령님  
얼어붙어가던 북남의 경계선을  
봄날의 대지처럼 녹이시고저  
일년 열두달중 따스한 그 4월에  
민족의 대화합 마련하셨던가

오늘은 **김정일**장군님  
반목과 대결의 가시밭을 갈아엎고  
화해의 봄씨앗 뿌리시고저  
일년 열두달중 씨뿌리는 이 4월에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드셨는가

4월, 4월이여  
민족의 어버이 펼쳐주신  
애국애족의 비옥한 토양우에  
이 나무 저 나무 7천만그루그루  
어깨결고 뿌리를 내리는 계절이여

민족대단결의 무성한 숲이  
통일조국의 산악으로 솟구치려고  
움썩! 키돋움하며  
푸른 기운 펼치는 계절이여!



## 우리는 7천만이다

북녘에 얼마  
남녘에 얼마  
해외에 또 얼마  
갈라져 흩어져 살아도 어쨌든  
우리는 7천만이다

말없이 그냥 어깨결고  
빙- 둘러서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성세로 솟은  
우리는 7천만이다

입을 모아 아! 하고 소리치면  
그 웨침만으로도 능히  
분단장벽에 파렬구를 낼수 있는  
우리는 7천만이다

이제는 더이상  
너와 나 각각이 아니라  
내속에 내가 있고  
내속에 네가 있는  
우리는 7천만이다

맑은 물 흐린 물  
차별없이 다 안아주는  
광복의 바다 찾아 굽이쳐가는  
우리는 7천만이다

백두산 한지붕아래  
삼천리 한뜨락안에  
우리 집 주소는 지구촌 1번지  
**김일성**가문으로 명성떨칠  
우리는 7천만이다

하늘세상의 별 일곱형제  
북두칠성이 부러울거나  
인간세상을 주도하는  
**김정일**태양계의 7천만개 별  
우리는 7천만이다!

## 《오복》

셋도 아니고  
열도 아니고  
왜 꼭 다섯가질가

하나 둘 손가락을 꼽으며  
조항 조항 다시 되새깁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화중에 화 분단의 화를

복중의 복으로 전환시키는  
민족대단결 5대방침

그것은 말그대로 다섯가지  
겨레에게 《오복》을 가져옵니다  
통일의 큰복을 안겨줍니다

## 출항

평양서도 오르자  
서울서도 오르자  
대양건너 세계의 곳곳에서도  
우리 동포라면 모두 배에 오르자

망설일게 있나  
어색할게 있나  
손을 잡으면 피가 통하고  
마주앉으면 말도 똑같은  
우리는 분명 한피줄형제

그까짓거  
지난날 쌓인 불신의 먼지일랑  
시원한 해풍에 훌- 날려버리고  
어서 올라요 어서 올라요  
어허! 피줄은 역시 속일수 없는거야

스르릉 스룩- 감기는 닥줄따라  
혈육의 정도 칭칭 감기는가  
여기영! 치기영! 노를 저으세  
힘을 합치여 한방향으로  
마음도 뜻도 한방향으로

보아라 선체엔 번쩍!  
《민족대단결호》 배이름이 멋지다  
마스트엔 필력!  
5대방침기발이 힘차다

우리가 무은 배  
우리가 타고  
우리의 꿈나라 찾아가는 길

양풍왜풍 일썌만 하면  
자주의 열풍으로 쳐갈길거야  
암초같은것들은 산산조박  
애국의 보검으로 까부실거야

결심이 좋으니 시작도 좋아  
정시출항, 출항이다  
**김정일**장군님 그어주신  
통일의 직선항로따라  
《민족대단결호》 나아간다  
단결의 힘을 추진력으로  
패속, 만족으로 나아간다!

## 축복의 새 전설

리기창

21세기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과 공지를 안고 뜻깊은 2월의 명절을 맞이하는 이때따라 온 강산에 새봄이 더 일찌기 태동하는듯싶다.

올해 영농준비로 뿔여번지는 금야농장벌에 대한 취재를 마치고 숙소로 향하는 나의 온몸에도 봄의 훈기가 푸근히 안겨온다. 황금빛 저녁노을이 구름층사이로 부채살처럼 찬란히 퍼져가는 하늘가를 바라보니 지금 이 시각도 우리의 첫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가 저 아득한 상공높이 돌고있으리라는 생각으로 하여 가슴벅차오름을 금할수 없다. 또한 아울러 우리의 인공지구위성을 두고 오늘까지도 《탄도미싸일》이라고 생트집을 걸면서 반공화국책동을 일삼으며 날마다 화약내풍기는 대규모적인 갖가지 합동군사연습소동에 미쳐날뛰는 미제침략자들과 일제, 남조선피뢰놈들의 시대착오적인 망동에 대한 치솟는 분격으로 나도 모르게 치가 떨렸다.

원썬놈들의 집요한 군사적책동으로 하여 오늘 정세는 날이 갈수록 더욱 긴장해지고있지 않는가.

하기에 온 나라의 인민군장병들은 물론 전체 인민들도 놈들의 책동에 맞서 한손에 총을, 다른 한손에는 마치고 낫을 틀어잡고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내가 이런 생각에 잠겨 양치바른 산기슭에 자리잡은 군인사택마을앞을 지나고있는데 뜻밖에도 손풍금과 기타 반주에 맞추어 진드러지게 부르는 흥겨운 노래소리가 울려오는것이였다.

축복하노라

축복하노라

...

다름아닌 군인사택마을이 들썩하도록 부르는 노래이고 보면 오늘 한 군관청년이가 새색시를 맞아 결혼식을 하는 모양이 분명하리라고 생각했다.

일생에 한번밖에 없는 좋은 때로구나! 그래서 예로부터 결혼식은 인륜대사라고 일러오지 않는가! 새 가정을 이루는 신랑신부여! 부디 한생토록 행복하시라!

우연히 그앞을 지나가던 길손인 나도 그들을 향해 마음속으로 축복의 인사를 보냈다.

그러나 다음순간 나도 모르게 도리머리를 했

다.

한것은 그 어느때보다도 나라의 정세가 긴장한 이즈음 혁명의 총대를 더욱 억세게 틀어잡고 초소에 서있어야 할 군대가 너무나 예상외에 온 군인사택마을이 떠나갈듯한 노래속에 잔치를 한다는 생각이 느닷없이 갈마들었기때문이었다.

더우기 당과 국가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이 시각도 야전차를 집무실로 삼아 췌기밥과 쪽잠으로 낮과 밤을 지새우시며 원썬놈들과 총부리를 맞대고있는 최전연초소들을 찾고계시지 않는가!

그렇다면 혹시 특류영예군인이 만사람의 축복속에 결혼식을 하는것이 아닐까?! 나는 그렇게밖에 믿고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몇해전 미제의 이른바 우리에게 대한 《핵사찰》소동으로 온 나라에 준전시상태가 선포되었을 때 우리 인민반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기때문이다.

최고사령부의 작전대일에서 밤을 지새우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꽃다운 처녀가 특류영예군인청년과 일생을 같이하기로 결심했다는 보고를 받으시자 아무리 지금 정세가 엄혹하다고 하여도

그들의 잔치를 우리가 성대히 차려주자고 하시면서 친히 사랑의 결혼식상까지 보내주시였다.

그날 나도 결혼식에 초청받아가서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축복의 노래를 목메여 부른적이 있었던것이다. 그러니 오늘도 그때와 같이 특류영예군인이 사랑의 축복속에 결혼식을 하는것이라고 생각했다.

했으나 잠시후 나의 짐작이 뜻밖에도 뒤집혀질 줄이야 어이 알았으랴.

아담한 유치원쪽에서 한패의 조무래기들이 《철이네 아버지와 어머니 잔치하는데 어서 가보자.》하고 법석 떠들어대며 밀려오고있는것이였다.

순간 나는 그 애들의 말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것은 철이라는 아들이 있는 부모들이 결혼식을 한다는 소리가 아닌가. 그리고 보면 결혼식의 주인공들이 처녀총각이 아니라 《재혼》을 하는 부부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인차 머리를 저었다. 《재혼》하는 부부들이라면 온 군인사택마을이 들썩하게 축복의 노래까지 부르며 흥성거릴리가 있겠는가. 의혹의 꼬리가 삼검불처럼 엉켜도는속에 내가 다시 예측의 실머리를 풀어본것은 혹시 부모없는 고아를 데려다 기르는 기특한 처녀와 일생의 길동무가 되기로 약속한 군관이 오늘 결혼식을 하리라는것이였다.

아름다운 공산주의미풍이 날마다 꽃피고있는

우리 시대에 그런 주인공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작가적인 호기심에 사로잡혀 그들을 찾아가보고싶은 마음이 강렬했으나 어쩐지 청하지도 않은 길손이 남의 잔치집에 제발로 가는것이 멋적기도 하거니와 레의에 어긋나는 불청객의 행위 같아서 그만 발길을 돌리고말았다.

그런데 때마침 군인사택마을로부터 결혼식행렬이 줄지어나오고있는것이였다.

앞가슴에 꽃송이를 달고 손에는 생신한 꽃뭉음을 든 군관복차림의 새서방과 잠자리날개같은 첫날옷을 입은 새색시가 대여섯살쯤 되어보이는 꼬마녀석을 앞세운채 사람들의 물결속에 휩싸여 나란히 걸어오고있었다. 그들의 머리에 꽃테프며 꽃보라가 연송 휘뿌려졌다. 이윽고 머리를 다소 곱한채 내옆을 지나가는 새색시의 해별에 감실감실 탄 얼굴을 더듬어보던 나는 어딘가 낯익은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무리 다시금 눈여겨 살펴야 내가 며칠전에 보았던 녀인이 분명하였다.

그날 농장축산반에 올라가 취재를 하고있는데 서른두세살쯤 나보이는 녀인이 허둥지둥 달려와 수의사를 찾는것이였다. 사연인즉 자기네 집 어미염소가 단번에 세마리의 새끼를 낳는다는것이였다. 그 희소식에 접한 수의사는 녀인을 따라 총총히 사라졌다.

《단번에 세마리의 새끼를 보게 됐으니 농장에 경사로구만요.》

내가 경탄을 금치 못하며 축산반장에게 말했더니 뜻밖에도 그 녀인은 농장원이 아니라 군인사택마을에 사는 군관가족이라는것이였다.

축산반장아바이의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었지만 김금실이라는 그 녀인은 인민군대군관과 가정을 이룬 때로부터 오늘까지 6년동안이나 해마다 수십마리의 염소와 돼지, 오리와 계사니를 비롯한 집짐승들을 길러 자기 남편이 복무하는 부대의 병사들을 원호하는 남다른 소행을 발휘한것으로 하여 전국자력갱생모범일군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토론까지 하는 영광을 지녔다는것이다...

바로 것처럼 훌륭한 군관의 아내, 그것도 유치원에 다니는 다섯살잡이 아들까지 둔 녀인이 이제서야 결혼식을 한다는것은 참말로 기상천외의 일이라 아니할수 없었다. 나도 귀밀머리 희여지도록 글을 써오면서 그동안 각이하고 기이한 운명의 행로를 걸어온 주인공들을 수없이 만나본 작가이지만 오늘 목격한 그들의 결혼식사연만은 좀처럼 짐작하기가 어려웠다.

지금 이 글을 읽고있는 독자들도 모름지기 이 필자의 심정과 같으리라 생각한다.

나는 낮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결혼식 행렬을 따라선 사람들에게 그 사연을 물어보고싶은 충동을 금할수 없어 두리번거렸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들속에서 며칠전 나와 만났던 축산반장아바

이의 모습을 발견하자 반가움을 걸잡지 못한채 그의 손목을 덥석 잡아당겼다.

《축산반장아바이, 결혼식을 하는 저 녀인이 그날 아바이가 이야기해주던 군관안해가 옳지요!》

《옳수다. 옳구말구요. 세상에 이런 희한한 일이라구야... 허허허.》

그는 먼도자리가 푸릿한 불편을 거울진 손으로 어루만지며 호탕하게 웃었다.

《그 녀인과 늘 코맞대고 살다싶이하던 우리 이웃들도 그들이 여때까지 첫날 결혼식상조차 받지않구 살아왔다는걸 오늘에야 비로소 알게 되였다...》

《아니 무엇때문에 아직까지 결혼식을 안하구 살았답니까?》

나의 조급한 물음에 축산반장아바이는 방금전에야 자기도 들었다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더놓는것이였다.

...그들이 약혼하던 날 밤이였다.

인민군 중위인 박동무는 약혼녀의 손목을 뜨겁게 잡으며 왕청같은 말을 꺼냈다.

《금실동무, 우리 결혼식상을 차리지 않는게 어떻소?》

《어마나 세상에 그런 법도 있나요 뭐...》

금실의 깜장눈은 금시 울롱해지였다. 그것도 그럴것이 외동딸인 자기가 어엿한 군관한테 시집간다고 부모와 일가친척들은 첫날옷감은 물론 재봉기, 텔레비존, 삼면경대를 비롯한 지참품을 빠짐없이 장만해놓았을뿐아니라 잔치상에 놓을것까지 미리 준비해두고있었던것이다.

그런데 결혼식상을 받지 말자니... 일생에 두번 다시 받아보지 못할 뜻깊은 잔치상도 그리고 결혼식기념사진 한장도 남기지 못한채 살아야 한단 말인가...

금실이 가 절대로 그럴수 없다고 도리질을 하자 박동무는 갈린 목소리로 무겁게 입을 열었다.

《난들 왜 장가들면서 결혼식상을 받을 생각이 없겠소. 그러나 동무두 요즘 신문이나 텔레비존을 보면 알겠지만 정세는 극도로 긴장할뿐아니라 최전연초소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뜬김이 뽕얇게 서린 취사실과 부식물저장창고, 부업지들을 일일이 돌아보시며 병사들의 식생활에 그토록 마음쓰시지 않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처럼 심려하시는 병사들의 식탁 위에 무엇인가 좀더 풍성하게 차려줄수만 있다면 나는 결혼식상을 받는것보다 더 기쁘겠소. 그러니 우리가 결혼식상에 쓰자고 장만했던 돈이랑 가장집물들로 돼지와 염소새끼며 오리와 계사니를 집에 가져다가 길러서 우리 병사들에게 보내자는거요.》

너무나 절절한 목소리에 가슴이 몽클해진 금실이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그렇게 하자고 응해나섰던것이다. 그리하여 그날의 소박한 약혼식

을 결혼식으로 삼고 새살림을 시작한 때로부터 해마다 수십마리의 집짐승을 길러 고스란히 병사들에게 보내주곤 했었다. 부대이동으로 몇번째 이사를 하다보니 이웃들도 그들이 맡아들 철이가 다섯살잡이 유치원생이 되도록 아직까지 결혼식 상조차 받지 않고 산다는것을 솟제 모르고있었다.

하기에 간혹 이웃집 너인들이 말돌이를 와다가 사진첩을 보고는 왜 결혼식사진이 없느냐고 물어볼 때마다 그는 애써 내색을 감추며 잔치날 사진사의 실수로 사진이 잘못되었노라고 얼버무리곤 하였다. 그렇지만 다른집 결혼식에 초청받아가서 새서방, 새색시가 큰상을 받고 어깨나란히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볼 때면 어쩐지 저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알찌근해짐을 금할수 없었다.

그런데 오늘아침 뜻밖에도 그의 집에 여러대의 승용차가 들어서더니 인민무력성의 한 책임일군이 걱정애 넘쳐 전달하였다.

이번에 동해안군부대를 시찰하시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남모르는 그들의 소행까지 헤아려보시고, 예로부터 결혼식은 인륜대사라고 하였는데 일생에 한번밖에 없는 결혼식상마저 마다하며 병사들을 위해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왔다니 얼마나 훌륭한 동무들인가고, 그들이 비록 가정을 이룬지 6년 세월이 지나고 첫 아들이 커서 유치원에 다닌다고 하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그 동무들의 결혼식상을 차려주는것이 그 어떤 값높은 표창이나 훈장보다 더 뜻깊은 축복으로 될것이라고하시면서 친히 사랑의 선물, 축복의 결혼식상과 함께 수행사진사까지 보내주시었다는 것이다...

그제야 비로소 그들의 남다른 결혼식에 대한 뜻깊은 사연을 알게 된 나는 이름할수 없는 격정에 휩싸였다.

그 어느 동서고금, 인류사에 우리의 장군님처럼 이름없는 한 전사가 오랜 세월 아무도 모르게 자기들의 가슴속깊이 묻어두고 묵묵히 바쳐온 그 소행마저 친히 헤아려보시고 아직까지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뜻깊은 사랑의 축복을 안겨준 령도자가 또 있었던가. 친어머니의 다심한 사랑의 품도 한가정의 작은 트랙을 넘어서지 못하지만 온 나라의 천만의 아들딸들의 운명과 행복, 희망과 소행마저도 다 맡아 보살펴주고 꽃피워주시는 만민의 태양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넓은 품속에서만 력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위대한 축복의 새 전설, 사랑의 새 전설이 꽃피는것이리라!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웨치며 가슴속에서 고패치는 걱정애 파도에 축축히 젖어든 눈길로 축복받은 부부들의 모습을 새삼스럽게 바라보았다.

이제 보니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자욱이 아로새겨진 현지도사적비앞으로 다가가 정성들여 마련한 향기로운 꽃다발을 정중히 놓는 것이었다.

나도 그들의 눈길을 따라 현지도사적비우에 정중히 모셔진 경애하는 장군님의 해빛같은 영상을 우러르며 다시 젖어드는 목소리로 웨쳤다.

-21세기의 위대한 태양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신 우리모두의 앞길에는 그 언제나 끝없는 영광과 축복만이 약속되어있으리라!

## 명언해설

《정치철학은 령도의 라침판이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이 명언은 나라와 인민을 옹계 이끌어나가자면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상리론을 근본지침으로 삼아야 한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대중을 이끌어나가는데 있어서 령도에술이나 령도풍모가 어떠한가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것은 지침으로 삼는 사상리론이 어떠한가 하는데 있다.

그것은 사상에 의하여 모든것이 결정되기때문이다.

사회주의가 좌절된 나라들의 쓰라린 교훈은 이 나라에서 자기의 올바른 정치철학, 과학적인 혁명사상을 가지지 못하고있었기때문에 나라와 인민의 신세를 망쳐먹게 되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

다. 이것은 마치도 라침판이 없는 배가 항방을 잃고 좌왕우왕하다가 파도에 밀려 파선되지 않으면 안되는것과 같다.

수령복을 타고난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의 토양에 씨를 뿌리고 가꾸어오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더욱 풍만한 숲으로 심화발전시키심으로써 가장 올바른 지도적지침을 받아안고 언제나 사소한 헛디딤도 모르고 백전백승하고있는것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나감으로써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곧바른 항로를 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의 중국적승리를 위하여 한몸바쳐 적극 투쟁하여야 할것이다.

# 고향시초

박웅전

## 웃으며 오고 웃으며 가는 길로

옛날처럼 사라졌다고  
칩칩이 막아선 산굽이 돌고돌아  
풀어놓은 바줄처럼 오불꼬불하던  
하루 불 일로 읍을 나가도  
사흘쯤을 길가에 널어놓던  
더더구나 마음속에 그리운 평양은  
산넘어 구름너머 먼 6백리

신평은 길 험해 못가신다고  
몇번이나 막아서는 수원들에게  
우리 수령님  
삽을 차고 가다 길을 내면서라도  
기어이 가보자 하실제  
몸소 앞장에 나서신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

그 얼마이시던가  
차를 세우시고 치우신 돌  
삽을 드시고 메우신 흙은  
자작고개, 청송고개 헤쳐오신  
길 아닌 험산길이어

바쁘신 길 하루나 묵어가시며  
황금산의 새 력사 펼쳐주시고  
옛날엔 울며 왔다 울며 간 고장  
웃으며 오고갈 날 온다 하시던 장군님

캉캉 산을 뚫고 허물어  
행복의 대문을 열어주시었다오  
적막강산의 내 고향 마을앞에

평양-원산간 큰 도로를  
광장처럼 환히 열어주시었다오

차들도 살같이 달려가고  
변화한 거리의 큰길인듯  
새벽에 길 떠난 평양-원산 손님들이  
우리 마을 식당에서 아침을 하고 가오

산천경개 하도 좋고  
마을 또한 휴양소를 같다고  
외국의 벗들도 그저는 못지나오

대를 두고 산이 높아  
막혔던 소원 다 풀고  
산넘어 구름너머 먼 평양도  
이렇게 지척으로 가까와졌으니

조국땅 행복의 한복판에 사는  
내 고향 사람들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오직 하나

자작고개, 청송고개  
길 아닌 험산길 헤쳐오신 장군님  
평양에서 곧추 열린 이 넓은 길로  
또다시 우리 신평 찾아주시었으면

아 바쁘신 길 들리지 못하시여도  
끝없이 웃으며 오고 웃으며 가는  
변모한 이 산촌 바라보시며  
차중에서라도 기쁨의 미소 지으시고  
온갖 시름 잊으신채 지나가시었으면...

## 나는 분교에서 자랐다

나는 분교에서 자랐다  
짬없이 새끼먹이를 날으고 날라  
꿀고루 먹여주는 어미새처럼  
한번에 두학년을 가르치느라  
선생님 이마에 맺히던 땀방울

나는 시골에서 자랐다  
산넘어 구름너머 평양은 멀어도  
날마다 《소년신문》을 안고 오던  
통신원아바이의 자전거종소리  
학년말시험때면

군에서까지 와서  
내 시험지에 매겨주던 빨간 5점

나는 먼 산촌에서 자랐다  
허나 조국이 불러준 초소에서 대학에서  
나는 명포수였고 최우등생이었다  
나의 첫 시가 세상에 발표되던 날  
편지를 썼다  
잊지 못할 옛분교선생님에게

뿌리에서 가까와 크게 피던가



아지끌이 멀다고 작게 피던가  
한그루에서 피어난 꽃이여 열매여  
어머니당의 해빛이 고르로와  
물려준 그 젖이 달고달아

먼 아지끌에 피였어도  
하나같이 큰 열매로 향기 풍기는  
아 보람찬 내 삶의 노래  
온 세상에 울려퍼지더라

## 산촌의 저녁풍경시

산촌의 저녁은 좋아  
돌배나무아지엔 새들이 모이고  
6호발전소 종합배전반실엔  
전기분조원들이 모이네  
  
한낮동안 온돌을 덮인  
학교와 유치원 전기, 동력선은 끊고  
저녁배전은 살림집과 회관으로

짜르릉거리던 제재기소리 몇자  
한결 높아지는 매양천의 물소리  
제방길엔 가로등이 켜지고  
회관에선 등기당당 가야금소리  
집집에선 전기볶음판뚜껑이  
구수한 냄새 풍기며 들썩거린다

우리 장군님 본보기로 꾸려주신  
열한개의 소형발전소로

나라전기 안쓰는 농장  
조명, 난방, 탈곡뿐이라  
물망도 제분도 국수도 해주니  
부엌일도 흥겨운 산촌의 저녁  
한번도 빼놓지 않는다네  
아주머니들도 텔레비전속소설을

하루를 아낌없이 로동에 바치면  
즐거운 저녁이 오건만  
나라에 바치는것보다  
차레지는것 더 많아

젊은이들 행복의 노래 즐기고  
늙은이들 고마운 이야기 잘하는  
산촌의 저녁은 생각도 깊어  
매양천은 밤새워 수차를 돌리고  
나도 잠못들고 이 시를 썼네

## 《사람들이 좋지요 뭐》

우리고장 대지리는  
하늘아래 첫동네  
예술영화 《도라지꽃》의 고향  
달리는 뺑스안에서  
나는 거기 사는 너인에게 물었네

-대지리는 무엇이 좋습니까?  
아주머니는 대답했네  
-사람들이 좋지요 뭐

우리 관리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리당비서가 사람좋고  
학식있는 교장선생  
인정많은 진료소장

쉽지 않을거라네  
우리 작업반장  
우리 세포비서같이 좋은 사람도...

아, 참말로  
자랑중에 이보다 큰 자랑  
어데 있으랴  
우리 장군님 인덕으로  
서로 돕고 이끌며  
정에 묻혀 사는 사람들의  
너무도 평범한 자랑이여

나는 생각했네  
나도 좋은 사람 되자고  
우리고장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신평은 무엇이 좋은가 물으면  
-사람들이 좋지요 뭐  
하나같이 대답할수 있도록

군살림 애써 퍼나가는  
책임일군들 꺾으며  
이 사람도 좋다고 말해줄수 있도록

## 우리고장엔 모기가 없다

우리고장엔 모기가 없다  
무더운 한여름이여도  
시원하게 들려오는 계곡의 물소리

어스름이 깃드는 산촌의 저녁에도  
불밝은 마을과 집집에선  
모기불을 피우지 않는다

미제날강도가 떨군  
한돈짜리 폭탄구멍이에서  
모기가 생겼던것은 먼 이야기  
어떻게 그것들이 알을 쓸라  
하나의 작은 물웅덩이도 없이  
제 살불이처럼 알뜰히 가꾼 땅에

우리고장엔 공기가 좋다  
청청한 수림이 풍기는 맑은 향기를 마시며  
아침마다 흥겨운 일터로 가는 사람들  
서로 돕고 이끌며  
이웃과 집단을 위해 마음쓰면서  
제힘으로 제고장을 꽃피우는 땅  
발붙일 틈이 있으라  
남의 피로 기생하는 삶이...

세상엔

모질고 어지러운 광풍이 분다 하라  
허지만  
당의 해빛만을 젖줄기로 빨고  
우리 제도의 맑은 공기만을 마시며  
삶의 희열 생활의 향기만이 차넘치는 땅에  
그 어떤 잡사상이 깃들라

하기에  
집집엔 모기장을 치지 않아도  
마음속엔 든든히 치고 산다  
호시탐탐 우리의 락원을 노리는 원썬들이  
《자유화》의 쉬를 쏘려 하기에  
붉은기사상의 강경보루  
금성철벽의 요새를

우리고장엔 모기가 없다!

## 고향에 대한 생각

향촌으로 달리는 차창가에서  
나는 생각한다  
고향이어 너는 무엇이었기에  
먼 출장길에서 돌아올적마다  
가슴은 왜 이리도 설레이는것이나

어린 날 처음 집을 떠났을 때  
못견디게 그림더러 고향의 어머니  
제대배낭 지고서 돌아오는 아들을  
온 마을이 들썹해서 맞아주던  
잊지 못할 그 봄날 저녁이여

대학시절 방학의 계절 고향길을 걸으면  
솔직히 왜 그리도 가슴 울렁거리었던가  
복숭아 주렁진 고향집 트락에서  
어여쁜 안해가 반겨맞을 생각에서였던가

내 이제  
귀여운 첫 손자를 거느린 반백의 사나이  
하건만 고향이여  
지금도 너에게로 돌아올 때면  
방학으로 고향길에 들어설 때처럼  
왜 그리도 마음은 조금해지는것이나

이 나라 3대장군의 존함을 가슴에 새기고  
항일의 봉화를 백두에서 받아올린  
하람산 련봉들이 솟아오른다  
위대하신 수령님과  
친근하신 장군님께서 오시여  
산촌의 새 시대를 열어주소  
그 불멸의 력사가 아로새겨진 사적비가  
언제나 이 가슴에 뜨거워라

발파소리 높이 올렸던  
도화동 매양천의 발전소들과  
밤새 우등불이 타올랐던  
오류동 등판의 개간지  
황금산의 잣나무숲과 백도라지밭  
땀흘리며 서로 떠받들며  
애써 향토를 가꾼 사람들이  
왜 그리도 못견디게 그리운것이나

어느 마을, 어느 다락밭  
어느 제방길을 걸어도  
힘들여 쌓아올린 못잇을 사연이 있고  
어느 아바이 어느 녀인을 만나도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는 못잇을 추억이 있어  
아름다운 산촌아  
너에게로 돌아오는 길  
이리도 뜨거운 감회에 넘치는것이나

내 만약 그 누가 억만금을 주면서  
더 화려하고 매혹적인 고장에 와 살래도  
절대로 아니바꿀 너  
아직은 맹산처럼 가꾸진 못했어도  
그보다 더 멋들어지게  
제힘으로 인민의 락원을 꾸리어  
경애하는 장군님을 꼭 모시리라  
철석같이 약속한 사람들이 있어

아 내 고향 신령아  
너에게로 돌아오는 이 마음 오늘도  
그리운 어머니, 젊은 애인이 기다려줄 때처럼  
그렇게 서둘러지는것 아니더냐

《지도일군들은 언제 어디서나 군중의 앞장에 서서 실지행동으로 모범을 보이고 어렵고 힘든 일에 남 먼저 어깨를 들이밀어야 합니다.》

김정일

## 실화문학

# 불씨

조정서

무엇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은 그것을 실지 체험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참 뜻을 깊이 이해하지 못할것이다.

누구든지 평양조명기구종합공장의 자력갱생직장에 가면 얼마 크지 않은 면적에 새로 꾸려놓은 설비들을 보게 된다. 크기와 모양이 각이한 탱크들이 바닥에도, 단우에도 올라앉아있고 굵고 가는 배관들이 그것들을 혈맥처럼 이어주며 열기 설기 지나간 설비들이다. 마치도 어느 연구소의 시험생산설비같이 아담하고 정갈하여 그곳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오래도록 떼지 못하게 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생산에 도입한 자력갱생의 산물인 《B》 금속제련기이다.

여기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지퍼주신 성강의 봉화따라 온 나라가 들끓고있는 현실에 발걸음을 맞추도록 말없이 떠밀어준 당일군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깃들어있다.

## 1

전국자력갱생모범일군대회에서 돌아온 초급당비서 신만균은 오래도록 창가에 서서 움직일줄 몰랐다. 창밖에서는 눈이 내리고있었다. 공장구내에는 벌써 눈이 하얗게 쌓이고 나무가지들에는 하얗게 눈꽃이 피었다.

그러나 그가 이처럼 오래도록 창가에 서있는것은 결코 눈경치를 부감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의 심중은 지금 자못 복잡했다. 아직도 대회참가자들의 열띤 토론이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누구나 자력갱생으로 부닥치는 난관을 뚫고 나간 감동없이 들을수 없는 그런 토론들이었다.

남만 쳐다보아서는 한결음도 내짚을수 없는것이 오늘이 현실이다.

우리 공장앞에도 제기된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중에서도 생산을 정상화하는데서 당면하게 제일 걸리고있는것은 《B》 금속이다. 《B》 금속으로 말하면 조명공업에서 핵을 이루는것으로서 지금껏 홍남제련소에서 그 분말을 가져오거나 많은 외화를 들여 다른 나라에서 사오군했었다.

신만균의 눈앞에는 지난날에 있었던 갖가지 일들이 떠오르며 무거워지는 가슴을 달랠길이 없었다. 그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음!》 하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답답해오르는 가슴을 헤쳐놓기라도 하려는듯 옷단추를 풀어헤친 그는 모대기던 지난날들을 더듬기 시작하였다.

...이 공장에 당비서로 부임되어온 그날부터 신만균은 노동자, 기술자, 관리일군들속에서 살다싶이하였다. 그 과정에 신만균은 《B》 금속문제를 포착하게 되었던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를 찾기 위하여 신만균은 우선 주공전선이 제기될 때마다 원심을 쓰군하는 계획과장 김두경을 만났다.

김두경은 홍안의 청년시절에 군사복무를 마치고 공장에 제대배낭을 풀어놓은후 로동경험도 일정하게 쌓았고 지도원을 거쳐 일을 억척스레 해제끼는 일군으로 성장한 예순살에 가까운 사람이였다.

이미전에 김두경은 해주제련소의 지배인으로부터 산법으로 《B》 금속분말을 뽑아내는 기술공정서를 넘겨받았었다. 했으나 그것은 사람들의 건강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힐수 있는것이였다. 또한 그것을 실현하자고 하여도 여러가지 화학자재들이 드는것으로 하여 많은 난점들이 제기되고있었다. 그리하여 정광으로부터 산법으로 《B》 금속을 뽑아내는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있었다.

김두경으로부터 이 모든것을 료해하고난 신만균의 심정은 착잡하였다.

(지금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당일군이 되자면 응당 걸린 고리에 몸을 잠그고 앞채를 메야 한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열쇠를 찾아낼수 있을것이 아닌가.)

그날부터 신만균은 짹짹이 기술문헌자료들을 찾아보았었다. 어떤 때는 기술원서들을 읽느라고 밤을 패우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 신만균은 드디어 공해도 없고 화학물질을 쓰지 않고도 《B》 금속을 제련할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되었다. 그때 신만균은 얼마나 기뻐는지 모른다.

그 방안을 선참 지지해나선것은 교관 주면옥아바이였다.

기술교관 주면옥은 올해 일흔에 가까운 늙은이로서 근 50년동안을 공장과 운명을 같이하면서

많은 일을 해온 성실한 사람이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장자강의 산간오지에 공장이 소개되었을 때는 물론 전후복구건설시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는 전기간 자신의 모든 삶과 온 넋을 고스란히 바쳐온 그였기에 기술부기사장을 하다가 일손을 놓은후에도 기술교관으로서 번심없이 공장의 크고작은 일들을 도맡아안고 일하고있었다.

주면옥은 《B》금속에 대한 파악이 깊었던지라 무릎을 치며 동의하여나섰다.

《비서동무, 이젠 됐수다. 정말 비서동문...》

주면옥은 당사업만 하자고 해도 바쁠텐데 그걸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는가 하고 하며 허를 털었다.

《아바이가 댔다니 나도 신심이 생기는군요. 그럼 이제부터 교관아바이가 이 일을 주관하여줄수 있겠습니까?》

《그 일이야 못하겠습니까만은 이젠 나이도 나이고보니 성 쌓고 남은 돌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디... 허허허...》

주면옥은 허거프게 웃으며 신만균을 바라보았다.

《참 아바인 못하는 소리가 없군요. 물론 젊은이들을 미처 따라다니지 못할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난...》

신만균은 갑자기 말허리를 끊기운채 주면옥을 바라보았다. 주면옥이 성급하게 말을 꺼냈기때문이었다.

《그럼 좋습니다. 내 비서동무가 하라는대로 하겠수다.》

《그렇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내 힘자라는 것 뒤에서 밀어주겠으니 <B>금속을 보란듯이 뽑아봅시다.》

주면옥의 손을 뜨겁게 잡아흔드는 신만균의 마음은 흥분에 젖어있었다.

신만균은 이어 지배인과 마주앉았다.

《지배인동무, 우리 이제부터 <B>금속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정복해봅시다. 허허허...》

《해야지요. 나도 절대찬성입니다.》

나이지속하고 체소한 지배인은 선뜻 대답은 하면서도 이런 말을 덧붙였다.

《그런데 우리 일부 일군들속에서 <B>에 대한 력사가 깊은 흥남에서도 못했는데 우리가 할수 있겠는가고 우려하는 소리들이 뽀뽀하게 들려온 단말이요. 헛참-》

《그럴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B>금속이 없어서 안타까와는 하면서도 누구도 선뜻 생각조차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이젠 거기에 <선전포고>를 내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배인동무, 우리 힘을 합쳐 한번 해봅시다.》

조용하게 울리는 신만균의 어조는 신념에 넘쳐있었다.

그리하여 주면옥을 책임자로 하고 김병하부직장장과 김인혁을 비롯한 공업시험소와 자력갱생직장의 쟁쟁한 기사, 기능공들로 정광으로부터 《B》금속의 생산을 위한 시험생산작업조가 무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일은 처음부터 순조롭게 되지 않았다. 중요한 일은 공장이 다 알게 하고 그를 해결하기 위하여 온 공장안의 관심을 모으게 해야 어떤 일이든 잘 풀려나갈수 있다는것이 신만균의 생각이었다.

신만균은 곧 초급당위원회 확대회의를 소집하고 현시기 공장에서 《B》금속을 자체로 해결하여야 할 목적과 의의를 인식시켰다. 그렇게 하여 모든 일군들이 《B》금속생산을 자기자신들이 해야 할 일로 여기고 여기에 실지 도움을 주도록 회의를 이끌었다. 그리고 《B》금속을 만드는데 필요한 정광을 확보하는 문제와 불수강판을 비롯한 이여의 자재들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들을 놓고 구체적인 분공사업을 조직하였다. 이때로부터 온 공장사람들의 화제에 《B》금속이라는 낱말이 자주 오르게 되었고 그것을 만들어내는것이 생활적으로 아주 절박한 요구로 나선다는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

어느날 밤이 깊도록 《B》금속시험생산작업장에 나가 걸리고있는 문제들을 토의하고 돌아오다 불이 환히 켜진 지배인방에 들렀던 신만균은 뜻밖의 일에 부딪치게 되었다. 그때 지배인은 어디선가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있었다.

《예. 어디라고요? 아, 그게 말하라는데... 자동차 곡축메달이 나갔나? 그래 그 추운 허허벌판에서 떨고있단 말이지. 알겠소. 기다리시오.》

지배인은 깊은숨을 내쉬며 송수화기를 놓았다.

《어디 갔던 차이길래 그렇게 됐습니까?》

신만균의 목소리는 초조하였다.

《<로>광산에 정광을 실으러 갔다가 곡축메달이 나갔다오.》 지배인의 어조도 무거웠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광산엔 내가 갔다오겠으니 지배인동문 래일 진행되는 래년도 계획 토의에 참가하십시오.》

신만균은 태연한 자세로 말했지만 한지에서 떨며 고생할 그들 생각으로 가슴이 알알해움을 어찌할수 없었다.

《거기가 어디라고 비서동무가 간단 말입니까. 운수직장장을 보내겠으니 비서동문 몸도 불편한데 좀 쉬어야 합니다.》

그랬으나 신만균은 도리머리를 했다.

《내가 이래봐도 웬만한 자동차고장쯤은 힘들지 않게 고칠수 있는 기능공이요. 허허- 운수직장장은 요즘 차수리때문에 바빠 돌아치는데 거긴 내가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광산까지의 거리와 도로 조건등을 알아야 당조직에서도 어떻게 하면 앞으로

잘 밀어주겠는가에 대한 궁리도 떠오른다는 논리를 세우며 한사코 말아나섰다. 그리하여 신만균은 지배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차부속을 준비하여가지고 지체없이 길을 떠났다.

쾌속으로 달리는 승용차에 앉아서도 신만균은 생각이 많았다. 추위에 온몸을 떨며 한지에서 고생할 운전수와 인수원 그리고 이제 당장 정광이 도착하면 시험생산에 들어갈 《B》 금속…

차창밖에서는 눈보라가 세차게 몰아쳤지만 답답하여지는 심정을 가라앉혀주지는 못했다.

정광을 실은 자동차는 인가도 퍼그나 벗어난 도로 한가벽에 못박힌듯 서있었다. 신만균은 승용차가 멎어서기 바쁘게 차문을 열고 나왔다.

《아, 비서동지가?!… 참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밤중에 불쑥 나타났습니까?》

모닥불을 피워놓고 기름투성이가 된 두손을 쫓아고있던 송동무와 박동무가 반가운 소리를 내지르며 신만균을 얼싸안을듯이 경중 일어섰다.

《허- 내라고 이런곳에 오면 안되던가…》 신만균은 소리내어 웃으며 그들의 손목을 이끌어 황황 타고르는 모닥불결에 앉혔다.

《이거 정말 안됐구만. 이런 한지에서 고생을 하다니… 어서 식사부터 하고봅시다. 운전수동무, 어서 식사를 가져오우.》

신만균은 일어서서 승용차쪽을 향하여 소리치고는 솜옷을 벗어 박동무의 등에 씌워주었다.

《아니, 전 괜찮습니다.》

박동무가 솜옷을 사양하며 손을 황급히 내저었다.

《뭘 그러오. 내 걱정일랑 말고 쓰고있으라니.》

신만균은 박동무에게 고깔모자까지 씌워주며 신칙했다. 신만균이 걱정이들을 덧놓자 스러질듯하던 모닥불은 기세를 울리며 불길을 휘저어올리기 시작하였다. 불길이 세차게 타고르며 주위가 환히 밝아지고 후끈후끈 열기가 풍기었다.

《어서 몸도 녹이고 우선 식사부터 하지요.》

《비서동지도 같이 들읍시다.》

송동무가 퍼그나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저녁도 먹고 떠났으니 내 걱정은 말구 어서 들라구. 참, 이 정신 봤나. 목이 긴 놈도 한병 있는걸.》

신만균은 급히 일어서더니 승용차로 다가갔다. 그러는 신만균의 걸음걸이는 매우 힘겨워보였다. 단단한 체격을 가진 당비서였으나 이미 오래전부터 앓고있는 신경장애로 하여 조급만 무리하여도 다리를 절곤하였다.

《저희들의 불찰로 비서동지가 이런 고생을…》

박동무가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허- 나야 원래 이렇게 돼먹은걸 뭐라오. 언 몸을 덥히는데는 이것이상 없지. 자, 한고뿌 쪽 들라구.》

바람이 눈보라를 몰아올 때마다 반짝거리는 눈

가루가 그들의 달아오른 얼굴에 부딪쳐서 물방울을 만들어놓곤하였다.

《참, 비서동진 그러지 않아도 바쁘겠는데 이렇게 밤에까지 고생을 시켜서…》

박동무가 신만균의 무릎을 두드리며 무릅없이 말했다.

《고생이라구?... 아니요, 이것도 바로 나의 임무란 말이요.》

신만균은 삭정이를 들어 불무지에 던놓으며 박동무를 미소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래도 이런 일이야 우리가 할일이지요. 비서동지야 공장사업을 지도하는 간부가 아닙니까?》

《간부라... 아니야. 그건 박동무가 잘못 생각하고 하는 소리야. 우리들이 직무상으로 책임한계는 다룰수 있어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을 실현하는 투쟁에서는 똑같은 위치에 선 전사들인거요. 우리에게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신임과 기대에 모든 힘을 다 바쳐 보답해야 하는 전사의 의무만이 있을뿐이요!》

신만균은 격해지는 심정으로 먼 산밭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컴컴한 야공을 헤가르며 눈부신 별찌 하나가 쏜살같이 내려쨌더니 사라져버린다. 신만균의 가슴을 그들먹이 채우며 잊을수 없는 옛 시절의 일이 삼삼히 떠올랐다.

...신만균은 미국놈들때문에 너무도 일찌기 부모를 잃은 사람이었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신만균의 고향 강서땅에서도 미제야수들의 피비린 살육만행이 감행되었다.

모범농민이었던 어머니는 놈들에게 붙잡혀 고문끝에 숨을 거두고말았다. 그때 세상에 태어난지 반년밖에 안되었던 신만균은 강보에 싸인채로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간신히 생명을 보존할수 있었다. 그런데 군당지도원을 하던 아버지도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하여 놈들에게 붙잡히고말았다.

놈들은 아버지에게 얼마나 갖은 악행을 가했든지 전쟁이 끝날무렵에는 종시 숨을 거두고말았던 것이다.

이렇게 되어 혈혈단신의 고아가 된 신만균은 한창 응석을 부려야 할 나이에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모르고 자랐으며 너무나도 일찌기 철이 들게 되었다. 무슨 일인들 없었으랴.

그의 운명을 지켜주고 보살펴주신분은 아버지 수령님이시였고 당의 품이었다.

그런데 지금 삶을 빗내여준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덕에 보답하도록 일을 하지 못한것만 같아 가슴을 치군할 때가 얼마였는지 모른다.

모닥불은 기세를 돋구며 활활 타올랐다.

《우리가 한지에서 고생하는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거요. 제격 차정비를 하고 달려보지요.》

신만균도 두손을 걷어붙이고 불을 비쳐준다 스



파나를 쥐여준다 하면서 부지런히 일손을 놀렸다.

자동차수리가 끝날 때에는 날이 활짝 밝았다.

## 2

자재일군들은 《B》금속제련공정을 꾸리기 위한 자재들을 확보하느라 뛰어다녔다. 시험생산작업조의 성원들도 실험실적방법으로 《B》금속을 제련해보는 한편 정광소성로를 쌓고 분쇄기를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다.

하지만 일은 쉽게만 되지 않았다.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게 되자 신심을 잃고 맥을 놓는 사람들도 있었다.

바로 그즈음에 신만균은 전당 당일군회의와 전국자력갱생 모범일군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던 것이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있었다.

나는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

대회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 충성의 보고를 드렸는데...

만일 우리 공장에 장군님께서 오신다면 과연 무슨 보고를 드린단 말인가.

크나큰 기쁨을 드릴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자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눈발이 흩날리는 저 멀리 창공높이 주체사상탑의 봉화가 활활 타오르고있었다. 하늘의 무수한 성좌들이 그대로 내려와앉은듯 눈부신 불빛들이 저 봉화를 옹위하듯 명멸하고있었다. 혹시 이밤에도 우리 장군님께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다가 불꺼진 거리와 마을을 목격하게 되신다면 얼마나 심려하시겠는가. 그이께서는 이름없던 나에게 조명공업초소를 지키라고 내세워주시었는데... 가슴은 더욱 무거워지기만 하는것을 어쩔수가 없었다. 신만균의 가슴은 늘 이런 생각으로 뜨겁게 고동치고있었으며 자신의 한몫을 연소시키고싶은 심정뿐이었다. 그것은 전사의 의무이기전에 도덕의리심이라고 간주하고있었다.

이윽도록 창가에 마주서서 눈내리는 창밖을 내다보며 지나온 일들을 더듬던 신만균은 두주먹을 짝 부르짖었다.

《B》금속을 제련해내는데서 절대로 주저앉거나 물러서서는 안된다.

단 한결음도!...

우리 힘으로 기어이 공해를 동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B》금속을 뽑아내야 한다.

공장기술자들의 협의회는 당위원회 사회의실에서 진행되고있었다. 《B》금속문제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갑론을박하면서 심각한 논쟁을 벌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논쟁은 점점 더 치열해졌다. 기존관념을 완고하게 고집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높은 열을 요구하는 《B》금속을 수십년동안 산처리방법으로 얻어냈는데 선형자들이 우리만 못해서 용매추출법을 도입하지 못하였겠는가, 파악

이 없는 일에 술한 자재와 로력을 들이밀었다가 실패하는 경우 그것을 무엇으로 보상하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한동안이 지나자 할말을 다했다는듯 서로 큰숨만 몰아쉬면서 앉아있었다. 그러자 신만균이 사람들의 열띤 얼굴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그럼 이젠 내가 말을 좀 합시다. 동무들도 알겠지만 자력갱생만이 우리가 살길입니다. 누구의 힘을 믿지 말고 제힘으로 모든걸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방도는 어데 있는가. 그 방도 역시 기술혁신에 있다는것을 잘 알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술혁신이 바로 생산예비의 원천이며 잠재력이 아니겠습니까.》

장내는 조용해졌다. 기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신만균은 장내를 둘러보며 나직하나 힘있는 어조로 말을 이었다.

《중요한것은 우리 일군들이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의무를 자각하는것입니다. 그래야 불타는 열정이 나올수 있고 어떤 난관도 뚫고나가는 힘이 생길수 있습니다.》

저력있게 울리는 신만균의 말은 그대로 마디마디 기술자들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려주고있었다.

《동무들도 다 아는 이 문제를 왜 이자리에서 새삼스럽게 다시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B>금속을 생산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이 우리 공장이 제발로 걸어나가는가 아니면 여전히 남의 도움으로 걸어가야 하는가를 좌우하는 관건적인 문제로 되기때문입니다. 그때 언제까지 우리가 남의 도움을 받아가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수는 없습니다. 물론 제발로 걷는다는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막연한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저기 앉은 교관아바이를 보십시오. 젊은 사람들도 힘에 부쳐하는 일을 자진해서 맡아가지고 완강하게 밀고나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일부 사람들은 안된다고 고개를 기웃거리지만 그들은 무조건 성공하고야말겠다고 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쓰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무들! 그때 피가 한동이씩이나 고인 우리들이 이들의 고심참담한 노력을 강건너 불보듯만 하고있겠는가. 생각해보십시오. 안된다고 팔짱만 끼고 앉아 구경하다가 그들이 성공한 그때에는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는가.》

장내가 바람을 맞은 숲처럼 술렁거리기 시작하였다. 여기저기서 《합시다!》하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신만균은 고개를 끄덕였다.

《웁습니다. 그러리라고 믿었습니다. 동무들, 우리들은 언제나 오늘 당에서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심장에 손을 얹고 생각할줄 알아야 합니다.》

아버이장군님께서 새해벽두부터 찬눈을 다 맞으시면서 전선에서 전선으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고계십니다. 자강땅을 찾으시여 6천여리의 눈보라길을 헤치시며 오늘의 강행군을 어떤 신념과 의지로 뚫고나가야 하는가를 위대한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장군님의 전사들인 우리가 어떻게 편안한 길만 걸을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고 자기 할바를 찾아주고 일해야 합니다.》

기어이 자체의 힘과 지혜로 《B》를 생산해내고야말 하나의 결의가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에 타올랐다.

…작업장은 예없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자재가 들어오는 즉시로 제판과 용접을 하면서 크고작은 탱크와 배관들을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주면옥은 《B》금속의 제련 원리와 공정에 대한 잡지와 도서들을 참고로 하여 우리 식대로 기술공정들을 새롭게 세우고 실정에 맞게 조직하는 사업을 다그쳐나갔다. 그무렵 주면옥은 청춘의 활력이 되살아난듯 밤늦도록 책과 씨름하다가도 작업장에 나가 밤을 꼬박기 새우는 때도 드문하였다.

그러나 로년기에 이른 그의 몸은 역시 한계가 있었다. 주면옥은 심한 탈수증에 의한 수분부족과 현훈증이 겹쳐들었던것이다.

신만균이 산형강때문에 떠나려고 서두르던 때였다. (이미 크고작은 탱크들과 배관들을 다 마련하여놓았으나 산형강이 들어오지 않아 조립하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갑자기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당비서 신만균 전화받습니다. 뭐라고요? 주아바이가 쓰러졌다구요?》

(교관아바이가 쓰러지다니!)

신만균이 주면옥의 집에 당도하였을 때는 담당의사가 왔다간후였다. 주면옥은 링겔주사를 팔에 꽂고 침대에 조용히 누워있었다. 주면옥의 안해 리란순이 불깃해진 두눈을 습벽거리며 당비서를 맞이하였다.

《정말 안됐습니다. 일만 일이라고 하면서…》

《원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공장에 별로 도움도 주지 못하면서 폐만 끼친다고 생각하니 도리어 우리들이…》

리란순이 죄스러운 어조로 말을 받으며 고개를 수그렸다.

《그런데 병증세는 어떻습니까?》

《글쎄 아침에 일어났다가 갑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졌는가봐요. 부엌에서 동자질을 하다가 이상한 소리가 나서 달려와보니 글쎄 평감이 쓰러져서 정신을 잃었던군요. 방바닥에 쓰러져서도 무슨 <B>라던가 하면서 알아듣지 못할 말마디를 신음소리처럼 외우더군요. 얼마나 겁이 나던지. …이젠 일없습니다. 이제 링겔주사를 더 맞고 식욕만 돌아서면 인차 일어설거라고 하더군요.》

요.》

도란거리는 말소리에 정신이 들었던지 주면옥이 스르시 감았던 눈을 떴다. 당비서를 알아본 그는 어쭙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려고 모지름을 썼다.

《당비서동무가 다 이렇게 오셨군요. 이거 늙은게 주책머리없이…》

《아니, 가만 누워있소. 주아바인 절대안정이 필요합니다.》

신만균은 주면옥의 베개를 고쳐베여주며 안심시켰다.

《주아바이, 이젠 마음놓아도 됩니다. 오늘 산형강만 가져오면 설비들이 기술공정대로 다 꾸려지게 됩니다.》

순간 주면옥은 앓던 사람 같지 않게 흥분된 마음을 감추지 못해하며 몸을 일으키려 했다. 신만균은 가볍게 주면옥을 도로 눕히며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그렇습니까. 이제부터 공업적으로 본때있게 해볼수 있겠는데.》

이미 실험실적인 방법으로 첫 시제품을 냈으니 그럴만도 하였다.

《됐습니다. 비서동무.》

주면옥의 두눈귀에서 맑은 눈물이 흘러내려 베개잇을 적시고있었다. 링겔병에서는 맑은 액체가 생명수처럼 방울방울 떨어져내려 주면옥의 혈맥으로 흘러들고있었다.

《주아바이, 이젠 <B>금속문제는 풀린셈입니다.

그러나 이젠 마음을 놓고 누워계십시오. 일하는 도중에 걸리는 문제가 제기되면 사람을 보낼터이니 기술적인 조언만 주면서 몸조리를 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비서동무.》

주면옥은 자리에 누운채 몇번이고 신만균의 손을 잡아 흔들었다.

공장으로 돌아오는 신만균의 생각은 바닥없이 깊어져갔다.

무엇보다도 주아바이같은 오랜 사람들의 건강에 미쳐 주의를 돌리지 못한 자신의 일이 무척 불만스러웠다. 당일군들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아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높으신 뜻을 잘 받들지 못한 자신의 일로 마음이 무척 괴로왔다.

한편 신만균을 누운채로 바래운 주면옥은 마음이 괴로와 도무지 잠들수가 없었다.

당비서도 지배인도 그렇게 안타까와하는데 몸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쉼평 좋게 누워있자니 정말 얼굴이 뜨거운 일이었다.

더우기 공정별로 《B》금속제련설비들이 다 조립되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야 할텐데 그 많은 일을 두고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인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궁핍거리던 주면옥은 이틀날아침 마침내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신만균은 공장정문 가까이에서 주면옥을 보자 놀라서 자전거를 멈춰세웠다.

《교관아바인 왜 벌써 나왔습니까. 여기 일은 우리에게 맡기고 어서 집에 들어가십시오.》

하지만 주면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젠 일없수다. 이쯤하면 공장에 나와있는것이 더 마음이 거뜨해지고 힘이 생기우다.》

신만균은 아바인을 따라 걸으며 허를 찼다.

《내 교관아바이에게 두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정 그렇다면 아바이도 나의 부탁을 들어주소.》

《부탁이라니요? 비서동무의 부탁이라면야 무엇이든 다 들어주어야지요. 허허허...》

《약속했습니다.》

신만균은 주면옥을 바라보면서 다짐해놓았다.

《자, 이제부터 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라는겁니다. 그러면 신체단련도 되고 건강에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주면옥은 손을 내저으며 당황한 어조로 말했다.

《아, 그것만은 안됩니다. 내가 어떻게 당비서동무의 자전거를... 더우기 비서동문 다리도 불편한데 자전거가 없이 다니기 힘들지요.》

그랬으나 신만균은 끝내 주면옥의 손에 자전거를 쥐여주었다.

《교관아바이, 고개를 번쩍 들고 앞만 보십시오.》

《알았수다. 비서동무.》

주면옥은 당비서의 말에 더욱 용기가 솟아오름을 느끼며 다리에 힘을 주었다.

오직 앞만 바라보며 곧바로 달리라는 신만균의 그 말이 평범하게 들리지 않았다.

그렇다. 앞만 보며 달리자. 남을 쳐다보거나 결눈을 팔지 말고...

오직 앞으로만!...

### 3

신만균은 《B》금속제련 공정설비들이 그쫘하게 갖추어지자 생각이 많았다. 언젠가 김책공업종합대학의 한 교원이 《B》금속의 제련공정에 관한 과학론문을 집필했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었다. 이미 과학이 깊은 그 교원을 인입시킨다면 더 빨리 할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B》금속시험생산작업조의 성원들에게도 새로운 신심을 주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굳힌 신만균은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찾아갔다.

신만균은 이미 구면인 금속공학부의 초급당비서에게 무릅없는 인사를 건넸었다.

《아,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소식도 없이

불쑥 나타났습니까. 옛정이 몹시도 그리웠던게지요. 허허허...》 초급당비서는 오랜만에 만난 신만균을 대하자 무척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권했다.

원래 신만균은 이 대학을 마치고 여기서 교원생활도 얼마간 했고 대학당위원회에서 일한바 있었다. 그런것으로 하여 그들은 자별한 사이였었다.

안부를 물으며 회포를 나누던 신만균은 이어 찾아온 용건을 말했다.

《그러니 비서동문 거기서 또 새 일거리를 걸어안은게지요?》

《그렇소. 잡아도 큰걸 잡았지. 우리는 바로 <B>를 뽑아내는 새로운 공정을 꾸리고있단 말이요.》

신만균의 이 말은 초급당비서를 놀라게 하였다.

《너무 힘든걸 잡았군요.》

《허- 잡을바에야 그런걸 잡아야지요.》

《글쎄, 그 결심은 좋은데 쉽지 않을거요. 우리 유색금속강좌의 한 교원이 그에 대한 론문을 써가지고 그걸 실현시키려고 홍남에 내려갔었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신만균이 반색을 하며 다우쳐물었다. 그러나 초급당비서는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다.

《실패했지요. 현장에서 침식을 하며 아글타글 했지만...》

《비서동무, 그럼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우선 그 교원의 학위론문을 우리 공장에서 실현하도록 하잔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배우고 과학자들도 당앞에서 실제적인 성과로 떼떽하게 이바지하였다는 자부가 생기지 않겠소.》

신만균은 나직하나 흥분된 어조로 말하며 초급당비서를 바라보았다.

그날부터 유색금속강좌교원 김영일은 공장에 나와 《B》금속시험생산작업조에 망라되게 되었다.

김영일교원이 오자부터 작업장은 더욱 활기를 띠고 흥성거리기 시작하였다. 우선 그는 《B》의 제련공정설비들이 손색없이 꾸려진것을 확인하고는 대단히 만족해하였다. 그리고는 주면옥과 이마를 맞대고 신중한 토론끝에 합의하기도 하고 공정별에 따르는 작업정형을 관찰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다. 신만균은 주면옥에게 김영일교원과 함께 시험작업조성원들을 데리고 좀 와달라고 하였다. 꼭 도움받을 일이 생겼다는것이였다. 무슨 영문인가 하여 찾아가니 신만균은 책상우에 기술서적을 한아름 가져다놓는것이였다. 그 책들을 하나하나 뒤적여보니 여러 나라글로 된 《B》금속의 제련원리와 기술공정들에 대

한 도서와 잡지들이었다.

《아, 이 귀중한 책들을 어디서 구했습니까?》

김영일교원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해하며 신만균을 바라보았다. 그러는 그의 두눈에는 경탄과 신뢰의 빛이 넘치고있었다.

《허- 우리 동무들이 극성스레 도와주더군.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요.》

신만균은 마치도 자기는 팔짱을 끼고 앉아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들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참, 이것 좀 보시오. 여기 추출공정에서 희석제특성값들에 대한 자료가 있구만. 선생이 다시 한번 보라구. 우리가 찾지 못해하던 자료가 여기에 있단 말이요. 여기에!》

주면옥은 주름살이 진 두툼한 손가락으로 책장을 짚어가며 김영일교원에게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아, 그래요? 이젠 됐구만요. 걸렸던 고리가 풀린셈입니다.》

김영일교원은 밑줄을 그어놓은 글을 단숨에 읽고 무릎을 치며 누구에게라 없이 탄성을 지르듯이 말했다. 책상위에 쌓아놓은 매 책들에는 필요한 제목들은 접어놓고 연필로 밑줄을 그어놓았던 것이다. 순간 가슴속에서 일렁거리는 감정을 어찌할수 없었다. 당사업만 하자고 해도 바쁘겠는데 어느 여가에 이 많은 책들을 읽고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놓았는지 도무지 가늠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게 정말 필요한겁니까?...》

《이건 우리가 새로운 방법으로 하게 되는 <B>금속의 제련을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안내자라고도 할수 있지요. 그렇지요? 교관아바이.》

김영일교원은 여전히 책장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인제 풀렸수다. 이런것이면 문제없을거요.》

주면옥도 만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여보였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나 역시 기쁘군요. 내 그럴것 같아서 이걸 좀 부탁해두었는데 그것을 쓸수 있다면 당장 가져오겠습니다.》

신만균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비서동지, 이거 정말 우리가 값을 단단히 내야겠구만요.》

김영일교원은 감동에 젖은 눈길로 신만균을 바라보며 말했다.

《값이야 그새 밤낮이 따로없이 애쓴 동무들한테 내야지요.》

신만균은 벽장문을 열고 맥주병들을 꺼내었다.

주면옥이 당비서의 손을 와락 움켜잡았다.

《알았수다. 비서동무, 우린 꼭 <B>금속을 뽑아내겠습니다.》

그것은 시험생산작업조성원들모두의 한결같은 심정이였다.

이튿날부터 그들은 침식을 현장에서 하며 전투

를 벌리기 시작하였다. 공장에서는 정양소호실을 그들에게 제공하여주었다.

그러던 어느날 신만균은 사무실 의자에서 일어나려다가 골살을 찌프리며 주저앉고말았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던것이다. 오늘아침 출근하려고 집을 나설 때 안해가 하던 말이 떠올랐다.

《당신 그러다 어찌자고 그래요? 온밤 앓음소리로 잠을 못들더니 그 몸을 해가지고 어떻게 나간다고 그러는가 말이에요.》

안해의 얼굴은 불안스러움과 남편의 고집을 꺾지 못해하는 안타까움으로 가득차있었다. 그 모습이 눈앞에 얼른거려 마음이 무거웠다. 신만균은 입을 꼭 다물고 온몸에 힘을 주며 의자등받이에 잔등을 기대었다.

(힘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의지가 강한 사람에겐 절대로 병마가 달라붙지 못하는 법이다.)

이것은 사실 신만균이 생활을 통해 터득한 진리라고 말할수 있다.

...그것은 다섯해전의 일이었다.

그때 신만균은 지방에서 있는 당일군회의에 참가하고있었다. 그런데 동통이 심하여 혼수상태에 빠진채 구급차에 실려 의대병원에 후송된 신만균은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여러차례 진행된 의사협의회에서는 그에게 악성종양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진단이었다. 수술을 한다고 해도 6개월밖에 생명을 연장할수 없다는것이 협의회의 결론이었다.

수술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수술을 마친후 신만균은 웅근 하루동안을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했었다.

그후 신만균은 하반신마비로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마음대로 걸을수조차 없게 된 몸으로 침상에 엮매인 신만균은 상처의 아픔보다도 정신적고충이 더 컸었다.

(악성종양... 하반신마비... 게다가 이제 남은 생은 6개월이라!...

사람의 생이 어찌면 이리도 빨리 끝나버릴수 있단 말인가?! 한생에 해야 할 일은 아직도 많은데 절대로 죽을수 없는 몸이다!)

신만균은 시간의 귀중함을 새삼스레 절감하였다.

6개월!

시간으로 계산해보니 4천3백이십시간이다.

이제부터 하루를 한달로 생각하고 한달동안에 할 일을 하루에 한다고 보자. 그러면 6개월을 산다고 하면 15년은 사는것으로 될것이다. 이제 15년이면 그래도 여생에 해야 할 일은 부끄럽지 않게 해낸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실천적모범과 크나큰 사랑속에 우리 삶의 순간순간이 흐르고있는것이 아니겠는가.

그 고귀한 시간의 한초한초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용암같은 충효의 열정으로 한껏 충만시키자!



이런 결심을 마음속으로 굳히고난 신만균은 그 이튿날 분연히 퇴원을 결심하였다.

그의 안해 유성숙은 처음엔 아연해하였으나 남편의 여생에 대한 《계산법》을 듣고는 눈물속에 수궁하였다. 당시 금성청년출판사 기자로서 남편의 건강을 극진히 돌보았던 유성숙은 신만균을 안팎으로 돌봐주고 말없이 밀어준 녀성이었다.

신만균의 불같은 의지앞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하반신마비가 차츰 풀리어 그는 대지를 활보하게 되었다. 더우기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결론지었던 진단이 다섯해가 지난 오늘까지 그를 쓰러뜨리지 못한것이다!...

(그렇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령을 관철하기전에는 죽을 권리가 없다는 전사의 의지를 이겨낼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신만균은 저도 모르게 《음!》하는 신음소리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바로 오늘이 새로운 용매추출공정에 이르게 된 날이었다. 한시바삐 작업장에 달려가고싶었다. 신만균은 한결 가벼워지는 마음으로 현장을 향해 걸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여느때없이 긴장되었다. 어떻게 될것인가. 크나큰 기대와 관심 속에 시험생산이 진행되었다.

분석결과를 기다리는 시험생산작업조 성원들은 흥분된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있었다.

가슴빠근하고 벅찬 흥분속에 순도분석표가 도착하였다. 그러나 분석표를 읽은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을수 없었다. 분석결과가 시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두개의 시료를 떼었는데 하나는 만점짜리였고 다른 하나는 순도가 허용한계를 벗어난것이였기때문이었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처져서 한숨을 내쉬었다.

신만균은 가슴이 허전했지만 그런 기색을 앎고 웃으며 그들의 어깨를 두드려주었다.

《그만하면 생각보다도 팬찮은셈입니다. 어떻게 첫술에 배부르겠소. 자, 락심하지 말고 그 원인을 찾아봅시다. 이 만점짜리 분석표는 성공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명백히 보여주고있지 않소.》

당비서의 말에 사람들은 다시 분발하여나섰다.

주면옥은 김영일교원과 함께 기술문헌들을 다시 따져보기 시작하였다. 고심 어린 탐구와 시험생산은 다시 시작되었다.

마침내 온 공장 사람들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첫 《B》금속분말이 나왔다. 그것을 프레스화하여 각봉을 찍었다. 《B》금속의 순도도 나무랄데 없었고 단조와 연신에서도 손색이 없었다.

신만균은 주면옥의 두손을 뜨겁게 잡았다.

《교관아바이, 수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게 아니지요. 난 공장에서 50년동안이나 일해오면서도 이걸 엄두조차 못냈수다. 그런데 비서동문 우리 공장에 온지 불과 열달밖에 안된 사이에 보란듯이 해놓지 않았습니까. 생각해보면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주면옥은 《B》금속의 각봉과 그것을 소재로 뽑은것을 쓸어만지며 감개에 넘쳐 어찌할줄을 몰랐다.

《난 그저 우리 장군님의 높이신 뜻을 받들지 못하는 그것이 가슴에 응어리로 맺혀 내려가지 않았소. 자력갱생을 하면 우리 공장이 제발로 걸어나갈수 있다는 신심이 중요합니다. 아직 우리에겐 할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물리브덴도 그렇고 니켈선도금문제도 우리는 자체로 보장해야 합니다.》

사색깊은 어조로 말하는 신만균의 낮빛에 확고한 결의가 차넘치고있었다.

《비서동무, 우리도 신심이 생깁니다. 이제부터는 무엇이든 마음먹으면 해낼수 있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제련해낸 《B》금속으로 만든 첫 제품을 받아든 그날 시험생산작업조 성원들은 물론 온 공장이 큰 경사라도 만난듯 흥성거렸다. 가는곳마다 그 이야기였다. 공장신문 《불빛》에도 이들의 투쟁소식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김영일교원이 대학으로 돌아가게 되자 신만균은 서운한 낮색을 지으며 말했다.

《선생이 이번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나도 그렇고 우리 동무들이 많은걸 배웠습니다.》

《아, 아닙니다. 사실 처음엔 좀 주저되는바도 없지 않았지만 차츰 저도 모르게 온몸이 끌려들어가는것을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김영일교원은 진심을 털어놓기 시작하였다.

《비서동지, 전 이 길지 않은 <B>금속의 과학문도입기간에 심장으로 체득한것이 많습니다. 어떤 일이든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을 받드는 마음으로 대하고 달라붙는다면 이 세상에 못해낼일이 없다는 신념을 깊이 절감하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마치도 또하나의 대학을 나온것같은 기분입니다.》

그로부터 며칠후인 7월말 신만균은 시험생산작업조의 성원모두를 위한 묘향산답사행군을 조직하였다.

신만균은 그들이 떠나기에 앞서 주면옥에게 말했다.

《이번 묘향산답사에 교관아바이도 같이 가십시오. 젊은이들과 함께 가게 되니 마음이 젊어질겁니다. 등산길은 걷지 못한다고 하여도 새로 확장된 국제친선전람관도 참관하고 머리도 쉬우십시오.》

《비서동무, 난 아직도 하여야 할 일에 시작을 땀을뿜었는데 정말 시간이 아깝습니다. 내 이제 갔다와서 다 봉창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주면옥은 불같이 타번져지는 마음속의 격정을 도저히 달랠길이 없었다.

(저런 당일군이 뒤에 서있는데야 우리에게 무서운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휘황한 불의 세계가 시작되는 첫 광원파도 같이 사람들의 가슴에 뜨거운 불씨를 심어주어 힘차게 이끌어주는 사람!...)



# 숲에 들렀다 가시라

김흥익

숲에 들렀다 가시라  
 숲이 울창하다 에돌지 말고  
 슬렁이는 수림과 벗해보시라  
 무성한 숲의 사연 안고가시라  
 ...

록음질은 한여름에도 백설에 묻힌 정이월에도 영원한 생명을 읊조리는 숲의 목소리, 신록에 젖어드는 봄날부터 다시 신록에 물드는 그날까지 하얗은 사연을 안고 우리를 부르는 다정한 속삭임.

## 1

어느 일요일이었다.

아침 열시쯤 그들은 숲에 가닿았다. 예명이네가 사는 그리크지 않은 도시에서 조금 떨어져있는 산골짜기의 숲이었다.

일행은 다섯이었다. 화가인 예명의 아버지와 같은 부문에서 수예가로 일하는 그의 어머니, 아버지의 막역지우인 공작기계공장의 기사장아저씨와 기상관측소 상급예보원으로 일하는 그의 안해 그리고 예술단의 홀류트연주자인 예명...

원래는 여섯이어야 했다. 그런데 예명의 젊은 남편은 오늘 오지 못했다. 광물연구소 연구사인 그는 몇해전부터 씨름해오는 자기의 연구사업 때문에 오늘아침 먼 광상지기로 출장을 떠나간 것이었다.

《아버님이 우릴 위해 모처럼 마련한 휴식인데 그렇게 빠지면 어떻게 해요? 하루 쉬고 래일 떠나세요.》하고 예명은 애원하듯이했었다.

하지만 고집센 남편은 부득부득 출장배낭을 꾸리면서 아무 대꾸도 없었다.

《절 생각해서라도 하루 좀 바쳐주세요.》

예명은 금시 허끝에 매달리는 그 말을 입밖에 내지 않았다. 남자쪽에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주어야지 여자쪽에서 입에 올리면 단박에 역스러워진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던 것이다.

허나 그대신 속으로는 이렇게 부르짖었다.

(에이, 돌덩이같이 무정한 사람... 동무야 그저 광석, 광석밖에 모르지요. 그럴바엔 그 광석한테나 장가들지요...)

그러나 예명은 입을 봉한채로 남편의 출장준비를 간간하게 갖추어주었다. 어쨌든 예명은 그의 안해였던 것이다. 지성적이면서도 섬세한 감각으로 세상만물을 대하는 예술가들인 부모들의 꾸준한 가정교양이 아니, 조금 거세고 변덕스러운듯 하면서도 매사에 섬세하고 감정이 어린 예명 자신의 착한 성격이 그렇듯 마음이 앵돌아진 순간에

도 안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한 것이었다.

시종 침묵속에 출장준비를 끝내고 떠날 때 남편은 무거운 배낭을 들고 문가에 따라나선 예명한테서 무슨 말인가를 기다리는듯 신발을 신은 다음에도 복도에 그냥 서있었다.

그러나 예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리성은 《몸조심하세요.》 혹은 《물은 꼭 끓인걸 마셔야 해요.》하고 살뜰하게 한마디 하라고 하지만 감정은 꼭 단아맨 입을 열지 못하게 했다. 흔히 이런 땀 리성보다 감정의 힘이 더 센 것이었다.

한동안 잠자코 서있던 남편은 눈을 내리깐채 서있는 예명의 파릿하니 질린 볼을 어색하게 다쳐주고는 배낭을 받아메고 돌아섰다.

복도계단으로 동안뜨게 멀어져가는 발자국소리를 들으며 예명은 금방 남편의 모습이 사라져버린 계단쪽을 점도록 바라보았다. 자기에 대한 그리고 남편에 대한 이름못할 억한 감정이 가슴을 메웠다. 무정하게 가버린 남편도 밋고 인사말 한마디 안해보낸 자기도 미웠다. 홀로 떠나간 남편도 가없고 빈집에 외로이 남은 자기도 가없었다.

예명은 열어놓은 문가에 기대여선채 깊은숨을 몰아쉬며 눈을 내리깔았다.

그러자 자기의 몸을 부드럽게 감싸며 흘러내린 연미색의 발이 가는 실내옷밑으로 여느때없이 유난해진 가슴과 조금 부해진 그 아래도리가 내려다보였다. 순간 그 어떤 찌릿한 환희가 온몸을 누비며 지나가고 이어 눈물이 불쑥 솟구쳤다.

(바보,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갑자기 엄습해오는 외로움에 몸이 떨려난 예명은 쫓기듯 황황히 설것이를 하고나서 남편과 같이 들고가려고 마련해두었던 음식감들을 무겁게 들고 집을 나섰다.

예명네 집에서 얼마 멀지 않은 본가집에서는 그의 부모들과 한발 먼저 온 기사장아저씨네 내외가 그를 기다리고있었다. 어머니들은 부엌에서 음식감준비를 하고 아버지들은 옷방에서 무슨 이야기에 열중하고있었다.

예명은 먼저 부엌으로 내려갔다. 서로 형제간처럼 자별하게 지내지만 생김생김이나 체격, 성미가 아주 판판인 남편들과는 달리 조금 통통한 몸매며 가름한 얼굴이며 늘 웃음기가 찰랑거리는 눈모습이며 어딘가 모르게 꼭 자매간처럼 보이는 두 어머니는 예명을 보자 부지런히 일손을 놀리면서 반색을 지었다.

《어머니, 난... 혼자 왔어요!》

꾸레미를 내려놓고난 예명은 자기의 말에 그

어떤 감정의 색조가 섞일가봐 겁내며 조심히 말했다.

《응, 알고있다. 이자 너의 서방님이 왔댔다.》

파를 깨끗하게 다듬으며 받는 예보원어머니의 말에 예명은 눈이 둥그래졌다.

(아니 그럼?)

예명은 본능적으로 주위를 두리번두리번 살폈다. 어머니가 얼른 주를 달았다.

《역으로 나가는 길에 피륙 들렀더라.》

《사람이 참 괜찮드라.》

파를 양념감들이 든 소랭이에 담으면서 예보원 어머니가 칭찬하는 소리였다. 그에 따르는 그 무슨 설명같은것이 더 있을듯싶어 예명은 잠시 그대로 서있었다. 했으나 그 말 한마디를 던지고는 제하던 일에 열중해버린 예보원어머니를 바라보다 말고 제잡담 속으로 화를 내며 웃방으로 올라갔다.

《예명이, 참 오래간만이로구나. 아마 시집갈 때 보군 첨이지?》

하고 예명의 인사를 반갑게 받아넘긴 기사장아저씨가 팔걸이의자에 앉아 색깔은 등산모의 주그려든 채양을 손다림으로 펴고있는 아버지를 상대로 하던 이야기를 계속하는것이였다.

《글쎄 하루쯤 숲에 나가 쉬지 않겠느냐는 율형의 전화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내 머리속엔 온통 기계, 기계뿐이었다니까요. 어제가 월말이었거든요. 현장에 나가두 기계, 사무실에 앉아있어두 기계, 회의를 해두 기계... 세상이란 온통 기계로 되어있는것처럼 말이지요. 그러다가 율형의 전화를 받고보니 사람이 때가 어떤 땐데 숲놀이 가자는건가 하는 생각에 첫순간 뻔해지더라 말이지요.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는 장군님의 명언을 상기시켜주지 않았더라면 전화로 욕을 퍼부를 뻔했다니까요. 허허, 하여튼 고맙소. 어느 책엔가 휴식은 로동으로 긴장된 근육이나 정신에 율활유를 치는거나 같다고 했던데 그 말이 참 그럴듯 하거든요. 휴식하러 가자 하고 결심을 내린 첫순간 내 눈앞에 떠오르게 된지 아오? 고요한 호수 위에 동동 떠있는... 그 뭐요? 낚시줄에 매단 갑부기였소. 허허... 내 그래서 어디 큰 강가로 나가자고 자꾸만 우겼던거요. 뭐니뭐니해도 들놀이는 물이 있는곳이래야...》

《그게 틀리는 소리 아니지만.》

끝내 구겨진데를 펴지 못한 등산모를 머리에 써보며 예명의 아버지가 언제 끝날지 모를 기사장아저씨의 말을 잘랐다.

《오늘은 내가 정한데로 가자니까. 내 습작하러 여러번 가본 숲인데...》

《알고있네. 이자 금방 말하지 않았나.》

얼른 아버지의 말꼬리를 붙잡은 기사장아저씨가 속뜰에 메운채로 벽에다 주련이 걸어놓은 습작풍경화들을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기슭엔 자그마한 개울도 있고 하루 휴식하기엔 그저 그만이라구.》

《아니 그보다는,》 하고 어찌선지 예명을 쳐다보던 아버지가 나무들이 짝 우거진 산이며 그리 넓지 않은 개울물이 흘러내리는 골짜기며 그리고 갖가지 모양의 나무들을 사생한것이 태반인 자기의 습작품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며 기사장아저씨에게 말했다.

《거기 산림보호원을 내 좀 아는데 참 좋은 사람이야.》

순간 예명은 문득 아버지가 왜 갑자기 숲에 가고 나섰을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예명의 아버지는 원래 온 가족을 휘둥하여가지고 산놀이, 들놀이 다니기를 꼭 좋아했다. 좋은 계절에 맞이하는 명절날은 물론 보통휴식날에도 저 재빛등산모를 쓰고는 음식그릇을 든 안해나 딸을 벗하여 숲이나 강기슭으로 나가곤했다.

그런 아버지였건만 최근들이 것처럼 좋아하던 들놀이니 산놀이니 한것을 잊은듯이 짝 그만두었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비렬한 《봉쇄》책동과 거듭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온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고있는 때에 숲놀이니, 들놀이니 당치 않는것이였다. 모자걸개에 평상시 쓰고다니는 중절모와 나란히 걸어놓고 들놀이 갈적마다 쓰곤하던 등산모도 채양이 주그려들도록 옷장 깊숙이 넣어둔 아버지였다.

그런 아버지가 갑자기 채양 주그려진 등산모를 꺼내쓰고 시집간 딸을 불러낸것도 모자라 이렇듯 기사장아저씨네 내외까지 든장질한것이 예명에게는 이상하게 생각되였다. 그제저녁 퇴근길에 예명이네 집에 잠간 들린 어머니한테서 일요일 아침 들놀이갈 준비를 간단히 해가지고 일찍 집에 오라는 아버지의 분부를 전해들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떠오르지 않은 의문이였다. 오래간만에 부모님들과 함께 산에 가서 하루를 보내게 되었다는 즐거움, 새가정을 이룬 다음 처음으로 조직된 그 가족적인 《행사》에 남편없이 홀로 가야 한다는 외롭고 쓸쓸한 기분때문에 그에는 생각이 미치지 못한것이였다.

이윽고 등산모를 단정히 눌러쓴 아버지가 책상 옆에 세워두었던 박스통(그림도구들을 넣어 메고 다니는 함)을 메고 일어섰다.

예명은 전에없었던 아버지의 그 행장이 또한 의문스러웠다. 로동과 휴식의 경계가 뚜렷한 아버지였다. 창작은 잡념이 없이, 휴식은 휴식답게!

그런 아버지여서 오늘같은 때 그림판을 메고나가는 일이 한번도 없었다. 가족들과 함께 맛나는 음식도 나누고 다정한 이야기도 주고받으며 수려한 산수풍경을 즐기다가 돌아올뿐이였다. 그런데 오늘은 나갔던 김에 풍경습작까지 하려는 모양이였다.

《허, 이거 오늘은 그림습씨를 시위할셈인가?》  
아버지의 여느때없는 그 산놀이행장이 호기심을 자아냈던지 기사장아저씨가 똥삼아 한마디 던지며 따라 일어섰다.

그러자 앉았을 땐 비슷해보이던 두사람의 키가 머리 하나만큼 차이났다. 기사장아저씨는 몸집이 다부진 대신 키가 작고 얼굴빛이 희었다. 예명의 아버지는 키가 큰 대신 몸이 좀 강마르고 얼굴빛이 검실검실했다. 눈도 열기로 번뜩이는 기사장아저씨의 눈엔 의욕과 정력이 넘쳤고 약간 찌프린것 같은 아버지의 눈에는 무엇인가를 음미해보는듯한 사색이 흘렀다.

《이젠 떠나도 되잖겠소?》

전실에 나선 아버지가 부엌에 대고 소리쳤다.

《예, 가면 됩니다.》

어머니의 공손한 대답과 함께 꽃보자기에 싼 음식그릇들을 든 두 어머니가 곧 나타났다.

떠날 때 예명이때문에 좀 지체되었다. 자기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것이었다. 하지만 끝내는 그도 따라서고말았다.

《너의 심정을 안다. 헌데 다른 사람들도 다 편한 마음으로 나선건 아니다. 난 재달전투때문에 할 일이 산더미같구, 우리 저 상급예보사동문 건반에 잘못낸 기상예보때문에 지금 고민중이다. 너의 부모들도 무슨 근심이 있을지 알겠니? 하지만 이제 숲에 가면 노여움도 고민도 걱정거리도 다 풀릴게다. 숲은 너그러우니깐.》

하며 잡아끄는 기사장아저씨를 이겨낼 힘이 없었던 것이다.

## 2

숲은 조용히 그들을 맞이했다.

숲위로 높이 떠오른 해빛은 뜨거웠으나 아직은 아침인데다 삼복이 지난 뒤라 한여름의 권태는 느껴지지 않았다.

숲에서는 싱그럽고 녹녹한 냄새가 풍겨왔다. 회나무, 물싸리나무, 개살구나무들과 새초, 생당숙, 노박덩굴 등 갖가지 이름모를 풀들이 짙 우거진데다 누릿누릿 황이 들기 시작한 키 큰 쪽가래나무들이 군데군데 무리로 자라오른 골바닥으로는 듬성듬성 널린 바위들과 수풀사이로 주절주절 골개물이 흘렀다.

예명이네는 그 개울을 따라 한동안 골안으로 걸어들어가다가 반듯하고 평퍼짐한 너럭바위앞에 멈춰섰다.

《자 여기다 퍼기요.》

앞장서 걷던 아버지가 일행을 돌아보았다.

끝모르게 깊어보이는 골안을 이윽히 들여다보던 기사장아저씨가 그냥 걸으며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좀더... 여긴 너무 초입이구만!》

《아니 이이상 들어가선 불을 피우지 못하오.》

《으-응?!》

《여기 산림보호원이 만들어놓은 입산규정이요. 우리두 습작나와선 여기서 밥을 덥혀먹군했소. 이제 불을 피우고 음식을 끓이노라면 보호원이 나타날거요.》

《아니 여기 제창 가마걸 자리두 있어요.》

보자기에 싼 비닐버치를 든채 너럭바위뒤로 돌아간 예보원어머니가 소리쳤다.

《저런, 빙 둘러앉을 <의자>두...》

모두들 너럭바위뒤로 돌아갔다. 개울가까이 세개의 큰 바위들을 세워만든 아궁이 보였다. 얼핏 보면 아무 돌이나 주어다 세운것 같은데 찬찬히 보니 땅을 깊숙이 파고 든든히 묻은데다 가마가 군둑거리지 않게 돌머리가 반듯하게 다듬어져 있었다. 너럭바위도 골밑에서 올라오면서 스쳐볼 때에는 원래부터 그렇듯 높이 떠있는 자연바위 같아 보였는데 가까이 다가가보니 누군가 밑에다 큰바위들 세개를 고이고 올려앉혀놓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밑에 좋은 네개의 넓고 긴 돌의자도 퍼그나 큰 바위를 굴러다 땅속깊이 박아넣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앉을수 있도록 우뚝부분을 다듬어 만든 것이었다. 그런데 그 모든것이 자연바위무리처럼 보인것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 될수록이면 인공적인 맛이 나타나지 않도록 애쓴 노력때문이었다.

인츰 눈길을 땔수 없는 그 창조물을 넋없이 바라보던 네사람의 시선이 조금 뒤에 서있는 예명의 아버지한테로 쏠렸다. 숲속으로 향한 들놀이객들의 발걸음을 초입에서부터 단단히 붙잡아세운 그 자연《식탁》이며 《아궁》이며를 그냥 바라보며 예명의 아버지가 말했다.

《보호원이 만들어놓은거요. 우리처럼 산놀이오는 사람들과 산열매나 약초채취를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말이요.》

《음- 고마운 보호원이구만!》

기사장아저씨가 고개를 끄덕거리며 그를 찾아 내려는듯이 숲속을 찬찬히 훑어보기 시작했다.

《아니 그렇게 곱게 서서 산구경만 하면 음식이 절로 익어서 입에 들어가우?》

어느새 너럭바위우에다 보집을 푼 예보원어머니가 명상에 잠긴듯이 서서 숲을 바라보고있는 남정네들쪽에 대고 큰소리를 쳤다.

《원래 나무불을 때는 산골에선 밥은 아낙네들이 짓지만 불은 남자들이 땀다우. 아침에 같이 일어나서 하나는 부뚜막에 앉구 하나는 부엌바닥에 앉아 오손도손 이야기랑 나누면서 말이오다.》

그러니 오늘은 그쪽에서두 가만히 앉아 잡술생각은 말구요 나무를 주어다 불때는 일을 말요. 그렇지 않으면야 왜 숲에 왔겠나요?》

《원 저렇게 덜덜거리니까 오예보를 낼밖에.》

안해의 지청구에 황황히 쫓기우며 어린아이 말대꾸질 하듯 저만치 가서야 한마디 내뱉는 기사장아저씨의 말에 예명은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

와 오늘들어 처음 소리내어 웃었다. 그러자 약간 비스듬히 다물려져있던 입술이 반쯤 열리면서 흰이가 가쁘히 드러나고 불이 팽팽히 행기우면서 원원 입가장자리에 귀엽성스러운 애기보조개가 움푹 패웠다. 아버지를 닮아 조금 가무스레한 살갗에 한결 생기가 흐르고 류달리 길고 끝이 까부장하니 휘여든 속눈썹이 반나마 가리우도록 눈이 가늘게 쪼프러지면서 금시 해빛을 담아안은 숲속의 샘물처럼 싱싱하면서도 부드러운 빛이 넘쳤다. 하지만 그것은 한순간, 자기의 불을 어색하게 다쳐놓고 돌아서던 남편의 모습이 눈앞에 밟혀오고 그 꺼칠한 손바닥감각이 뺨에 금시 느껴져오자 대뜸 속이 언짢아지면서 얼굴에 그려졌던 밝은 웃음이 간곳없이 사라져버렸다.

《예명아.》

숲그늘에 묻혀드는 샘물처럼 금시 서늘해지는 딸의 눈속을 불안하게 지켜보던 어머니가 그를 불렀다.

《넌 힘들텐데 먼델 가지 말고 버섯이랑 따면서 쉬거라. 아버지 말씀이 여기 싸리버섯이 많더러.》

예보원어머니와는 달리 생김생김처럼 성품이 부드럽고 조용한 편인 어머니의 세심한 녀려에 예명은 속이 물큰해졌다. 남편한테서 받고싶은 애듯한 녀려인 까닭에서였다.

예명은 그냥 서있다간 어머니앞에서 종시 눈물을 보일것만 같아 얼른 돌아섰다. 그리고는 차라리 아버지랑 같이 나무를 주어울 생각으로 그들이 사라진 골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숲은 거뭇거뭇한 그늘속에 묻혀있었다.

하늘을 짙 메우도록 높이 자라오른 참나무, 느릅나무, 물푸레나무들의 넓은 잎새사이로 찬연히 비쳐드는 선명한 해빛에 숲밑의 연약한 풀잎들과 잡관목잎새들에 맺힌 이슬방울들이 령롱한 빛을 뽐고있었다.

머리우 어디선가 꾸꾸... 꾸꾸꾸... 하고 산비둘기우는 소리가 났다.

예명은 고개를 쳐들었다.

어느 나무의것인지 알아볼수 없으리만큼 서로 짹 엉켜든 나무가지들과 넓은 잎들이 검푸릿한 천정을 이루며 높이 떠있다. 걸음을 옮기는데 따라 그 《천정》 째므로 가닥가닥 비쳐내리는 해빛이 부채살처럼 예명의 눈에 비쳐든다.

봄날의 아침처럼 선명하고 밝다!

깹, 깹!

별안간 터지는 아츠러운 새울음소리에 예명은 걸음을 딱 멈추고 숨을 죽였다.

순간적인 정적이 깃든듯하더니 날개로 허공을 가르는 소리가 후드득- 하고 들려왔다.

예명은 그쪽으로 열결에 눈길을 던졌다. 저 앞쪽의 개벗나무밑으로 몇개의 나무가지가 떨어져 내리는것이 보였다.

예명은 얼굴을 쳐들었다.

순간 길고 늘썩한 개벗나무가지가 흐느적거리하는 모양이 보이고 그에 따라 좁아졌다 넓어졌다 하는 푸른 창공으로 긴 날개를 퍼덕거리며 날아오르는 검은빛 산까치가 아득하게 울려다보였다.

예명은 별다른놈한테 간이 떨어지도록 놀란것이 어쩐지 우습게 생각되었다.

다시는 그렇듯 바보처럼 놀라는 일이 없게 나무들을 찬찬히 살피면서 한걸음한걸음 숲속으로 들어갔다. 한동안 그렇게 걷다가 밀둥이 굵고 가지와 잎이 무성한 쪽가래나무 한중간에다 매단 새둥지를 보았다. 곱게 고깔지붕을 해씩운데다 동그랗게 파낸 구멍밑엔 조그만 발판까지 나있는 것이 아이들 숨씨같았다.

(저 높은데 어떻게 올라갔을까?)

후드득- 하는 소리가 뒤에서 들리더니 검은새 빛바탕에 회고 붉은 반점들이 얼룩처럼 드문드문 박힌 큰 주먹만한 새 한마리가 긴 꼬리를 출씩거리며 그 발판우에 가볍게 날아와 앉았다.

아이적 동물원이나 중학교시절 어느 자연과목 교과서에 나오는 사진에서 본 기억이 있는 새였다. 이름은 떠오르지 않았다.

무척 곱게 생긴 그 새는 낮설은 숲의 침입자를 말곤말곤 내려다보더니 가볍게 돌아서서 구멍안으로 부리를 들이밀었다. 그제서야 예명은 그놈의 길고 단단해보이는 부리에 중동을 물리워 꿈틀거리는 길다란 벌레를 보았다.

딱따구리나 청더구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다시금 머리를 드니 새는 벌써 없어지고 둥지안에서 짹짹거리는 새끼새 울음소리가 아주 먼데소리처럼 들려왔다.

예명은 방그레 웃었다. 생명의 의미에 대한 저로서도 딱히 설명할길 없는 그 어떤 심원하고도 야릇한 생각에 마음이 즐거워진것이었다.

예명은 시선을 줄곧 숲우에 준채 걸음을 옮겼다.

그런 새둥지들이 여러개 보였다. 주변학교들이 많아 가꾸는 《소년단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얼마쯤 걷다가 예명은 가슴에 두손을 모아붙이며 환성을 올렸다.

《어마나, 저거... 머루!》

골짜기 오른편 기슭, 키높이 자란 소나무를 타고오른 머루덩굴을 본것이었다. 아니, 불그레한 머루넉출과 넓고 푸른 잎새사이로 빠끔히 들여다보이는 까만 머루송이들을 본것이었다.

예명은 검은보라빛의 머루송이들에 시선을 건준채 허둥지둥 그리로 달렸다.

그러다가 묵은 새초줄기를 디딘 발이 쭉 미끄는바람에 수풀밑으로 흐르는 개울물에 쭈뼛 빠졌다. 첫순간 발목에 차거움이 느껴지고 이어 그 찬기운이 발전체를 적시더니 온몸이 서늘한 폭포



아래에 선듯 시원해졌다.

예명은 어쩐지 상쾌해지는 감정을 달게 느끼며 물에 적서진 발을 꺼냈다. 굽에 하얀 테를 두른 편리화며 보라빛 양말이며 다 젖어버렸다.

그래도 마음은 그냥 상쾌했다.

숲에 들기전에 그런 봉변을 당했더라면 속으로 얼마나 짜증을 냈을것인가. 그 모든것을 죄없는 그이, 남편한테 밀어붙이며... 과연 숲은 기사장아저씨의 말씀대로 인간들을 그렇듯 너그럽게만 들어주는 마술적인 힘을 가지고있는것인가.

예명은 발을 옮길적마다 신발안에서 쿵쾅쿵쾅 개구리우는 소리가 나는것을 재미있게 들으며 머루덩굴을 향하여 다가갔다. 하지만 그밑에 이른 예명은 그만 실망해버렸다. 아래쪽에서 쳐다볼적에는 그리 높지 않아보였는데 밑에 와보니 머루송이들이 그의 키 두배만큼 높은곳에 대롱대롱 매달려있었던것이다.

예명은 그것을 따보려고 헛되이 머루넉출을 잡아 흔들기도 하고 서투르게 돌팔매질을 해보기도 하다가 그만 주저앉고말았다.

기운이 진한것이였다.

남편이 같이 왔더라면 하는 생각이 문득 떠오르면서 그 먼 출장길을 부득부득 가버린 그의 처사가 매정하게 생각되였다.

인민학교때 녀선생님이 들려주던 우화생각이 났다. 노루, 산양, 토끼네들은 총총이 총을 쏘고 올라서 돌배를 따는데 욕심많은 메돼지는 저혼자 다먹으려고 높이뛰기를 하다가 궁둥이만 깨먹고 끝내 한알도 못따다는 이야기였다.

예명은 이렇듯 머루덩굴밑에 주저앉아 흰가루막을 뽀얗게 쓴 보라빛의 먹음직스런 머루송이들을 군침을 삼키며 쳐다보지만 해야 하는 자기의 처지가 꼭 그 메돼지같이 가공하게 생각되였다.

불시에 눈물이 핑그르르 돌았다. 지금 자기곁에 없는 그 사람에 대한 고까운 생각이 까닭없이 더해진것이였다. 금시 눈물방울이라도 떨어질것 같았다. 그래 얼굴을 쳐들다가... 미끈하게 자라오른 불그스름한 소나무줄기에 매달려있는 긴막대기에 시선이 멎었다.

(저걸로 따면...)

얼른 일어서 그리로 갔다. 허리만큼한 높이로 드리워있는 막대기아래끝을 잡아당겼다. 옷끝에 소나무줄기에서 뿔처럼 뻗여져나온 웅이에 걸려있었다. 벗기면서 보니 그렇게 걸여놓을수 있도록 누군가 막대기의 굵은쪽 끝에다 쇠줄로 걸끈을 만들어놓은것이였다. 길고 미끈한 물푸레나무 막대기인데 걸끈을 매놓은 옷끝은 손에 쥐기 적합한 굵기이고 아래끝은 엄지손가락굵기만했다.

예명은 굵은쪽으로 막대기를 돌려잡다가 가느다란쪽 끝에 못같은것이 박혀져있는것을 보았다. 찬찬히 보니 두개의 못이 조금 간격을 두고 박혀져있었다.

(이사이에 머루송이꼭지를 넣고 비틀면...)

더 생각할 사이도 없이 넉넉 바위우에 올라선 예명은 막대기 옷끝을 머루덩굴밑으로 올리뻔했다. 두가닥의 못사이에 그중 큼직해보이는 탐스러운 머루송이꼭지를 끼우고 땀이나게 잡아비틀었다. 그러자 꽤 높아보이던 머루송이가 툭링 하고 힘없이 땅에 떨어졌다. 고개를 숙이니 방금전까지만 해도 머리우에서 조롱하듯 예명을 내려다보던 머루송이가 예명이 딛고선 바위밑 부근부근한 가랑잎우에서 쳐다보고있었다. 얼른 바위에서 뛰어내려 우선 한알 먹고싶은 생각이 도는것을 가까스로 누르며 고개를 쳐들었다. 한결같이 탐스러운 머루송이들이 아주 가깝게 쳐다보였다. 예명은 자기의 눈길이 건준 머루송이꼭지를 막대기의 못사이에 끼우고 또다시 살그머니 잡아비틀었다. 툭링... 떨어져내렸다. 다음 또 다음... 거퍼 대어섯송이를 따내리던 예명은 더는 먹고싶은 마음을 이길 힘이 없어 막대기를 던지듯이 놓고 바위에서 뛰어내렸다. 그리고는 맨처음 따내린 머루송이를 찾아든다음 우선 한알을 따서 입에다 넣었다. 허끝에 닿는 차갑고도 말큰한 감을 기분 좋게 느끼며 지그시 힘을 주어 깨물었다. 새콤하면서도 달고, 달면서도 조금 뽀은듯한 맛이 느껴지며 절로 눈시울이 쫄뜨려졌다.

온몸을 사로잡는듯한 그 맛에 훌쩍 반해버린 예명은 연송 허넘어가는 소리를 내며 한알 또 한알... 한송이 또 한송이 정신없이 먹어댔다. 참 얼마나 맛있는 열매인가, 남모르는 숲속에서 절로 자라는 이 머루는...

새삼스러운 생각으로 고개를 쳐들어 머루덩굴을 올려다보던 예명은 파아란 하늘을 배경으로 높이 들린 덩굴밑에 주렁주렁 매달려있는머루송이들가운데서 유난히 한들거리다가 금시 떨어져 내리는 머루송이를 보았다. 얼굴에라도 떨어질듯싶어 목을 움츠리며 고개를 돌렸다. 어느새 올라왔는지 예명이 던져버린 짝지말나무를 든 아버지가 바로 그의 뒤에서 예명이 하던식으로 머루를 따고있었다. 아버지의 뒤에는 마른 나무가지를 한아름 안은 기사장아저씨가 서있었다.

《어서 먹어라.》

예명을 굽어보며 부드럽게 한마디 던진 아버지가 마른 나무가지를 안은채 그냥 서있는 기사장아저씨를 돌아다보지 않은채 말했다.

《기사장동무도 그 나무를 내려놓고 좀 먹어보오.》

했으나 아버지의 손에서 요술을 부리는 물푸레나무가지끝만 바라볼뿐 그냥 서있던 기사장아저씨가 조용히 물었다.

《그 나무는 윤형이 마련해줬던거요?》

《아니요. 여기 보호원의 창안품이요.》

《보호원!》

예명은 아버지의 입에 벌써 몇번째 그 이름이



오른다는것을 느끼며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아버지는 그냥 머루를 따며 어째선지 예명을 상대하는 말투로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머루란 원래 눈서리를 맞고 절로 떨어진걸 주어먹어야 제맛이지. 현대 어디 사람들이 그때까지 기다려주니. 그래 보호원동문 이렇게 높은 머루덩굴이나 다래덩굴밑에다가 이런 도구들을 만들어놔지. 그래야 성급한 사람들이 머루덩굴을 통채로 끌어내리거나 덩굴이 타고올라간 나무가지를 마구 찍어내는 폐단이 없어질게 아니냐?》

예명은 머루송이를 입에 가져다댄채 먹음됨을 앓고 서서 이제껏 신세를 툭툭히 지면서도 머루를 주어먹는 정신에 무심히 스쳐버렸던 짝지발나무를 유심히 바라보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다. 그러면서 보호원의 모습을 그려보려고 저도모르게 속을 썼다. 머루덩굴밑에 앉아 짝지발나무를 만드는 모습이 어렴풋이 그려졌다. 그런데 그 모습은 숲에 대한 어느 영화에 나오는 잘 생긴 배우의 모습이었다.

(아니 그렇게 잘난 사람은 아닐거야.)

예명은 도리머리를 저었다.

(보통의 수수하고 늙은... 얼마나 늙었을가? 아버지만큼? 아니 더 늙었을거야.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존경을 담아 말씀하실 땐...)

예명은 입에 가져다댔던 머루를 끝내 먹지 못한채 손수건을 꺼내여 싸면서 아버지를 쳐다보며 물었다.

《아버지, 그 보호원이 몇살이나 났어요?》

《뭐? 이제 좀 있으면 여기 나타날게다. 그때 만나보렴. 나도 오늘은 그를 좀 속사하려고 그림판을 메고왔다. 이때까지 그가 가꾸는 숲을 많이 그렸지만 그를 화판앞에 붙들어앉히지 못했거든. 째이 없다면 어디 말을 들어줘야지.》

예명은 전에없이 그림도구를 메고 떠나온 아버지의 처사가 그제서야 이해되었다. 그러자 이처럼 풍만한 대자연을 가꾼 숲의 주인공을 바로 그 대자연속에다 앉혀놓고 속사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졌다.

《자, 이제 그만 가지 않겠나? 저아래서 기다리겠는데...》

마른 나무가지들을 내려놓고 말없이 머루송이들을 주어뭇던 기사장아저씨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래쪽에서 예보원어머니의 목소리가 짹짹 울려왔다.

《예명아- 뭘하니? 음식이 다 식는데.》

### 3

간단히 준비해온 음식들치고는 꽤 성찬이었다. 흰 종이를 편 너럭바위 한가운데 아직도 보글보글 끓는 곱돌장이 두개 놓여 있고 그앞으로 고기볶음이며 부루, 쪽갓, 오이생채, 빵, 떡, 밥 등속들이 빈틈없이 놓였다.

그사이 태양은 하늘높이 떠올라 길숨길숨 드리

누웠던 나무그림자들이 제 그루터기밑으로 둥그렇게 모여들었다. 나무있으며 풀있들에 매달려 반짝거리던 이슬방울들은 간곳없이 다 말라버리고 골짜기 아래쪽으로부터 알릴듯말듯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눈을 들면 골짜기 저아래 입구로 지나간 넓은 포장도로가 보이고 그 너머로 한창 벼가 우거진 넓다란 논벌, 그 논벌이 끝나는곳에 해빛에 번쩍거리며 흐르는 큰 강이 있고 그 강건너로 멀리 청회빛의 숲, 골짜기, 푸른 하늘...

《애, 넌 뭘 보니?》

꾸지람처럼 들리는 어머니의 부름에 고개를 돌리던 예명은 자기앞에 놓인 밑굽이 넓은 잔에 반쯤 찬 빨간 액체를 보았다.

《어서 들려무나.》

어머니가 넘려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 난 못해요.》

《일없다. 이건 술이 아니다. 널 위해 특별히 가지고온 오미자단물이다.》

예명이 바빠하는 모양을 재미있는 눈으로 바라보던 기사장아저씨가 아직도 흰김을 문문 피워올리는 가마쪽으로 천천히 다가가며 말했다. 그의 술잔, 수저는 바로 그 가마옆의 너럭바위우에 따로 놓여있었다. 오늘의 일체 《부억일》을 자진 말아나선 것이었다.

그는 맑은 술이 넘치도록 부어져있는 자기의 잔을 높이 쳐들고 좌중을 둘러보며 축배사라도 하려는듯 입귀를 실룩거렸다. 하지만 말머리가 잘 잡히지 않는 모양인지 선뜻 입을 열지 못하는 데 맞은편에 앉은 그의 안해가 빨간 단물이 든 잔을 제껴 쳐들더니 먼저 운을 뗐다.

《제가 먼저 한마디 합시다.

집에 있을 땐 쉬는날이면 웃사람, 아래사람 다 청해놓고 이 로친넬 달달 볶던 저 령감이었수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부억일>을 칩 도맡아나서니 난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겠수다. 사실 집에서야 쉬는날이나 명절날이 우리 녀자들한테 제일 <고생겨운> 날이었지요.》

《허허, 그래 그래.》

기사장아저씨는 술잔을 그냥 들고 서서 웃었다.

《난 그래서 이 잔을 오늘 하루나마 우리 녀자들을 호강시켜준 우리 남편들을 위해서 들자 합시다.》

《아니, 아니.》

창공높이 떠오른 한낮의 태양이 담겨 진 술잔을 들여다보며 흡족한 얼굴로 안해의 《연설》을 듣던 기사장아저씨가 도리머리를 저었다.

《구체적으로는 이 숲으로 우릴 불러낸 우리 운형을 위해 들어야지요.》

《가만!》

예명의 옆에 앉아 기사장네 내외간이 주고받는

《재담》을 재미있게 듣던 아버지가 손을 내흔들었다.

《우리에게 오늘의 이 즐거운 하루를 배려하여 준 건 숲이요.》

《숲소. 고마운 숲을 위하여!》

《숲을 위하여!》

모두들 잔을 높이 추켜들었다. 맑은 유리잔에서 해빛이 반짝 부서졌다.

예명은 단물이 든 잔을 쳐들다말고 생오이 한 쪽을 집어서 조용히 깨물었다. 새콤한 맛이 입안을 감돌았다.

기사장아저씨가 예명의 아버지에게 물었다.

《저 보호원은 왜 오지 않소? 윤형의 그 보호원 말이지요?》

《이제 올거요.》

흔연스레 대답하고난 아버지는 숲 어딘가를 잠시 바라보더니 한참후 조용하게 말을 이었다.

《지금쯤 이 숲 어느 구석에선가 나무들을 가꾸고있을거요.》

《그리고 숲을 지키겠지요.》

기사장아저씨가 받는 소리였다.

순간 예명은 속이 몽클 찢어들었다.

어째선지 가슴이 아파났다.

예명은 축축히 젖어드는 눈길을 들어 설레이는 숲너머 푸른 공간을 바라보았다. 수리개갈기도 하고 산매갈기도 한 새 한마리가 숲우에 높이 떠올랐다가 청청한 침엽수림이 우거진 저편 산너머로 포물선을 그으며 사라졌다. 그러자 또다시 구름한점 없는 하늘...

《애, 예명아.》

누군가 찾는 소리에 예명은 숲우 공간에 주었던 시선을 내리꼈었다.

한해치고 삼백에순다섯날 전부를 공장지붕 밑에서 살다싶이하는 탓으로 다부진 몸집에 어울리지 않으리만큼 흰 얼굴이 벌기우리해진 기사장아저씨가 예명을 바라보며 흥분에 겨운 얼굴로 말했다.

《지금 네 심정을 안다. 넌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그를 생각하지? 그도 지금 너를 생각하고있을 거다.》

시라도 읊듯 조용하게 울리는 그의 목소리에 어째선지 가슴이 젖어드는것을 느낀 예명은 불쑥 흐려드는 눈길을 들어 숲을 바라보았다.

풀짜기아래로부터 알릴듯말듯하게 불어오던 바람이 조금 세지면서 숲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머리우에 떠올랐던 태양이 차츰 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나무밑에 동그랗게 모아불었던 그림자들이 동쪽으로 길어지기 시작했다. 부지런히 숲속을 껴질러 날던 새들도 지친듯 잠잠해지고 요란스레 씨르륵거리던 풀매미들의 울음소리도 멎어버렸다. 바위짚을 구울러내리는 골개물소리만이 숲의 부드러운 설레임소리와 기이한 대조를 이루

며 유난하게 들려왔다.

《우리 조금 걷지 않으려니?》

벗어놓았던 등산모를 찾아쓴 아버지가 움쭉 일어나서며 말했다. 예명이 따라 일어섰다.

《뒤겨들은 나한테 말기구 기사장아주버니네두 버섯이랑 산열매랑 같이 따세요. 오래간만에 같이 숲에 동부인해 왔는데...》

예명의 어머니가 예보원어머니를 떠밀며 말했다.

《정말 그럴가.》

하면서도 예보원어머니는 미안한 표정으로 예명의 어머니를 바라볼뿐 선뜻 일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남편과 함께 숲속을 걸어보고싶은 욕망은 누를길 없는듯 걷어붙인 예명의 어머니의 희고 부드러운 팔을 붙잡고 흔들며 《하긴 형님네야 늘한 직장을 같이 다니는거.》 하고는 움쭉 일어섰다.

기사장아저씨네는 옷쪽 산옆으로 난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바람이 더 세진 모양 숲의 설레임소리가 한결 완연해졌다. 나무들의 그림자도 동쪽으로 더욱 길어진것 같았다. 했으나 숲속은 여전히 무덤고 해빛은 한층 따라왔다.

조금 앞서가는 어른들을 따라 한참 걸던 예명은 아무래도 홀로 뒤에 남은 어머니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어 돌아다보았다. 개울가에 앉아 음식 그릇들을 씻는 어머니의 모습이 뻔히 바라보였다. 흰 사기접시를 열셋정 쫓다가 무슨 생각엔지 이쪽을 향하여 얼굴을 든 어머니가 그냥 서있는 예명에게 손짓했다.

《내 인차 따라가마.》

그제서야 예명은 마음이 홀가분해지는것을 느끼며 돌아섰다. 세사람은 숲그림자와 해빛조각들이, 락엽이 두툼하게 깔린 땅바닥에 겹고 누런 얼룩그물을 늘인 골짜기안쪽으로 벌써 퍼그나 깊이 들어갔다. 예명은 한껏 독이 올라 검푸르러진 새초, 엉겅퀴, 산딸기넌출파위들이 짙 우거진 사이로 좁다랗게 난 돌서덜길로 조심히 발을 옮겨디디며 달려갔다. 한참 그렇게 달려서야 큰 재빛 바위뒤에 뿌리를 박고 자란 아름드리거목앞에 서있는 아버지네를 따라잡았다.

그들은 옆에 다가선 예명의 기척도 못느끼는듯 그냥 나무밑등만 바라보고있었다.

《뭘 그리 보세요. 아버지?》

예명은 그들의 눈길이 건주어진 나무밑등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러다가 미끈하고 굵은 나무밑둥아리 한중간에 난 큰 헌데자국 같은것을 보았다. 두세걸음 다가가 살펴보니 그것은 나무속에 깊숙이 들어박힌채 굳어져버린 콩크리트타입물이였다. 그렇게 된지 오랜 모양으로 그새 자란 껍질이 콩크리트타입물우로 넘쳐나 시커먼 종치자국을 짙 물고있었다.

예명은 놀란듯한 눈길을 들어 아버지를 보았다.

그제서야 예명의 존재를 알아본듯 얼핏 그를 바라본 기사장아저씨가 쓸쓸한 어조로 말하는 것이었다.

《누가 도끼로 찍은 자리를 이렇게 처치해주었구나.》

그의 목소리가 별스레 가슴을 파고드는것을 뜨겁게 느낀 예명은 무릎을 꿇고앉아 상처자국을 살펴보며 조용히 물었다.

《이게 무슨 나무예요. 아버지?》

아버지는 나무를 그냥 쳐다보면서 말이 없고 기사장아저씨가 대신 입을 열었다.

《피나무다. 가구감으로도 좋지만 꿀벌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무데...》

《꿀벌들이 왜 좋아해요?》

《이 나무가 피우는 꽃으로 일등꿀을 만드니까...》

역시 아버지대신 기사장아저씨가 대답했다.

예명은 아버지의 침묵을 이상하게 생각하며 나무를 찬찬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밀등아리에 상처를 입은채 자란 줄기가 예명의 키높이에서 세가닥으로 갈라져오르다가 다시 몇 갈래씩 증가지를 치고 거기에 술한 잔가지들이 뻗고 퍼그나 넓고 두터운 잎을 펼쳐 하나의 커다란 언덕을 이룬 나무였다. 예명이네는 지금 그 푸른 언덕속에 묻혀있는셈이었다.

예명은 머리를 쳐들고 나무의 우듬지를 한동안 바라보다말고 다시금 상처자국을 바라보며 혼자 소리처럼 말했다.

《그런데 저 나무를 찍기는 누가 찍고 때놓기는 누가 했을까요?》

《찍은 작자는 모르겠다만 뎌 사람은 보호원동무다.》

퍼그나 오랜 침묵끝에 예명의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깊은 회억에 잠긴듯 어조가 푸근하게 들렸다.

《한때 난... 내가 그리는 그림에 신심을 못가지고 고민한적이 있었지. 유명한 풍경화가 될 꿈을 품고 뛰어들었지만 날이 갈수록 점점 성공이 묘연해지자 날마다 화관을 메고 숲을 찾아다니면서도 신심을 잃고 망설이던 어느날 바로 여기서 보호원동물 만났다.

그때엔 이렇게 숲이 울창하지 못하고 저 푸른 이깔나무숲이랑 잣나무숲이랑 허리나 겨우 치는 어린 나무뿐이었는데 유독 이 피나무만은 키를 훨씬 넘게 자란 큰 나무였다.

그날도 나는 확신은 없지만 몸에 붙여놓은 습관을 버릴수가 없어 화관을 둘러메고 이 숲으로 나왔다. 별로 그리고픈 대상이 없어 산보삼아 걷다가 이 나무앞에서 보호원동물 만났다. 아니, 만났게 아니라 누군가 찍다만 저 나무의 상처를 <

치료>해주고있는 그를 보았다. 몰탈을 이겨가지고 깊이 난 상처자국을 땀해주고있었는데 얼마나 일에 전념했는지 내가 뒤에 다가선것도 모르더구나.

<누가 나무를 그렇게 찍었습니까?>

놀래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묻자 그는 하던 일손을 멈추고 나를 얼핏 쳐다보았는데 그의 눈언저리가 축축히 젖어있는게 아니겠니. 분명히 그는 울고있었다. 울고있었어. 그것은 뜨거운 사랑을 안은 심장만이 흘릴수 있는 눈물이었다. 그 눈물이 얼마나 내 가슴을 파고들던지... 나무의 상처자국에서 줄줄 흘러내리는 진이 마치 그의 몸에서 흘러내리는 피처럼, 아니, 아니다. 내몸에서 흐르는 피같이 아프게 여겨지면서 이 사람처럼 이 숲을 아니 조국앞에 지닌 자기의 의무를 심장을 다바쳐 사랑한다면 성공못할게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가슴을 때리는게 아니겠니? 심장으로 사랑하면 그 무엇이든 아낌없이 바칠수 있고 아낌없이 바치면... 언제든지 목적을 이루는 법이 아니겠니? 그래서 붓을 버리지 않고 나의 숲이라고 할수 있는 풍경화창작에 전념하며 오늘까지 왔다. 글썽 그 보호원동무가 가꾸어놓은 이 숲에는 비할바가 못되지만 말이다.》

이야기를 끝내며 나무에서 물러선 아버지는 산중턱을 향하여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기사장아저씨와 예보원어머니 그리고 예명은 못박힌듯 그자리에 서있었다. 아버지의 이야기가 준 여운은 그만큼 큰것이었다.

예명은 저 나무밑동의 상처를 불안고 울고있는 산림보호원의 모습을 금시 눈앞에 보는듯했다. 그옆에 화관을 멘채 서서 자기를 심심히 반성해 보고있는 아버지의 젊은 모습도 선히 보였다.

《애, 이젠 그만 가자꾸나. 너의 아버지가 기다리신다.》

예보원어머니가 잡아끄는바람에 몇걸음 옮기던 예명은 자기도 알수 없는 힘에 이끌려 다시금 나무를 뒤돌아보다가 《아!》 하고 탄성을 울리며 우뚝 멈춰섰다. 아래서 올라오며 볼 때는 몰랐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니 아버지의 방에 제일 오래 걸려있던 그림속의 나무였던것이다. 아버지는 자기가 그린 풍경습작중에서 그중 잘된것을 벽에다 액틀에 끼우지 않은채 걸어놓았다가 새로운 습작품이 나오면 바꿔걸곤했는데 저 나무를 그린 그림이 자주, 제일 오래동안 걸려져있곤했다. 예명은 그 그림들을 늘 보면서 성장했지만 그 그림속의 나무에 것처럼 깊은 사연이 깃들어있는줄은 여직 몰랐다. 그런데 참, 하늘을 덮을만치 무성한 저 한그루 나무는 얼마나 뜻깊은 이야기를 전하며 넓고 싱싱한 잎을 살레는것인가!

예명은 아버지를 따라 달음질하면서도 어떤 사람이 나무에다 저런 상처를 내어 보호원을 울렸을가 하는 생각을 버릴수가 없었다. 제나름으로

그 나쁜 사람의 모양을 그려보려고 했다. 불현듯 언제인가 반듯한 콩크리트포장길위에 또렷이 찍혀진 웬 사람의 발자국앞에 멈춰섰던 생각이 났다. 그때에도 예명은 아직 채 굳지 않은 포장길을 잘못 밟아 그렇듯 영영 지울수 없는 흠을 남긴 사람이 누굴까? 그 불행한 사람은 지금 자기의 그 자취앞에 한 처녀가 멈춰서서 귀먹은 편잔을 보내고있다는것을 알거나 할까 하고 생각했었다.

《사람이란 참!》

예명이 다가갔을 때 기사장아저씨가 예명의 얼굴앞에 낮추 드리운 칠판출을 쳐들어올려주며 아버지와 하던 이야기를 계속했다.

《난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구만. 지금 이 순간에 말이요. 어떤 사람이 언제인가 잘못 찍은 나의 발자국앞에 멈춰서서 나를 욕하고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말이요. 우리가 저 나무를 찍다만 사람을 얼굴도 이름도 모르면서 욕하듯이... 그건 참 얼마나 불행한 일이요.》

《아버지.》

예명은 무슨 말인가를 꼭 하고싶어 아버지를 부르며 걸음을 멈추었다. 아버지도 멈춰섰다. 그리고 깊은 감동에 겨운 딸의 눈속을 이윽히 들여다보았다.

기사장아저씨와 예보원어머니는 예명네 부녀를 세워둔채 천천히 앞서 걸었다.

예명은 멀어져가는 그들의 뒤모습에 눈길을 견주고있으나 실은 눈앞에 언뜻언뜻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그 누군가의 《자옥》들을 보고있었다. 가래나무의 새둥지, 머루덩굴밑의 짝지발나무, 피나무의 상처자국... 그것들은 예명에게 무엇인가 말하고있었다. 예명의 심장은 분명 그것을 듣고있었다. 예명은 그것을 말하고싶었으나 도저히 언어화 해낼수 없었다.

《예명아.》

예명을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며 아버지가 말했다.

《너 말이다. 오늘 함께 오지 못한 남편을 곁잡게 생각하는게 아니냐?》

《아니, 아니예요.》

예명은 황급히 부정하면서도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어쩔수 없었다. 아침에만 그렇게 물었어도 예명은 그렇다고 대답했을것이였다. 그러나 숲에서 보낸 이 몇시간동안 남편에 대한 그의 생각이 아니, 남편에 대한 그의 감정이 달라졌던것이다. 예명은 아버지에게 그것을 터놓고싶었으나 그것이 무엇때문인지는 딱히 알수 없었다.

아버지는 예명의 팔을 꼭 잡고 걸음을 옮기면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너는 남편이 하는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일도 한순간에 그 의의가 다 이해되는 법은 없다. 이렇게 숲을

가꾸는 일이나 온 조국땅을 메주밭듯하며 새 광맥을 찾는 일인 경우엔 더욱 그렇다. 그런데 난 생활도 무대배우의 눈으로만 보는것 같다.》

예명은 비약이 심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인차 이해할수가 없었다. 말쑥의 취지는 어렵듯하게 안겨왔으나 그 뜻은 곧 파악할수가 없었다.

예명은 아버지와 떨어져 걷기 시작했다.

그이 하는 일과 배우의 눈-

예명은 그것을 생각해보고싶었다.

그러나 자기 생각에 깊이 몰힐수가 없었다. 뒤거둠을 끝낸 어머니가 따라왔던것이다.

## 4

어머니를 아버지한테로 앞세워 보내고 맨뒤에 조금 떨어져 산중턱으로 오르던 예명은 또다시 마음에 엄습해오는 까닭모를 우수와 호젓함에 왜 그런지 울고싶어졌다. 하지만 그 호젓함, 그 울적함의 성격은 아침의 그것과 확실히 달랐다. 아침에는 남편에 대한 야속함과 불만감에서 생기던 감정이였지만 지금은 자기자신에 대한 불만으로 부터 오는 감정이였다. 예명은 그것을 똑똑히 느꼈다. 그러자 홀로 있고싶어졌다. 어디 조용한곳을 찾아가고싶었다.

예명은 산바람이 시원스레 빠지는 나무그늘밑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늙은이들에게 외롭고 쓸쓸한 자기의 존재를 보일가봐 겁내는듯 조심히 그들의 걸을 지나 산등성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이크, 이거 옷에 뭔가 자꾸 떨어지누만.》

《허허, 거 잣나무밑에 바투 앉지 말라구. 이렇게 더울 땀 송진이 절로 녹아내리거든.》

《이거, 잣나무인가? 소나무 아니구...》

《여긴 다 잣숲이야. 왜 안보이나. 저 가지꼴의 잣송이들이?》

아버지와 기사장아저씨가 주고받는 말소리를 꿈속에서처럼 들으며 산마루에 오르니 밑에서 울려다볼 때와는 달리 꽤 넓은 풀밭이 나졌다. 멀리 번두리로 푸르게 자라오른 잣나무숲을 울바자처럼 두르고 조용히 누워 한낮의 잠을 자고있는 풀밭, 아니 허리를 치게 자란 풀들을 찬찬히 살펴보니 풀이 아니라 약초들이였다. 흰빛, 보라빛의 도라지꽃, 송이가 크고 색조가 진한 붉은빛의 작약, 꽃은 지고 잎이 무성한 삼주, 삼지구엽초...

예명은 중학시절에 배운 자연지식을 깡그리 되살려가며 몇가지 약초들의 이름을 가까스로 상기해냈다. 헌데 그러한 망각의 두터운 채무지속에서 소녀시절의 기억을 되살려내기가 재미있었다. 어찌보면 자기에게도 어느덧 망각이라는것이 생겼다는것이 자못 흐뭇하게까지 생각되는것이였다.

가슴뿌듯이 차오르는 흥분을 느낀 예명은 갖가지 꽃들이 더미더미 피어있고 그 꽃더미우로 희고 노랗고 알록달록한 나비들이 눈이 아물거리도



록 분주히 날아다니는 약초밭 가운데를 와삭와삭 헤쳐나가기 시작했다. 숨차도록 힘껏 달려 땀뭍한 구름우에 올라선 예명은 문득 서서 자기를 둘러싼 숲과 풀과 하늘과 그리고 숲너머 저아래로 멀리 내려다보이는 자기네의 낮익은 도시와 푸른 산기슭에 들어앉은 이름모를 농촌마을들, 시내변두리에 자리잡은 공장지구(기사장아저씨네 기계공장이었다.)며 산기슭을 따라 뻗어간 두줄기의 은빛레루며 흰 댕기오리같은 강들을 바라보았다. 아, 얼마나 좋은가. 숲은… 줄을 맞춰 심은 아름드리거목들이 하늘을 짝 가리우고 갖가지 식용, 약용 식물들이 땅을 뒤덮은 숲, 그 무엇으로써도 억누를수 없고 숨길수 없는 생명력으로 충만된 숲, 힘과 생기와 정열을 안고 꿈틀거리는 숲, 너무도 생명의 힘이 넘쳐서 그 어떤 권태감마저 느껴지는 한여름의 숲…

예명은 부지중 자기의 몸에 깃든 새로운 생명을 의식하였다. 남보기에 아직은 별다른 느낌이 없는 허나 예명엔겐 벌써 오래전에 그 존재가 의식되고 날마다 커가는 생명…

이 애 이름을 숲 아니, 자연이라고 지어볼렸으면… 아니, 그렇게 지어부르자. 이름을 뭐 꼭 아버지가 지어부러야 되나?

속으로 가만히 불러보았다.

《자연아, 김자연…》

눈부리가 시큰해지면서 눈앞의 약초밭이며 숲이며 숲너머의 푸른 공간이 어릿어릿해왔다.

꾸꾸… 꾸꾸꾸…

저 골짜기아래서 들은 기억이 있는 산비둘기울음소리가 발부리에서 들려왔다. 예명은 숨을 죽이고 서서 시선을 떨구었다. 몇걸음앞 무더기무더기 자란 새초들사이로 앙기작앙기작 걸어가는 산비둘기를 보았다. 두마리였다. 앞의놈은 뒤의놈을 기다리는듯 심은지 이삼년 돼보이는 어린 잣나무밑에 우두커니 서있고 뒤의놈은 앞의놈이 기다리는데도 목은 새초줄기밑에 부리를 들이밀고 제 먹을것을 다 쪼아먹으며 천천히 따라가고…

예명은 불쑥 남편생각이 났다. 꽤뜩하여 새침덩어리로 변해버린 안해의 비위를 거슬릴가봐 겁내는듯 조심조심 출장배낭을 꾸지던 그…

아, 왜 그이를 데리고오지 못했을까? 한번 더 줄랐더라면, 5분만 더 달라붙어 때를 쓰고 설복했더라면 그도 마음이 움직였을걸… 아버지의 말대로 난 정말 5분이 모자라는 녀자야.

예명은 아버지한테서 그 꾸지람을 듣던 일이 생각키웠다. 그 일은 결혼이튿날로 광석배낭을 꾸져메고 부득부득 떠나간 남편이 한달가까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온 그날밤에 있었다.

글쎄 결혼 다음날로 저 혼자 홀 가버렸다가 이제야 돌아오는건 뭐람?

때가 때니만치 첫나들이니 뭐니 한것은 예명도 바라지 않았다. 그러나 처녀의 귀중한 모든것을

소중히 간직한채 손꼽아 기다리던 행복의 첫뚜껑만 슬쩍 떼놓고 가버린것은 리해할수 없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예명은 홀로 온 적도 몇번 되었다. 울자고 해서 온것은 아니고 그렇게 고까운 생각을 달리고나면 절로 눈곱이 젖곤했다. 그리고 그런때면 홀류트연주에서도 허점이 많이 생겼다. 《예명동무, 연주에서 너성적인 부드러운 맛은 왜 싹 없어졌소? 어째서 그리 신경질적인가 말이요?》 하고 지휘자는 엄하게 지적하곤했다. 그러면 또다시 곱배하여지는 고까움, 야속함…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남편이 한달만에, 그것도 남다 자는 깊은 밤에야 돌아오자 예명은 문을 열어주고는 그가 힘겹게 메고 서있는 배낭을 받아줄 생각도 않고 께하여 돌아서버렸다. 잔뜩 끝이 난 젊은 안해의 기분을 더 거슬릴가봐 겁내는듯 조심히 방에 들어온 남편은 소리를 죽여가며 행장을 풀고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는 밥먹자는 소리도 못하고 저 혼자 침대우에 올라가 잠자리를 펴는것이였다.

방 한구석에 그런듯이 앉아서 남편의 그 모든 거동을 지켜보던 예명은 그토록 무던한 그이한테 끝을 낸 자신이 왜 그런지 미워져 소리없는 울음을 터뜨리고야말았다. 그리고는 다음날 아버지를 찾아가 밤새 있는 사연을 솔직히 터놓았다. (이런때면 예명은 어머니보다 아버지를 찾곤했다.)

아버지는 그러는 딸을 한동안 대견하게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넌 참 좋은 애다. 그러나 그 께하는 성민 고쳐야 한다. 아니, 그 성민 고치기전에 자기를 더 수양해야 한다. 5분후면 리해되는 일도 5분이 모자라 그르치지 않도록 말이다.》

아버지 말씀이 옳아. 지나간 처녀시절에도 께하는 성미를 참지 못하여 동무들한테 끝을 내며 앵돌아졌다가도 몇분후에는 영낙없이 자신을 후회하면서 동무들이 찾아와주었으면 하고 속으로 기다리곤했지…

오늘아침의 일도 마찬가지였다.

남편이 꼭 가야 된다고 우길적에 속으로 께해가지고 돌아왔기전에 일단 일이라 하지 말고 머리로 좀 쉬어야 하지 않겠느냐, 간고하고 어려운 매일수룩 생활을 더욱 락천적으로 꾸리고 문화정서생활도 더욱 잘하라는건 당의 요구이다, 또 현대인으로서 그에 낯을 돌릴줄 모른다면 진정한 현대인자격이 없지 않겠느냐고 5분동안만 더 지꽃게 달라붙어 설복했더라면 그를 여기로 데리고 왔을것이며 이 숲, 이 대자연 속에서 긴장된 연구사업으로 한껏 탕개죄여진 그의 심신을 폭 쉬여주었을것 아닌가. 그럼 래일 가서 연구사업도 끝으로 더 잘될게고…

심심한 자기 반성을 불러낸 다정한 비둘기부부를 찾아보려고 초점이 흐려진 눈을 들던 예명은



밋밋스름하게 구름을 지은 약초밭 저쪽 너머에서  
불쑥 솟아올랐다가 얼핏 사라지는 웬 사람의 새  
까만 뒤머리를 보고 깜짝 놀랐다.

(아버지가? 아니면 기사장아저씨가?)

그런것 같지는 않았다.

그분들은 아직 저 아래쪽에 있을것이였다. 그  
렇다면?

예명은 숨을 딱 죽이고 서서 귀를 강구였다.

머리가 숨어든곳의 키높은 새초줄기가 하느적  
하느적 흔들리는 모양이 보이고 샅이나 팽이같은  
것으로 흙을 긁어내는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약초밭을 가꾸는 사람들일까? 그럼 어느 병원  
사람들이...)

예명은 바싹 긴장했던 마음이 스르르 풀리는것  
을 느끼며 소리나는곳으로 조심조심 다가갔다.  
구름우에 올라서니 뿔선 저쪽에 허리를 구부리고  
서서 삽질을 하는 웬 사나이의 모습이 드러났다.  
이쪽을 등지고 서서 힘껏 삽질을 하는데 흙을  
한가득 퍼담고 일어설적마다 땀에 화락하니 젖은  
군인용면내의가 팽팽하게 행기우면서 어깨팍의  
울근불근한 근육이 내의밑으로 드러났다. 퍼그나  
젊은 사람같았다. 무슨 구멍이를 파고있었다.

펼하는걸가?

예명은 우뚝 서서 그의 주변을 살펴보았다.

무드기 파놓은 흙무지옆에 단을 묶어놓은 잣나  
무모같은것이 놓여있고 거기서 뒤발자국 떨어진  
곳에 뿌리채 뽑아낸진 말라죽은 나무가 보였다.

(아니 그럼?!)

예명은 눈을 들어 약초밭을 둘러보았다.

키를 다루며 자란 약초들위로 검푸르게 자라오  
른 잣나무우듬지들이 듬성듬성 보였다. 찬찬히  
살펴보니 그것들은 가로세로 줄을 지어 서있었다.  
이 넓은 공지가 단순한 약초밭이 아니라 어린  
잣나무밭이라는것을 예명은 그제서야 알았다.

(그럼 이 사람은?)

예명은 뒤에 사람이 온것도 모르고 나무를 심  
는 일에만 열중해버린 그 사람의 신분을 알고싶  
어 다시금 그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짧게 깎은 뒤머리, 병사용면내의, 보위색 군복  
바지, 군인용여름신발...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산림보호원이 아닐가?  
이 숲을 가꿨다는...)

외진곳에서 친지를 만난듯이 반가운 생각이 들  
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땀에 번들번들 젖은 그  
의 불깃불깃한 옆얼굴과 팽팽하게 행기운 면내의  
밑의 탄력에 넘치는 근육을 보았다. 기껏해야 예  
명의 또래나 되었을가?

(이렇게 젊은 사람이 그 피나무를?!)

그 순간에 어떤 기척을 느꼈던지 구멍이속에  
나무를 세우고 흙을 퍼넣던 그 사람이 일손을 멈  
추고 이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산림보호원동지지요?》

예명은 자기도 의심할 정도의 용기를 가지고  
먼저 말을 뱉었다. 이 한나절동안 지울수 없는 모  
습으로 자기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그 보호원과  
눈앞에 서있는 현실의 젊은 이 보호원사이의 너  
무도 현격한 연령상 차이가 던지는 의혹이 어찌  
보면 경솔하게까지 느껴질 그런 대답성을 불러낸  
것이였다.

《그렇소.》

의아쩍은 눈길로 예명을 훑어보며 그 사람이  
대답했다.

《그러니까 저 숲도 거기서 다 가꾼거나요?》

예명이 약초밭을 쪽 둘러싼 잣나무숲을 가리키  
며 다시 물었다.

《아니, 내 숲은 이거요.》

예명이 가리키는 숲은 바라보지도 않고 약초밭  
을 눈으로 쪽 둘러보며 그가 대답했다.

《그럼 저 숲은...》

《그건... 다른 사람이 가꾼 숲이요.》

《그 사람은 어디 있어요?》

젊은 보호원은 대답대신 눈길을 들더니 좌-좌-  
설레는 잣나무숲을 바라보기만 하는것이였다.

예명이라도 그의 눈길을 따라 숲을 바라보았다.

저 아래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산바람에 숲은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씩없이 설레고있었다.

《여기 또 있어요.》

저편 반대쪽에서 별안간 들려오는 웬 녀자의  
챙쟁한 목소리에 둘은 몸을 돌렸다. 허리를 치는  
약초밭(아니, 어린 잣나무숲이다.) 가운데를 헤  
집으며 달려오는 녀인의 모습이 보였다.

예명은 헤엄치듯 팔을 저으며 달려오는 그 녀  
자의 손에 들린 이름모를 꽃송이를 보았다.

산삼이나 발견한듯이 희열에 넘쳐 달려오던 그  
녀자는 자기의 남편 (예명은 그 녀자의 목소리  
와 전체적인 몸동작에서 그것을 느꼈다.)과 함께  
서있는 예명을 보고 잠시 주춤하더니 남편한테로  
다가서며 조용히 말했다.

《저쪽에 죽은게 또 있어요.》

《이걸 심어놓고 가지요.》

《다시 심으면 살가요?》

《살려내야지.》

둘은 뒤에 서있는 예명의 존재를 잊은듯 소곤  
소곤 이야기를 나누며 나무를 마저 심기 시작했  
다.

예명은 돌아서 가버릴수도 다가가 일손을 거들  
어줄수도 없는 난처한 처지에 빠졌다. 그래 그런  
듯 서서 둘이 일하는 모습을 보기만 했다.

남편의 체격이 다부지고 얼굴이 검불빛한데 비  
해 안해는 몸매가 갈림하고 얼굴이 조약돌같이  
번듯한데다 살결도 하얗다. 온 여름내 해빛 한점  
받지 않은듯한 얼굴이다. 무얼하는 녀자가. 어떤  
일을 하는 녀자길래 이렇게 쉬는날까지 남편의  
일을 도와나섰을가. 의사일까? 의사일수도 있다.

이 약초밭과 인연이 있는… 아니 의사가 아니다. 금방 심은 잣나무우듬지를 잡고 선 저 오른손 큰손가락끝에 묻은 파란 잉크자욱… 교원일게다. 저 희고 가느다란 손에 펜을 들고 교수안을 짜다가 따라나왔을수도 있다.

어느새 나무를 다 심고난 부부는 자리를 옮길 차비를 했다. 남편은 심다 남은 나무모를 들고 안해는 벗어놓은 남편의 옷이며 모자며 가방을 들었다. 그러더니 약속이나 한듯이 예명을 돌아보며 따뜻한 눈인사를 하고 돌아서버렸다.

《무슨 여자예요?》

《모르겠소. 숲놀이 온 너잔지…》

둘이 멀어져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바람결을 타고 들려왔다.

예명은 얼을 잃은듯이 그들을 바라보며 서있었다.

안해가 손수건을 꺼내여 남편의 얼굴을 씻어주는 모습이 지평선에 더욱 가까워진 저녁해를 배경으로 그림처럼 아름답게 부각되었다.

순간 예명은 흠칫 몸을 떨었다.

남편의 검고 투실투실한 얼굴이 떠오르고 언제나 열적어하는듯한 미소를 머금은 류달리 두터운 입술이 번개치듯 눈앞에 떠오르면서 먼길을 떠나가는 그에게 살뜰한 말 한마디 안해보낸 자기의 행위가 가슴을 아프게 때린 것이었다. 그래, 그렇다. 5분이 아니라 하루종일 마주앉아 설복해도 예명은 남편을 붙들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기관차처럼 중단없이 한생토록 달리기를 각오한 사람이었다. 오죽하면 결혼하자마자 그 길은 떠나갔겠는가? 그 길에서 누구도 그를 멈춰세우거나 탈선시킬 수 없다.

예명은 아무리 훌륭한 일도 한순간에 그 의의가 다 이해되는 법은 없다던 아버지의 이야기를 생각했다. 하지만 저 너자는… 하고 예명은 생각했다. 남편을 도와 휴식의 하루를 숲을 가꾸는 일에 바치고있는 저 녀교원은 남편이 하는 일의 의의를 다 이해하고있다. 그래서 저렇게 남편을 따라 나섰을 것이다. 나도 남편이 집을 떠나간다고 앵돌아지기전에 그를 따라 나섰어야 옳지 않은가? 설사 거기까지 이 몸을 끌고 따라가진 못한다 해도 마음만은 기꺼이 따라보낼수 있지 않았는가?

가슴이 아팠다. 미여지는듯이 아팠다. 핑 췌어드는 눈을 들어 약초밭을 굽어보았다. 갖가지 약초들위로 푸르른 상수리를 올리민 잣나무들이 보인다. 10년후, 20년후면 저것들이 자라서 여기도 장엄한 숲을 이룰 것이다.

순간 예명은 이처럼 어렵고 간고하고 복잡한 시절에 자기를 여기로, 이 숲으로 이끌고온 아버지의 마음속을 알아차렸다.

그래, 저 동무들도, 나의 그 동무도 성공의 메

아리가 인츰 돌아오지 않는 그런 일을 하고있다. 어쩌면 한생이 저물도록 성공의 메아리가 돌아오지 않을수도 있다. 하지만 저들이 옳다. 그이가 옳다. 오늘 우리가 그 누군가의 성스러운 자옥과도 같은 이 숲이 던져주는 그들과 아름다운 자연미와 그리고 감히 이름할수 없는 크낙한 그 무엇인가를 즐기며 하루를 보냈듯이 우리의 다음, 그 다음 미래세대들이 그들이 찍은 자옥앞에 서서 고마움을 느끼고 행복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난… 난… 아버지의 말씀대로 무대우에서도 생활에서도 배우였다. 연주가 끝나자 곧 박수가 터져오르고 꽃다발이 가슴에 안겨지는데 습관된… 그래 난 5분이 모자라는 여자가 아니라 그이를 리해하고 그이의 경지에 오르기엔 한생도 모자랄 여자다.

(아아, 이봐요. 미웠지요. 저란 여자가 정말 미웠지요?)

눈물이 그렇게 섰던 예명은 금방 심어놓은 잣나무옆에 놓여있는 한송이의 꽃을 보았다. 아까 그 여자가 들고왔던 꽃이었다. 예명은 허리를 굽혀 그 꽃을 주어들었다. 붉은 작약꽃이었다.

예명은 꽃을 든채 서서 그들이 사라진 구릉너머를 바라보았다. 무연한 약초밭위에 누런 저녁해빛이 가득 찼을뿐… 그들은 보이지 않았다. 저 너머에서 죽은 잣나무를 뽑아버리고 새 나무를 심고있을 것이다.

예명은 꽃을 들고 그리로 몇걸음 옮기다가 멈춰서버렸다. 자기 남편을 속속들이 리해하고 사는 이름모를 그 여자가 찍어들었던 이 꽃을 그이의 책상위에 가져다 꽃아놓고 한생토록 위해주리라는 생각이 든 것이었다.

아니, 아니, 그건 너무 멀어… 하고 예명은 도리머리를 저었다.

(오늘중으로 그이한테 전보를 치겠어. 기다린다고, 물은 꼭 끓여서 마시라고… 체신소사람들이 웃지 않을까? 웃겠으면 웃으라지. 그래도 난 좋아. 꼭 그렇게 쳐보내겠어.)

## 5

서산마루에 금시 걸터앉은 저녁해를 멀리 바라보며 그들은 돌아가려고 자리를 일었다.

숲을 거의 나섰을 때 맨앞에서 걸던 기사장이 저씨가 예명의 아버지에게 말했다.

《오늘 참 좋았소. 깨달은바도 많고… 한가지 섭섭한건 보호원아바이를 끝내 만나보지 못하고 이렇게 가는거요.》

《섭섭하기는 나도 마찬가지요.》

아버지가 박스통을 들어보이며 대꾸했다.

《사실 인물화는 그리 자신이 없지만 평생 그나마의 습작모델을 마련해준 그만은 꼭 그려줘야겠기에 오늘 버리고 왔었는데…》

《내 이달 계획도 월말전으로 무조건 해낼테니 래달초췌 또 한번 오지요.》

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면서 따라걸던 예명은 자기는 보호원동물 만나보았다고 말하려다가 그만두었다. 아버지의 이야기속의 보호원은 분명 다른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때문이었다. 하지만 예명은 그 《다른 보호원》도 꼭 만나보고 가는듯이 느껴졌다. 만나봤을뿐더러 그와 오래도록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눈듯한 느낌이 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어느덧 팔짜기를 빠져나온 일행은 논밭너머 행길을 저만치 바라보며 숲가녁을 따라 그어진 좁다란 오솔길에 접어들었다.

시내로 들어가는 지름길이었던것이다.

해는 서산너머로 사라지고 붉은 저녁노을이 온 하늘을 붉게 태우고있었다.

딱히 방향을 알수 없는 저녁바람이 기분 좋게 귀전을 스쳐지나갔다.

맨앞에 기사장아저씨와 예명의 어머니가 서고 그다음 예명의 아버지 혼자 걷고 그뒤로 예보원 어머니와 예명이 걸다가... 문득 멈춰섰다. 길옆, 숲이 시작되는 산기슭에서 불현듯 맞닥들린 자그마한 봉분앞에 예명의 아버지가 주춤 서서 섰던 때문이었다.

오솔길에서 몇보쯤 떨어져있는 봉분을 말없이 바라보던 아버지가 봉분앞의 대리석비를 향해 다급한 걸음으로 다가가더니 고개를 떨구며 등산모를 벗어들었다.

(?!)

저만치 앞서 걷던 기사장아저씨가 되돌아오며 소리쳤다.

《왜 그러오?》

비문만 뚫어지게 바라볼뿐 대답이 없자 기사장아저씨가 성큼성큼 다가가며 다시금 물었다.

《혹시 아는 사람ियो?》

후- 하고 깊은 숨을 내쉴뿐 잠시동안 대답이 없던 아버지가 등산모를 벗어진 손으로 봉분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거 참! 여기 산림보호원동무가...》

《예?!》

가슴속에서 무엇인가 쿵 하고 떨어져내리는듯한 충격을 느끼며 예명은 어푸러질듯 봉분앞으로 다가갔다. 비에 쪼아박은 붉은색 글이 황혼에 젖어 완전한 피빛으로 안겨왔다.

《리용학의 묘》

모자를 짊 움켜쥔채 비의 옆면에 쓴 글을 읽고 있던 아버지가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작년에 없었구만, 가을에...》

놀라운 눈으로 아버지를 쳐다보며 예명은 조용히 말했다.

《산림보호원은 저 숲속에 있어요. 제가 만나봤어요. 나무를 심고있었어요.》

《응?!》

눈에 알릴만큼 큰 반응을 보이며 돌아선 아버지가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예명에게 물었다.

《젊은 사람이더냐?》

《젊었어요. 우리 또래쯤... 안해도 같이 왔더군요.》

《음- 이 사람의 아들이구나. 늘 데리구 일하랬다.》

《예, 아들이요?!》

《한때는 도에서도 한다하는 일군이었는데 어느 공사를 책임지고 나갔다가 크게 상한 다음 30여년동안 산림보호원으로 이 숲에서 살았지. 본것도 많고 든것도 많고 나기도 잘난 사람이여서 꼭 한번 그리자고 약속했었는데... 참 아까운 사람이 그만...》

누구도 아버지의 말을 받는 사람이 없었다. 그지 묵묵히 봉분을 바라보기만 했다.

누구인가 깨끗이 벌초를 해놓은 봉분을 이윽도록 바라보다 말고 예명은 얼굴을 들었다.

그러자 자기들이 빠져나온 숲이 황금빛 저녁노을을 가득 담은채 조용히 설레이고있었다.

좌- 좌아-

무엇인가 속삭이는듯한 숲을 한동안 바라보느라니 저 봉분밑에 누워있는 그를 어디선가 꼭 본듯한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마주 서있는듯한 느낌이 심장을 미워잡는것이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얼굴표상은 붙들어낼수가 없었다. 팔짜기입구의 자연미 넘치는 너럭바위 《식탁》이며 쪽가래 나무우의 새둥지며 머루덩굴밑의 길다란 물푸레 나무며 피나무밑중에 난 상처자국이며 그리고 한여름의 무더운 혼풍에 송진을 날리며 푸르청청 서있던 잣나무숲이며 어린 잣나무를 심던 그의 아들부부의 다정한 모습이며... 한평생 그가 찍어온 자욱들이 아직 본적이 없는, 이젠 영영 볼수 없는 그의 모습으로 환원되어 떠오르는것이였다.

좌- 좌아-

숲은 무엇인가를 속삭이듯 조용히 설레이고있었다.

《그러니 그들은 대를 이어 자기들의 숲을 가꾸고있구나!》

퍼그나 긴 침묵을 깨뜨리며 아버지가 말했다.

하지만 예명에게는 아버지의 그 말이 다르게 들렸다.

《우리도 조국앞에 내놓을 우리들의 <숲>이 있어야 한다. 그 <숲>을 마련하기 위하여 너의 그 사람도 집을 떠나가있는거다. 넌 그 사람을 도와 조국땅을 기쁘게 할 너의 <숲>을 무성하게 가꿔야 한다. 온 심장을 다 바쳐서 말이다.》

예명은 아버지의 말없는 속대사를 심장으로 외우며 아직 손에 들린채로 있는 꽃송이를 들고 봉분앞으로 다가갔다.

이 하루동안 자기를 풀어주고 마음을 즐겁게 해주었으며 자기로 하여금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깨닫게 하여준 고마운 이 숲을 가꾸어놓고 잠든 낮모를 산림보호원아바이앞에 무엇이든 놓아드리지 않고서는 자리를 뜰수 없다는 생각때문이었다.

예명은 반듯한 상돌우에 조심히 꽃송이를 얹혀

놓고 허리를 폈다. 남편의 책상우에 꽃아놓고 일생토록 그를 위해주리라던 꽃- 봉분밑에 누워있을 산림보호원아바이의 머느리가 꺾어온 꽃이었다.

예명은 그것으로 이제 한생토록 남모르는 길을 걷고 또 걸을 자기의 남편의 앞길에 이해와 동

정, 격려의 꽃보라를 뿌린것이였다.

좌아- 좌-

숲은 말없이 조용히 설레였다.

웅심깊은 숲의 그 속삭임을 심장으로 들으며 그들은 걸음을 옮겼다.

## 세계작가일화

### 화환속에 파묻힌 죄인

1703년 런던의 어느 한 거리에서는 그때까지 있어본적없는 피이한 일이 벌어졌다.

죄인을 결박한 커다란 형틀이 길가에 내세워졌는데 거리를 오가던 모든 사람들이 형틀에 묶이운 죄수에게 깊숙이 머리숙여 인사하는것이였다. 얼마후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꽃다발을 가지고 나와 형틀을 장식하였다. 삽시에 죄인은 꽃속에 파묻히게 되였다. 그런가 하면 술을 들고나와 그 주위에서 형틀에 매달린 죄인을 위해 축배를 드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당시 죄인을 형틀에 결박하여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에 내세우는 형벌 그자체는 별로 이상한것이 아니였다. 《감옥밖의 형틀》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형벌은 당시 가장 불명예스러운것으로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침을 뱉고 돌맹이를 던지는것이 상례였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런던거리에서 흔히 볼수 있었던 《감옥밖의 형틀》이 아니라 화환속에 파묻힌 죄인이였다. 이 죄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어찌하여 이처럼 시민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있는 것인가. 그가 바로 오늘까지 《영국 및 유럽 근대 소설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다니엘 디포(1660~1731년)였다. 디포는 런던의 부유한 육류상인의 가정에서 출생하였다. 아버지는 청교도였다. 청교도는 주로 상인들과 지식층에 많이 류포된 신교로서 영국국교파들로부터 이단자로 박해를 받고 있었다. 디포의 아버지는 장차 아들을 청교의 목사로서 키울 작정으로 마틴이란 사람이 경영하는 종교학교에 보냈다. 그러나 졸업후 디포는 아버지가 바라던 길이 아니라 실업계에 발을 들여놓았으며 당시의 정치적사건들에 적극 관여하여 정치기사, 론평들을 쓰기 시작하였다. 붓을 든 첫날부터 그의 소책자들에는 진보적이고 계몽주의적인 그의 립장이 뚜렷이 반영되어 광범한 독자층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으며 동시에 반대파들의 저주와 규탄을 불러일으켰다.

1702년 왕이 즉위하여 청교도들에 대한 박해가 더욱 우심해져가던 때 《이단을 가장 빨리 저단하는 방법》이라는 소책자가 닉명으로 발표되었다. 책이 선을 보이자마자 국교파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였다. 비밀집회에 참가하는자는 누구를 불문하고 추방하며 이단을 설교한자는 교수형에 처하여야 한다는 그 무자비한 론조가 이들의 가

슴을 후련하게 하였던것이다.

《저자가 누군지 모르긴 하겠소만 고명한 국교도종의 한사람일거요.》

《정말이지 매우 통쾌한 발언입니다.》

벌어진 입들이 몇달이고 다물릴줄 몰랐다. 그러던 어느날, 그 저자가 다름아닌 자기들의 사람이 아니라 이단자인 다니엘 디포라는것과 그가 사실을 뒤집어 흑독하게 조소하였다는것이 알려졌다. 때 반대파들은 눈이 뒤집혀졌다. 디포야말로 그들이 눈에 든 가시보다 더 증오하던 독설가였던것이다. 전혜에 풍자시 《진정한 영국인》이 나왔을 때 어떠하였던가. 영국민족이란 본래 로마인, 색슨인, 단마르크인, 노르만인이 브리텐섬을 정복한 결과에 생겨난 혼합족이니 오랜 가문을 자랑할만한 귀족계급이란 있을수 없으며 결국 귀족칭호나 문패는 돈으로 산것에 불과하다느니, 도대체 영국에 무슨 기사가 있느냐느니, 사람의 가치란 그가 지닌 인격에 따라 평가되는것이이지 결코 가문여하에 의해 규정되는것이 아니라는니... 급류처럼 거침없이 쏟아져나오는 평등의 사상이 시민들한테서 얼마나 폭풍같은 반향을 일으켰던가. 한편 귀족적특권의 완전한 파산을 선고하는 그 매서운 독설에 그들이 얼마나 악마구리 끓듯했던가. 당장에 발작증이 재발했다. 그리하여 1703년에 디포는 치안을 방해하는 책을 발간하여 사회의 평온을 깨버렸다는 죄명을 뒤집어쓴채 체포되어 무기한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래도 뱀통이 풀리지 않은듯 그에게 거액의 벌금을 떨구었으며 그것도 모자라 3일간이나 《감옥밖의 형틀》에 매달리게까지 하였던것이다. 디포는 감옥에서 《형틀에 대한 찬가》를 써서 악당들에게 대답하였다. 그의 친구들에 의해 비밀리에 출판된 이 풍자시는 즉시에 런던시민들에게 알려졌다. 디포가 묶이운 《감옥밖의 형틀》이 거리에 나타났을 때 온 시내가 떨쳐나섰다. 침이 아니라 꽃송이가 던져졌다. 돌맹이가 아니라 화환이 안겨졌다. 그것은 모욕이 아니라 격찬이였다. 증오가 아니라 사랑이였다.

아마도 그때의 디포만큼 행복한 사람도 쉽지 않으리라. 그는 그가 평소에 얼마나 런던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는가를 보여주는것이다.

한류덕



## 내가 사는 내 나라

최양수

이번 취재길은 나에게 류다른 인상을 안겨주었다. 위대한 우리 시대, 우리 조국에 대한 느낌을 새롭게 받아안게 된 뜻깊은 나날이었다고 할지.

앞에도 산, 뒤에도 산... 들어가는 길도 나가는 길도 하나뿐인 두메마을... 새벽이면 자욱히 뒤덮인 안개발속에 싱그러운 숲향기가 차넘치는 곳...

내가 철도연선으로부터 백여리 떨어진 이 심심산골을 10여년만에 다시 찾아가게 된것은 《로동신문》에 실린 한편의 기사때문이었다. 《인민의 참된 총복》이라는 제목의 그 기사에는 사회안전기관에서 복무하다가 제대된 한 로당원이 고향땅을 정성스레 가꾸어가며 변함없이 인민들의 안전을 지켜가고있다는 감동깊은 이야기가 실려있었다.

바로 그였다.

취재를 온 나에게 머루, 다래, 돌배가 많은 자기네 고장의 산들은 그야말로 천연과수원이라는 것이며 물고기들이 육식거리는 호수며... 지어 같은 꽃강냉이라도 이 고장것은 별맛이라고 열성스레 사랑을 하던 얼굴이 검스레한 그 로인이었다.

이야기도중에 어이없어 웃던 일... 아무렴 꽃강냉이맛이 고장마다 서로 다를가?

나의 취재수첩에 적힌것은 그가 한눈에 다 담을만한 산골마을을 돌아보느라고 매일 룽십리이상씩 걷는다는것뿐이었다. 아닌게아니라 그는 오금을 놀리지 않고선 한시도 가만있지 못하는 《분주스러운 사람》이었다. 길을 가다가도 강냉이밭에 뛰어든 염소를 쫓아내느라고 덤비는가 하면 길 한복판에 떨어진 돌맹이를 집어들고 어디다 버릴지 몰라 망설이다가는 도랑창에 맞춤히 가져다놓고서야 손을 툭툭 튄다.

그에 대한 글을 꼭 써달라고 부탁하던 리당일군들의 말에 비해보면 그에게선 독자들의 심금을 울릴만한 기사의 소재가 있을것 같지 않았다. 어느해 초봄, 마을에서 20여리 떨어진곳에 있는 호수가 얼음판우에서 스케트를 타던 세명의 어린 학생들이 물에 빠졌을 때 생명을 내대고 구원한 사실, 그후부터 호수가를 매일 돌아보군한다는것, 이것도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나 흔한 이야기여서 멋쟁이기사를 써보려는 흥안의 신진기자였던 나에게는 충격적인 감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그때 나는 무엇을 몰랐을까?...

기억속에 어렴풋이 남아있는 낯익은 고장의 풍경은 몰라보게 변모되었다. 하긴 강산이 변한다는 세월이 흘렀으니... 키높이 자란 가로수들이 무성한 가지를 펼치었고 새로 일떠선 아담한 문화주택들, 마을 한쪽으로 흐르는 시내가엔 동화적느낌을 자아내는 소형발전소가 생겨났다.

리당에 들러 자기 소개를 한 나는 그들이 안내해준대로 호수가로 향했다.

호수가? ... 그래, 그때도 호수가에 다닌다더니 그 나이에 한가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라면 거리가 멀다고 할수 있지 않는가.

가을절기라 하지만 날씨는 무더웠다.

나는 한낮이 켜 기울어 호수가에 이르렀다.

줄음에 취한듯싶은 물결 잔잔한 호수가에선 열적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저기 소나무그늘이 드리운 너럭바위우에 밀짚모자를 쓴 로인이 낚시대를 잡고 앉아있었다. 그옆에 오구구 모여앉은 아이들의 모습도 보인다.

나는 그들에게 불청객이 될가봐 일부러 산락쪽으로 해서 그곳으로 갔다.

로인이 아이들에게 옛말을 들려주고있었다.

《...그래서말이다. 애기곰은 물속의 잉어가 부러워서 풍덩 뛰어들었거든. 물이라는건... 못된것만 하는 장난꾸러기들을 붙잡으면 깊은곳으로 끌고들어가서 다시는 아버지랑 엄마랑 못보게 한단다.

가만가만... 큼직한놈이 걸려든것 같구나.》

이어 낚시대가 활동처럼 휘여들더니 《히야!-》하는 아이들의 탄성이 터져올랐다.

웃도리를 벗은 한 녀석이 풀판에서 퍼들쩍거리는 제 다리통만한 잉어를 덮쳐안고 뒤희락거린다.

단숨에 달려내려간 나는 돈있만한 은빛 잉어비늘을 훑어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것참! 굉장하군, 굉장해!...》

잉어에게 집중되었던 눈길들이 나에게로 쏠렸다.

밀짚모자를 벗어든 로인은 백발이 성성한 머리를 쓸어올리며 나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어데서 온 손님인지?》

《저를 모르겠습니까? 제 10년전에 아با이를 찾아왔던 기자입니다.》



《얼마전에도 기자라는 점잖은 량반이 왔더니...》

분위기가 다소 어성버성해졌다.

로인은 유치원에 가져다주라면서 잉어를 아이들에게 돌려보내었다.

《학교 수영장에서 놀거라. 다시 여기 나타났다면 엉덩짝을 맞을줄 알아!》

《알겠어요, 할아버지...》

아이들은 조금도 어려워하는 기색이 없이 저희들끼리 조잘거리며 마을쪽으로 내려갔다.

고요한 호수가에 로인과 나만이 남게 되었다.

《저를 그렇게 알아보지 못하겠습니까? 그때 꽃강냉이 자랑을 하던... 이 고장 꽃강냉이가 정말 별맛이었는데...》

《어험, 이고장건 뭐나 다 좋쎬다. 가만가만... 날더러 무슨 이야길 들려달라고 <못살게 굴던> 그 젊은이 아니우?》

《네, 아바이네 집에서 꽃강냉이추렴을 하던...》

《맞았어!... 턱이랑 매끈매끈하던 그때는 좀 덤비는 축이더니만...》

로인이 낚시를 호수가에 던지고... 그제야 우리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오고갔다.

7년전에 제대된 그는 당의 배려속에 공로보장혜택을 받으며 편안한 여생을 보내고있다고 한다. 그외에 이고장에 대한 자랑을 또 늘어놓을뿐 자기에 대한 말은 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번도 역시 본인 취재나 해가지고선 소득이 있을것 같지 않았다.

호수가 기슭에 세워진 울긋불긋한 안전경표들, 제방쪽을 넘어가는 아이들... 그렇다. 그는 인생 말년에 목가적인 시간을 보내기 위해 호수가에 나와 있는것이 아니다. 그는 아직도 인민의 정복을 입었던 그날의 그 자세로 생의 마감을 변함없이 살아가고있는것이다.

저르기 흥분된 나는 취재를 심화시켜나갔다. 그와 가까운 이웃 사람들과도 만나고 그의 집도 방문했으며 그와 하루를 같이 보내며 수심리를 건기도 했다.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을수 있었다. 이고장에 소형발전소가 어떻게 일떠서게 되었으며 장마가 졌던 어느해에는 위험에 처한 호수의 제방을 그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구원한 이야기, 그가 사계절 농사일의 공정들과 내숙을 농장원들보다 더 잘 알고있어 길을 가다가도 논판에 뛰어들어 《잔소리》를 한다는것, 강냉이밭에 제멋대로 뛰여든 한마리의 새끼염소를 보고도 주인을 인차 알아맞추고 《혼찌검》을 내준다는 등... 하여튼 이고장

에서 무슨 뜻밖의 일이 생기면 그의 눈에 제일 먼저 걸려든다고 한다.

이곳 사람들은 그를 《잔소리군령감》이라고 부른다. 얼핏 듣기에는 귀에 거슬리는듯하지만 이 말속에는 한생을 변함없이 자기네들을 위해, 자기네 고장을 위해 묵묵히 바쳐가는 그에 대한 깊은 신뢰와 따뜻한 정이 담겨져있다. 하기에 아바이도 그 말을 별로 탓하지 않고 웃음으로 받아넘기곤 한다.

나는 생각이 깊어져갔다. 누구나 하나같이 깨끗한 마음씨를 지니고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고장, 인심 또한 후한 이고장, 여기에는 비오는 날이나 눈오는 날이나 고향땅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안고 쉬임없이 걷고 또 걸으며 흘린 한 로당원의 성실한 땀방울도 숨배여있는것이다.

나는 훌륭한 글감을 찾아온 기쁨을 안고 이 고장을 떠났다.

나는 열차를 타고오면서 차창밖으로 흘러가는 내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 풍요한 논밭들과 공장들, 화려한 도시들과 한쪽의 그림과도 같은 농촌 마을들을 바라보며 크나큰 흥분속에 잠기었다.

어딜 가나 아름다운 내 나라, 세상이 부러워하는 인민의 락원이 펼쳐진 내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 그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순결한 충성심을 안고 고향을 위해, 조국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는 수많은 이름없는 당원들의 성실하고도 사심없는 노력에 의해 마련된것이다.

내가 이번의 취재길에서 만난 아바이도 그들중의 평범한 한사람인것이다.

정복은 비록 벗었지만 마음의 정복만은 오늘도 벗지 않고 한본새로 사는 아바이.

사람이 하루도 변함없이 일생을 산다는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뜨거운 심장을 지닌 사람들, 티없이 순결한 량심을 지닌 사람들만이 걸을수 있는 인생행로인것이다.

그처럼 뜨거운 심장, 순결한 량심을 지닌 사람들이 내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우리 장군님을, 우리 당을, 우리 조국을 받들고있기에 우리의 사회주의는 그 어떤 시련과 고난도 뚫고헤치며 승승장구하고있는것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의 우리 승리의 비결이며 래일의 최후승리의 담보이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이 나라의 산천에 깨끗한 량심의 자욱자욱을 남기며 그들이 걸어온 길, 그 길을 따라 나도 가리라, 그들처럼 언제나 변함없이, 사심없이 자기를 바쳐가며.

열차는 경쾌한 기적소리를 남기며 살같이 달리였다. 나의 마음도 함께 싱고서...

## 이끼덮인 성벽

림종상

시조 동명왕이 동방의 강국 고구려를 건국한지도 어언 40여년, 그의 아들 유류왕이 나라를 물려받은지도 벌써 20여년.

이 시기 고구려의 판도는 저 멀리 동해가에 미쳤다. 이 성업에는 시조를 받들고 유류왕을 모시고 머리가 허영도록 충성해온 《개국공신》들과 말타고 수륙 수만리를 달린 유명, 무명의 용맹한 고구려사람들의 피와 땀이 스며있는것이다.

나라가 강대해지면서 수도 졸본성(중국환인지방)도 나날이 준비하게 일떠섰다.

전승고를 알리는 파발군사의 말발굽소리만을 들으며 살아오는데 버릇된 졸본성의 장상, 대가(귀족)집 자식들은 태평성대를 읊조리며 찍하면 밤가는줄 모르고 춤과 노래로 거리를 누벼가군했다.

그러던 유류왕 20년 가을 어느날 밤이었다.

북문에서 궁성쪽으로 치달려오는 말발굽소리가 다급하게 울려 퍼졌다.

해불에 비낀 파발마의 흘날리는 갈기에, 파발군사의 시커먼 수염발에 대륙의 누런 먼지가 짙 덮였으나 그것을 가늠해본 춤판의 젊은이는 아무도 없었다.

파발군사가 궁성으로 들어가자마자 연화대에 삼단같은 봉화가 피어오르고 성가퀴에서는 빨나팔과 북소리가 일제히 울렸다. 변방에 외적이 쳐들어와 상서롭지 못한 조짐을 알리는 비상신호였다.

초저녁잠에 몰려 자리에 들었던 백발의 《개국공신》들이 갑옷을 떨쳐입고 궁성으로 말을 몰았고 군사들이 령을 기다리며 마음죄이고있었다.

하나 젊음에 취한 춤꾼들은 천리밖 변방에서 날아오는 불뚝이 내 발등에 떨어질손가, 한두개 성을 빼앗기는것쯤은 《병가지상사(싸움에서 보통 있을수 있는 일)》라고 하지 않았던가 하며 여전히 흥에 젖어 정신없고 돌아갔다.

부모들이 흘린 피땀의 덕으로 호화롭게 자라난 이들이 언제 가면 제 정신을 차릴런지?

졸본성은 그들을 묵묵히 내려다보고있었다....

×

비상어전회의에서 물러나오는 걸음으로 동명왕 사당앞에 꿇어앉은 부분노는 두 임금을 섬겨 머

리가 허영게 센 1등《개국공신》의 백전로장이다.

파발군이 가지고온 소식은 서북변방 전초선인 개려성을 외적에게 빼앗겼다는것이다.

나라가 세워져 처음으로 당한 패전이다. 근 10년전 제가 개척하여 넘겨준 성을 어미없이 키운 외독자 울소가 빼앗겼다고 시조앞에 고하자니 설사 역적의 루명을 쓰고 억울하게 처단당한다고 해도 이렇듯 분통이 터지지는 않았을것이다.

허나 부분노는 패전앞에 가슴이나 치고 빈 속죄로 위안을 얻을 그런 장수가 아니다.

《성왕마마, 소신의 몸에 수백, 수천의 화살이와 박혀도 빼앗긴 그 구루(성)를 되찾아 시조사당 제단우에 올려놓기전에는 생을 거두지 않겠소이다.》

시조앞에 다짐한 그는 방금전 어전회의때 왕이 베풀어준 그 하해같은 은총이 너무도 고마와 섣뜻 고개를 쳐들수 없었다.

그가 개려성을 되찾는 수복전에 나서겠다고 아뢰자 유류왕은 《경이 그 험한곳에 나가지 않은들 그대가 한생을 바쳐 쌓은 공이 어찌 허물어질수 있을고! 부분노, 가지 마오. 울소의 패전이 어찌서 경과 자식에게만 책임이 있겠는가. 제발 가지 마오.》라고 진정으로 아껴주었다.

(군신간에 오르내리는 정 이처럼 후덥거니 늙은이도 수백번 쓰러진대도...)

사당을 하직한 부분노는 그 길로 유류왕이 내여준 기마군사를 이끌고 개려성을 향해 촛살같이 달렸다. 오랑캐의 도륙으로 피에 잠겼을 개려성을 속히 탈환해야겠다는 조급한 마음이 갑옷의 절령거리는 찰갑(쇠조박) 마주치는 소리도 가려듣지 못하게 하였다.

고리자루 긴 칼을 밤하늘에 높이 추켜든 그는 달리는 말에 또 박차를 가했다.

따르는 군마의 요란한 말발굽소리가 지축을 울렸다. 그 소리에 어둠에 잠긴 강산도 잠에서 깨어난듯 설레였고 이름모를 밤새들도 깃을 펴며 등지에서 하늘높이 날아났다.

...그가 개척한 서북변경 개려성은 워낙 사나운 유목민인 선비족의 소굴이었다. 높고 험한 산과 깊은 골짜기에 웅거하고있는 유리한 지형을 방패삼아 고구려의 변방을 무시로 침범하여 로략질

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돌아치다가도 쳐들어가면 쉽게 숨어버리면서 애를 먹이곤하였다.

시조를 모시고 나라를 세웠고 말을 몰아 종횡 무진 달리며 이웃했던 소국들인 비류국, 행민국(백두산남쪽) 등을 통합, 복속시키는 싸움에서 뛰어난 묘기와 무비의 용맹으로 충성다한 그는 동명왕이 내세워준 《개국공신》이다.

유류왕은 통치 11년 4월에 선비의 성을 쳐부서 변방고을의 백성들을 편하게 해줄 결심을 내렸다.

그때 이미 원고개를 넘긴 부분노는 임금의 뜻을 미리 알아차리고 적정도 내탐하고 고구려군사가 아직은 약하다는 헛소문을 퍼뜨려 선비족을 해이시키려고 심복부하 추망에게 아들 울소를 붙여 정탐으로 들여보냈었다. 무사로서 설익은 아들에게 이런 기회에 담도 키워주고 끝끝한 장수로 자래워 나라에 내세우려는 웅심깊은 생각에서였다.

적정을 손바닥보듯 장악한 부분노는 왕에게 선비족을 치자고 건의했고 어전회의에서 작전안을 내놓았다.

《소신이 미리 날랜 군사들을 이끌고 소로길을 따라 선비의 성이 바라보이는 숲속까지 나가 은밀히 숨어있겠소이다. 대왕께서는 이때 얼마간의 군사만 데리고 그 성 남쪽에 나타나 적을 조금만 놀래우면 놈들은 대왕의 군사가 적고 제놈들의 군사가 많은것을 믿고 성을 비우고 멀리까지 추격해올것시오이다. 때를 기다려 소신이 선비의 성으로 쳐들어가는것과 함께 대왕께서 용맹한 기병을 이끌고 합세하면 가히 굴복시킬수 있을것시오이다.》

그가 내놓은 안은 왕의 승인을 받았다.

부분노의 뛰어난 전략과 명군술로 성은 함락되고 선비왕은 항복하였다. 고구려초창기의 대승리였다.

그 성이 바로 개려성이다.

왕명으로 아들 울소가 성수로 임명되었다. 아들을 추천한것은 추망이었다. 선비에 대한 정탐과 성공격에서 나무랄데 없는 기지와 용맹을 펼쳤다고 추망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취울렸다.

부분노도 싫지 않았다. 어전에서 아들을 믿어주고 내세워주는것이 고마왔고 궁지와 자부심으로 가슴뿌듯했다. 어려서 어미를 잃고 오늘을 바라서 키워온 자식이다. 지어 왕까지도 재취할것을 권고했으나 아들의 마음에 그들이 질가봐, 만약 그렇게 되면 나라의 대들보감으로 키워내지

못할가봐 굳이 마다한 그였다.

하나 그는 추망의 건의를 단호하게 일축해버렸다. 수하장수로서는 그 어떤 령에도 한목숨 서슴없이 내달 담을 가진 맹장으로 아들이 자라났다는것은 틀림없었으나 한개 성, 그것도 방금 나라의 손에 들어와 단독으로 결심하고 할 일이 너무도 많은 변방의 외파로 떨어져있는 성을 지켜낼 통솔력도 지략도 아직은 부족하다. 더구나 《개국공신》인 아버지를 등대고 드문드문 교만한 언행으로 사람들을 깔보고 억누르기도 한다. 눈먼 사랑밑에서 호의호식하며 자란탓에 건달기도 있다.

부분노는 아들의 장점보다 그 약점이 더 크게 부상되면서 랑심을 찢어대는것 같았다.

《대왕께서 소신의 자식을 개려성 성주로 삼으시려는것만은 재삼 생각을 깊이해주소서. 울소는 아직 명장밑의 부장이나 선봉장의 재목감은 될지 모르으나 나라의 많지 않은 한개 성의 장관으로서는 여려모로 부적당하오니...》

그는 유류왕에게 진정으로 간하였다.

《경의 결국한 마음 참으로 가욕하도다. 하지만 선비의 성을 경략개척하는 이번 어려운 싸움에서 그대 부자가 세운 특출한 공 어이 값높이 사지 않을수 있으리오. 짐은 울소를 성주로 임명하니 속히 임지인 개려성으로 떠나보내도록 하라.》

거듭되는 신임에 어쩔수 없어 자식을 떠나보내는 날 그들부자는 유류왕의 슬하에서 눈물을 머금고 은총에 보답할 굳은 마음을 가다듬었다.

궁성에서 물려나온 그는 아들을 데리고 안해의 묘를 손수 파헤쳤다. 켄해진 아들의 눈길을 아랑곳하지 않고 유골을 정리한 그는 돌함에 넣어 자식에게 넘겨주면서 《네 어미의 묘를 개려성에 이장하자. 네가 묘주라는 단순한 리유로 이 애비가 이런 엉뚱한 용단을 내리는게 아니다. 성이 함락되자 사방으로 흩어져간 선비족의 잔당들이 개려성에 다시 쳐들어오지 않으리라고 누가 믿겠느냐. 네 성주로서 서북변 개려성을 사수하는것이 중임이거늘 거기에 어미묘를 옮겨 어머니를 욕되게 해서는 안될 효자의 도를 드림없이 지키거라. 그것이 또한 나라와 대왕을 목숨바쳐 지키는 충신의 도리로도 될것인즉 그리 알라. 네 목숨은 가벼이 버릴지언정 충효는 쉽게 버려서는 안된다는것을 명심하라는 이 아비의 뜻이다.》라고 간곡히 당부하였다.

두마리의 말이 개려성을 향해 수도 졸본성의 북문을 나섰다.

아들을 앞세운 부분노는 지아비로서 비록 안해

의 유해이지만 자식에게 넘겨주었다고 생각하니  
줄지에 홀로 된 인생말년이 허전하기도 하고 허  
무하기 그지 없었다. 그는 애오라지 자식이 충효  
를 어기지 말라고 이를 악물고 인생의 쓸쓸함을  
달래고있을뿐이었다.

전배, 후배도 없는 단출한 행렬은 그냥 가고있  
었다.

아들이 이젠 되돌아가라고 몇번씩이나 되풀이  
하였으나 그는 묵묵히 뒤따랐다.

안해의 유골과 아들, 그에게 있어서 그들은 떼  
여놓을수 없는 혈육이다. 하지만 아들이 돌아가  
라고 권할 때마다 어차피 헤어져야 하는가 하는  
애달픔이 백전로장의 가슴속에도 서려와서인지  
그는 개려성에 다달을 때까지 말 한마디 할수 없  
었다.

아들이 성안팎을 한눈에 굽어볼수 있는 명당자  
리에 어미의 묘광을 손수 파고 유해를 안치한 다  
음 봉분을 높이 쌓고 성묘를 마치자 그는 울소가  
애비의 뜻대로 성주노릇을 어김없이 잘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부분노는 한결 믿음이  
실리면서 마음의 근심을 털어버렸다. 그는 련사  
를 아직도 어수선했던 개려성에 머물러있으면서 자  
식과 함께 새롭게 쌓아올리는 성벽을 돌아보며  
빈틈이 있을세라 주의를 주었고 아들이 지형지세  
에 맞게 군사들을 통솔지휘할수 있도록 수성전의  
전법을 일일이 일깨워주었다.

졸본성으로 돌아온 그는 한해에 한번씩은 꼭꼭  
개려성에 다녀왔다. 안해의 묘소가 보고싶어서  
도 갔고 혹 아들이 근심스러워서도 찾아갔다. 그  
때마다 아들이 《이젠 퍼그나 년로하신데 마음놓  
고 오시는걸 삼가하십시오. 제 아버님의 뜻을 명  
심하여...》 하며 넘겨해주는 한마디가 고마와 로  
파심많은 자신을 돌이켜보기도 했다.

하지만 해가 지나가고 따스한 계절이 찾아오면  
또 개려성을 찾았다. 아들이 좀 귀찮아하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다못해 이끼덜인 성돌 하나가  
나뒹굴어도 손수 제자리에 올려놓으며 아들의 소  
홀함을 책했고 안해의 봉분에 돌아난 잡초 몇뿌  
리를 잡아뽑으며 자식의 충효심에 좀이 쓸가 우  
려되어 은근히 예돌아 타하기도 했다. 《이젠 늙  
긴 늙었어.》 하고 자신을 다잡아보기도 했으나 눈  
에 거슬리는것을 보고 그냥 스쳐지나지 않는 부  
분노였다.

그래도 이 아버지가 나들 때에는 마음이 놓였  
었다.

작년 이맘때였든지?

사사건건 아버지의 말을 명심하고 개려성을 지  
켜오던 울소가 선비족잔당들이 더이상 쳐들어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어느덧 방심하고 사냥놀이,  
천렵놀이가 찾아졌다는 소문이 들려오기 무섭게  
련달아 이즈음에는 성주라는 권좌도 성차지 않아  
애비의 덕으로 궁중시위대장자리쯤 바라보는 기  
미가 엿보인다고도 했다. 군사조련에도 병기창에  
도 무관심해졌다기도 한다. 게다가 그냥 내버려  
둘수 없는것은 부하장수들과도, 군사들과도 사이  
가 좀 버그러지고있다는것이였다.

부분노는 성급히 추망을 불러들였다.

《듣거라. 내 몸이 늙고 여의치 않아 이젠 개려  
성까지 다녀올수 없는게 한이로다. 그대 말을 몰  
아 애비대신 울소를 찾아가 내 걱정스러워하는  
심정을 전하고 소문대로 방자하게 굴지 않도록  
엄하게 타이르고 돌아오게. 충신의 가문에서 역  
적이 나올가봐...》

쇠잔해진 부분노의 이마에 이날따라 발고랑과  
도 같은 굵은 주름발이 가로질러갔다.

《그렇리가 있겠소이까? 필경 성주자리를 넘겨  
다보는 간특한자의 모함일가 하오이다.》

《추망! 설사 모함이라고 하더라도 길떠나 알아  
보게. 모함이라면 작히나 좋으련만 아니 뎨 굴뚝  
에서 연기가 날가?》

부분노의 서리발과도 같은 눈길을 피할 길 없  
던 추망은 종종히 길을 떠났다. 성주로 건의할  
때 품었던 사심이 《개국공신》의 늙은 눈에 들장  
이난듯한 불안과 초조감을 안고 추망은 떠나갔다.

울소의 웅숭한 대접을 받으면서도 추망은 부분  
노가 준 임무를 잔잔히 집행하였다. 결코 헛소문  
이 아니였다. 그는 울소를 되게 꾸짖었다. 정신이  
번쩍들게 나무라면서도 시종일관 아버지의 얼굴  
에 흠칠을 하지 말라고 타일렸다.

울소가 채심해서 성주구실을 잘하리라고 생각  
한 추망은 사실대로 복명하면 예나 지금이나 스  
승이며 상관인 늙은 부분노의 마음이 상할가싶어  
《집작대로 헛소문이였소이다.》라고 슬쩍 거짓  
말을 했다.

부분노는 너무도 태연하게 복명하는 추망을 믿  
었다.

그런데 개려성이 함락당했다.

(믿는 나무에 꿈이 핀다더니!)

...온밤 쉬지 않고 달려온 부분노는 성이 가까  
와지자 아들 못지 않게 패심한 추망을 앞세웠다.

(이 사특한놈! 그때라도 이실직고하였더라면  
오늘과 같은 수치스러운 패전은 없었을게 아닌가.  
나라와 자기의 체면을 가려볼줄 모르는놈!)

그는 뛰어나오려는 된 꾸중을 억지로 참았다.

《추망, 개려성이 어떤 꼴로 나를 맞는지 똑똑  
히 봐두게. 아마 자네와 고구려사람들에게 엄한

징계로 될걸세!》

드디어 함락된 개려성어구에 들이닥쳤다.

무사들을 태우고 달려온 기마대렬에서는 뜨거운 흰김이 스물스물 피어올랐다...

부분노가 달려왔다는 소식은 삽시에 개려성군사들을 크게 각성시켰다.

투구를 쓰고 발끝까지 드리운 갑옷에 고리자루 긴 칸을 땅에 박고 딱 뻗치고 서있는 부분노(오늘도 그는 동명왕릉앞에 이런 모습의 돌조각상으로 서있다)앞에 그들은 모두 머리를 떨구었다.

《성주는 어데 있느냐?》

《...》

묻는 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예측할수 없는 위압이 느껴져 개려성군사들은 감히 대답할념을 내지 못하였다. 부자간이라는 혈육의 반연보다도 군기를 썩 앞에 놓는 부분노라는것을 모르는 군사는 없다.

《성주는 어데 갔느냐?》

재차 다그쳐 물어서야 성주의 비강이 엉금엉금 기여나와 성주는 어깨와 다리에 적의 화살을 받고 응급처치를 받고있다고 고하였다.

《어서 데려와!》

부분노의 눈에서는 서리발과도 같은 푸른 섬광이 뿜어나왔다.

(성을 빼앗긴놈이 제 한목숨은 귀해서 치료를 받고있어? 성을 탈환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는 아들이 나타나면 당장 칼을 들어 목을 후려칠듯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들것에 실린 자식이 미명에 어스름푸레 보였다.

(전장에서 외적과 싸웠다는 성주가 얼마나 해이했으면 갑옷도 입을새없이 싸움에 뛰어들었을까!)

그는 칼자루를 힘껏 움켜잡았다.

머리를 푹 떨군 자식의 모습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있었다.

이 순간에 그는 《아빠, 아빠》 하며 마구 달려오던 어린 시절 아들의 모습이 불쑥 되살아났다.

하루 일이 아무리 고달파도 아들의 그 외마디 부름에서 외로운 생을 이겨내던 그 시절이었다.

아직도 귀가에서 《아빠-》 하는 애기적 외마디가 사그러지지 않았는데 《이 애를, 우리 울소를 말기고...》 하며 말끝도 맺지 못하고 떠나간 안해의 간절한 부락이 또다시 귀가에 날아들었다. 그런가 하면 10년전 어미묘를 정성다해 이장하던 아들의 기특한 모습이 왜 그런지 들것에 실려오는 성주의 패썹한 꼴을 확 덮어버리며 다가왔다.

중오스럽기도 했고 가식하기도 했지만 로장 부분노의 가슴을 이처럼 달구어놓고 뉘뉘게 한것은

그래도 자식의 존재였다.

(아, 저너석이 개선장수로 내앞에 나타났더라면...)

그는 칼자루를 으스러지라 움켜잡고 신음소리를 씹어삼켰다. 혈육과 군기라는 넘어설수 없는 두 계선사이를 헤매던 그는 자기를 자제하지 못하여 안간힘을 썼다. 자식이 패전한 성주여서만도 아니었다. 목을 쳐야 하는 손이 떨어져서도 아니었다. 늙은 아버지로서 마음이 여러여져서 그런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의 뇌리에는 역적으로 뒤흔친 한 성주를 나라를 위해 몸바쳐 싸울줄 아는 충신으로 돌려세워보자는 마지막 한가닥의 기대가 짙 차올랐던것이다. 눈앞에 서려오른 뿌잇한 안개속에 패전장수의 물골과 성벽을 뛰어넘는 성주의 모습이 엿갈려 섰돌았다.

《성주에게 갑옷을 입히라!》

령이 떨어지자 군사들은 땀배했던 마음의 금선이 탁 풀려서인지 펄떡 주저앉아 땅을 치기도 했고 부분노의 장수칼에 매여달려 어린애처럼 엉엉 울기도 했다.

《성주 듣거라! 네 목숨이 붙어있거늘 비록 들것에 앉아서라도 전장을 지휘하여 개려성을 탈환하라-》

...

《개려성군사들아! 성벽을 뛰어 넘으라-》

울음섞인 성주의령이 찌렁찌렁 울렸다.

어깨가 축 치졌던 개려성군사들은 공격명령이 떨어지자 와- 와- 함성을 지르며 일제히 비호처럼 성벽에 달라붙었다. 화살이 비발처럼 쏟아져 내렸으나 그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싶었다.

부분노는 아들의 뒤에 붙어 공성전투를 지휘하는 숨씨를 간섭도 하지 않고 도움도 주지 않으며 끈덕지게 주시하였다.

(네 실책을, 네 죄를 너의 피로 씻어야 마땅하다.)

그는 이런 심정으로, 이런 질책을 입속으로 외우며 공격서열을 따랐다.

치열한 격전은 처처에서 벌어지고있었다.

백전로장의 눈으로 전장을 휘둘러볼 때 개려성의 탈환이 확고해졌다.

들것에 실려 싸움마당 한복판으로 나가는 성주의 목소리는 어느덧 갈려있었다.

비로소 안도감이 찾아드는 순간이었다.

부분노는 《앗》 하는 외마디 비명소리를 내며 말우에서 모재비로 떨어졌다. 쫓겨가며 쏘아대는 적의 화살에 왼가슴을 맞은것이였다. 갑옷안을 뜨거운 피가 질퍽하게 적시고있었다.



아직 날이 활짝 새지 않은것이 마침이었다.  
《추망, 성을 빼앗기전에는 성주에게 알리지 말라. 나를 말우에...》

달려온 추망의 손을 더듬어잡으며 그는 부탁했다.

추망이 그를 말우에 태우고 스스로 말구종이 되어 벌써 멀리 앞서나간 성주를 따라 성안으로 들어갔다.

《성을 빼앗아냈느냐?》

부분노는 벌써 기운이 진했으나 그냥 물었다.

《네, 이제 끝...》

심한 자책속에 말마디를 더듬던 추망은 부분노의 치명상이 자기의 거짓 복명때문에 입었다는것을 뼈저리게 느꼈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는것을 절감하였다.

《성을 빼앗아냈느냐?》

부분노의 목안에서 피끓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때 성정점에서 요란한 함성이 터져올랐다.

백호와 청룡을 새겨넣은 기발이 펄럭이며 휘날리고있는것을 흐려져가는 눈으로 바라보던 부분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감은 눈에서 한줄기 뜨거운 눈물이 밤사이 몰라보게 여위고 주름덜인 그의 볼을 타고 흘렀다.

《추망-》

그는 숨을 몰아쉬며 추망의 품에 안겨 말에서 내려왔다.

《성주에게 이르라. 다시는 성을 내놓지 말라고... 그놈이 이 애비가... 애비가 <개국공신>이라고 해서 그 훈공과 명예의 그늘 밑에서 못된짓을 했거던... 그래서 성을, 성을 빼앗겼어. 예미의 무덤도 지켜내지 못하는게 어이 나라를...》

부분노는 무엇인가 더할 말이 있는지 순간 눈을 떴다. 그리고 추망을 추연한 눈길로 훑어보는 것이었다.

《임, 임자도... 아, 내 자식과 임자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거늘...》

부분노의 생이 이제 경각에 다달았다는것을 직감한 추망은 이 기막힌 현실앞에서 하늘이 무너져내리는듯 앞이 캄캄해졌다.

(나라의 개국공신을... 그렇게도 참답게 살며 이 부하를 키워주었던, 내 어찌하여 그렇게 훌륭한 스승을 쓸모없는 인정에 눈이 멀어 이다지도 괴롭게 저세상으로 가게 했단 말이뇨-)

추망은 가슴을 쥐어뜯었다. 그리고 뜨거운 눈물로 얼룩진 자기의 죄 많은 얼굴과 온몸뚱이를 사그려져가는 부분노의 가슴에 파묻고 태질했다.

《형님! 이 못된놈을 목베시오. 내 형님의 령을 어긴탓에 이 지경에 빠지게 했소이다. 아! 나라의 공신을 내 잘못으로...》

《이봐, 오늘을 잊지말게. 추망...》

부분노는 마지막말을 힘겨우나 또박또박 곱씹으며 끝내 눈을 감고말았다...

×

개려성이 탈환된 다음 부분노의 시신은 안해의 묘소에 합장되었다.

생전에 광활한 대륙으로 말을 달려 나라의 완도를 넓히려는 고인의 포부가 펴 후날에라도 이루어지는것을 바라보라고 성정점에 안치하였다.

아들 울소가 세운 묘비석에는 《...소자 울소, 아버지처럼 한생을 살겠소이다. 다시는 나라를 욕되게 하지 않겠소이다...》라는 비문이 쏘아박혀져있었다.

줄본성 젊은이들도 이 비문내용을 듣고 속속 개려성으로 찾아와 군사가 되었다...

오늘도 이 비석은 천연바위처럼 이끼덜인 성벽으로 굳건히 세워쥔 개려성에 그 모습 그대로 서있다.

## 토막상식

## 공격적성격

최근 과학자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람의 성격을 분류하는데서 공격적성격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들고있다.

- 말하는 속도가 빠르다.
- 언제나 움직이고 식사를 빨리 한다.
- 일숨씨가 느린것을 싫어한다.
- 한번에 두가지 일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
- 아무것도 하지 않고있는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

-무엇을 계획하는 경우 짧은 시간내에 많은것을 하려고 한다.

-말하거나 생각할 때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거나 손으로 동작하는데 신경질적경향이 있다.

-자기 능력을 지나치게 믿는 경향이 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질적으로보다 량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과 맞다면 도전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 불

지경일

나는 창문가에 서서 수도의 밤전경을 바라보고 있다.

살림집창문들에서 흘러넘치는 불빛, **김일성**광장너머 강반에 불빛바다를 거느리고 높이 솟아있는 주체사상탑의 웅장한 탑신,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이글거리는 봉화...

나는 창문을 열어제꼈다. 차거운 바람이 확 밀려들어오며 순간에 시원해진다.

거리의 불빛들이 갑자기 서로서로 뭉쳐돌아간다. 눈을 꼭 채우는 한덩어리의 불빛무리... 찬바람이 눈에 들썩워져서그런지 눈물이 피어오른것이다.

손으로 눈을 비볐다. 불빛들이 또렷하게 보이는듯하더니 다시 눈물에 가리우는지 또다시 뭉쳐돌아간다. 옅은 은황색불무리가 눈앞에 비낀것 같다.

《불노을...》

마음속에서 불현듯 퍼져가는 가느다란 울림.

불! 불...

문득 아득히 먼곳에서 머리속으로 퍼져들어오는 검붉은 화상이 있다.

환각처럼 눈앞에 떠오르는 불노을에 싸인 용광로의 모습...

그러자 금시 마음이 녹갯혀진다.

《붉고 뜨겁고 열렬하고 무한대한...》

나는 수많은 불빛들이 비껴 어룡어룡한 창문유리에 대고 속삭이듯 조용히 뇌이였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있는 불에 대한 총표상이기도 하다.

불, 나는 불을 사랑한다. 나의 잊을수 없는 유년시절의 자그마한 환희가 그속에 깃들어있다.

내 고향은 우리 조국의 창조의 불이 치솟아오르고있는 대야금기지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용광로탑아래 제철동이다.

무산광산에서 수백리 관속으로 폭포쳐온 정광이 산같은 대형용광로에 들어가 은황빛불줄기로 쏟아져나오는 모습.

료양소에 가있는 어머니를 그리며 남달리 키가 크고 과묵하던 아버지에게 싫증이 나도록 입고다니던 멜빵바지를 혁띠피는 바지로 바꿔달라며 무작정 울어대던 어느날.

그런 나를 달래다못해 《그럼 공장구경 시켜줄

가.》 하며 얼리는통에 울음을 그치고 아버지를 따라 공장에 들어갔었다.

넓은 구내도로, 우람찬 건물들.

갑자기 어디선가 사납게 울리는 소리, 류달리 하늘가에 거명게 솟아오른 《철집》에서 울려나오는 《별난 고함소리》에 놀라 흘끔흘끔 돌아다보는데 바로 그 《철집》 한켠에서 검붉은 불길이 마구 날아올랐다. 아니, 불이 터졌다고 해야 옳을것이다.

《어?! ... 저거?!》

뒤이어 불길이 오르는 《철집》뒤로 나란히 서있는 똑같은 《철집》들에서도 불이 터졌다. 그우하늘이 붉게 물들어 마치 아침에 동쪽하늘에서 퍼져가는 노을같았다.

그러거나말거나 아버지는 내 손목을 잡고 그냥 걸어갔다. 구내에서 오가는 사람들도 아버지처럼 그쪽에 얼굴을 돌리기는커녕 우람찬 《철집》이 불을 토하며 지르는 《별난 고함소리》를 듣는 등마는등 제 갈길을 가고.

무슨 불인가고 물어보고싶었으나 아버지의 어딘가 무뚝뚝한 표정이 겁나서 입을 열지 못하고 말았다.

내 신경은 온통 불을 토하는 《철집》에만 가있었다. 아마 마을에서 저런 불이 인다면 단박에 소동도 큰 소동이 났겠는데 아버지랑 사람들이 보고도 모르는체 하고 놀라지도 않으니 호기심이 더욱 커졌다.

저건 도대체 어떤 불일까?

《용광로다.》

내 눈치를 알아챈 아버지의 말이었다.

그리고는 용광로-불을 뿜어올리는 《철집》으로 나를 데리고갔다.

용해장은 그 《별난 고함소리》로 귀가 다 멍멍했다. 흰 작업복차림의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바삐 오가며 무슨 일들을 하고있었다. 용해장의 한가운데 평장히 굵은 관을 두른 로가 있었는데 거기서 은빛불꽃들이 밤하늘에서 터지는 축포처럼 끝없이 무리져 튀어나고 주황빛불물이 사방으로 난 굵을 따라 흘러가고있었다. 불물줄기들을 향해 손짓하며 무슨 말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눈동자들에 비껴있는 불빛.

《저 용해공아저씨들이 이자 네가 놀라던 그 불

을 만든다.》

아버지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어려있었다.

만든다?

그제야 날마다 부엌아궁에 불을 때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불중에 저렇게 술한 사람들이 모여들어 만들어내는 불이 있구나. 그 불을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나는 펍 후날에야 내가 처음으로 용광로의 불구경을 한 그날이 바로 우리 장군님께서 3호용광로 개진확장공사를 반년이나 앞당겨 끝낸 김철로 동계급에게 뜨거운 감사와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신 날이며 그래서 온 제철소, 온 용해장이 하늘 높이 불노을을 떠올리며 한창 들끓던 시각이라는 것을 알았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더 높이 지펴주신 내 고향의 불...

밤은 더 깊어간다. 거리의 가로등이며 살림집 창문들에서 빛나는 불빛.

불, 붉고 뜨겁고 열렬하고 무한대한...

불, 불과 우리 장군님...

문득 지난해 신문에서 보았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신천의 애국렬사묘앞에서 찍으신 사진이 떠오른다.

표정은 그 어느때보다 더 평온한듯하지만... 아픔과 분노, 복수심이 그때 우리 장군님의 가슴속에 얼마나 불타고있었으랴.

장군님의 가슴속에서, 심장속에서 일고있었을 불.

불은 곧 빛이고 열이다.

그렇다. 우리 장군님은 불을 안고사시는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붉고 가장 뜨겁고 가장 열렬하고 가장 무한대한 불을 안고사는분이시다.

내 나라, 내 조국에 대한 한없이 뜨거운 사랑을 지니시고 불같은 열정을 바쳐가시며 단 하루의 휴식도 없이 최전연의 깊숙한 교통호들과 이 나라 방방곡곡 공장의 구내길들을 걷고 또 걸으시는 우리 장군님.

한 나라 평도자의 일화라고는 상상하기 힘든 가슴뜨거운 사랑의 전설들로 수만리 현지지도의 길을 수놓아가시며 우리의 행군대오를 진두지휘하시는 그이.

투신, 견인불발, 불면불휴의 화신이신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경애하는 장군님의 심장속에서 뜨겁고 열렬하게 타번지는 신념과 투쟁의 불, 그것은 우리 인민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열정과 광만을 주는 불씨이다.

하기에 최근년간 제국주의연합세력의 다각적인

고도 전면적인 《봉쇄》와 뜻밖의 자연재해로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길을 헤쳐오면서도, 다른 나라 같으면 열백번도 더 꺼꾸러지고야말았을 전대미문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 인민은 굴하지도 꺾이지도 않았거늘.

불어오는 바람이 세차면 세찰수록 불길는 더 세차게 타오르는 법이다.

세상사람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지구의 동방일각에 우뚝 솟아 주체의 강성대국으로 만방에 빛을 뿌리는 우리 조국.

그 조국의 모습, 그것은 바로 우리 장군님의 모습이였다.

별무리마냥 반짝이는 살림집창문들, 명멸하는 장식등들, 주체사상탑의 봉화를 비껴안고 검붉게 타오르는 밤하늘...

불.

돌이켜보면 불로 세계를 제패하려고 날뛰는 우리들이 있어 불로 시작되어 불로 승리해온 우리 혁명, 불로 영원할 우리 혁명이다.

일찌기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두자루의 권총을 틀어쥐시고 정의의 불길로 침략의 불을 들고 달려드는 자들을 단호히 징벌하시며 항일혁명투쟁의 불길과 반미격멸의 불길을 안아올리신 사회주의조선의 시조 **김일성**장군님.

그 위대한 혁명의 화선들에서 21세기의 태양으로 성장하시어 수도의 한복판에 세상에서 유일한 사상의 봉화를 만들어올리시고 그 밝은 빛으로 내 조국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시고 그 따사로운 열기로 온 나라 인민모두를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보살펴주시는 **김정일**장군님.

불,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계시여 영원할 우리의 불, 내 조국의 불.

나의 눈앞에 떠오르는 환영... 끝없이 붉은 하늘.

용광로가 비껴있는 불하늘이다.

먼 메아리처럼 간간이 들려오는 유년시절의 그 《별난 고향소리》.

갑자기 번들거리며 흔들리는 불하늘... 나 자신도 어쩔수 없이 솟구치는 눈물...

불타는 하늘이 하나의 큰 물방울처럼 엉켜붙으며 눈앞이 온통 불덩어리가 되어 이글이글 타번지며 번쩍인다.

그 번쩍임속에 안겨오는 장군님의 영상.

《아, 붉고... 뜨겁고... 열렬하고... 무한대한...》

불, 끝없이 끝없이 타번지며 지구를 휘감는 거세찬 불길.

그 광휘, 그 열기, 그 무한대함이어...

## 삼성사수난기

리빈

(전호에서 계속)

…부랴부랴 삼성전으로 올라갔다. 과연 떠오르는 첫 아침해빛을 먼저 받도록 동쪽을 향하여 앉았던 단군상이 없다. 두사람은 창줄간에 돌처럼 굳어졌다. 남쪽, 서쪽을 향해 모셔진 환인천왕과 환웅 두 목상은 단군상을 잃은 재변에 눈물을 흘리고있는듯 처량한 모습으로 안겨왔다.

너무나도 기가 막혀 말이 없는가. 만일 저들에게 오감이 있다면 단군상이 도적맞을 때 얼마나 통분했으랴. 어쩌면 남아있는 두 목상의 흐느낌 소리가 들려오는듯만싶어 맹사성은 눈물이 앞을 가리고 애가 끊어서 차마 그들을 두번다시 바라볼수가 없었다. 선자리에서 박함이 비통하게 부르짖었다.

《아득한 옛적부터 수많은 왕조가 바뀌면서도 알지 못했던 변괴가 하필 오늘 이 마당에서 일어난다니, 하늘도 무심타…》

단군상의 실종,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참으로 단군이 천신이여서 조정으로부터 재앙의 마수가 뻗치려는데 남먼저 알고 홀연 승천하였는가? 그렇다면 이처럼 큰 다행이 없으려만… 그럴리는 만무하다. 누가 손을 대었는가? 무엇때문에? 하늘도 귀신도 아닌 사람이 손을 댔다고 하자. 하다면 어떻게 사헌부 집의인 하진이 어지를 받고 내려온 바로 오늘을 골랐단 말인가. 우연인가? 우연치고는 사건이 너무도 사가에 맞물려있다. 조정비밀이 새어나갔다면 이 지방 어느 시민들가운데 어느 누가 선손을 썼겠는데. 왕궁 이전처럼 엄엄하고 신성불가침의 이곳으로 어찌 감히 뛰어들수 있었던 말인가. 세 성인상앞에서는 누구도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는 법이여늘 통채로 들어내다니, 얼마나 큰마음을 먹었으면, 또 얼마나 사정이 절박했으면 이처럼 엄청난짓을 저지룰수 있단 말인가…

맹사성은 아무리 생각해보아야 풀지 못할 수수께끼였다.

…최사직을 앞세우고 사당에서 되돌아나온 두사람은 활 한바탕거리쯤 내려오다가 숲속에 몸을 숨겼다. 누가 본다면 단군상의 실종을 저들자신과 련결시킬 우려가 있었던것이다.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는 훈계가 바로 이런 때를 경계함이 아니겠는가.

맹사성과 박함은 서두르지 않고 관련냄새도 피우지 않으며 천천히 여러가지로 물어보았으나 최

득순은 의심이 가는 사람도 그 어떤 징후도 눈길을 끌만한 흔적도 전혀 없노라고 말끝마다 잡아떼듯 대답하였다.

원래 사람은 죄가 없을 때 저한테 화가 미칠가 보아 어떻게 하나 사실근거를 밝히려고 애를 쓰는 법이다. 그런데 지금 최득순에게서는 그런 기미를 조금도 찾아볼수 없지 않는가. 맹사성은 여기에 주의를 돌렸다.

(대를 물려오는 사당지기, 성실한 보호자가 사견현장 코앞에 있으면서 전혀 아무런 감촉도 받은게 없다니.)

말이 안된다. 하여 그는 한번 은근히 찢어보리라 마음먹었다.

《내 보기에는 아무래도 여기 목상들을 없애라는 밀지를 누가 먼저 어떻게 냄새를 맡고 화를 면케 할 선의밑에 선손을 쓴듯싶구만.》

마치 이런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있었던듯 최득순이 흔연히 받았다.

《소인도 그렇게 짐작하고있소이다.》

(그렇단 말이지.)

맹사성은 그의 선선한 대답에서 자기 예측이 들어맞는 징조를 발견하였지만 모르는척 외면하면서 일단 다음과 같이 단정하였다.

(사건에는 이 사람이 끼여있다. 멀리든 가까이든.)

그러나 조금도 내색은 하지 않고 《귀신의 소행이던지 사람의 소위던지 그렇게만 됐으면야 이 아니 다행인가.》하고 솔직한 심정을 비친데 이어

《어쨌든간에 왈가왈부만 해서야 뭘 하겠나. 이제 뒤수습을 의논하세.》하고 론의의 굵을 단군상 실종에 놀란 하진이 들쭉우고야말 발잔등의 불부터 끄는데로 돌리었다.

《<뒤수습>? 어떻게? 래일아침이면 하집의가 역모군들이라도 들춰낼듯 눈알이 뒤집혀 날뿔 판인데 수습도 여유가 있어야 하지, 여유가! … 이제 오는 아침엔 들장이 나서… 어-휴!》

통탄하듯 역증을 내던 박함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지 중도에 입을 다물어버렸다. 좀 멀찌기 떨어져서 선채로 서성거리고있던 최득순이 《사도님, 너무 그리 근심마소이다. 사지기 소인하나 벌을 받으면 그만일줄 아옵는데, 소인은 각오가 되어있소이다.》 하고 진지하게 박함을 안심시켰다.

(저 하나 벌 받을 각오가 되어있단 말이지…

정말 여기에 뭐가 있지 않는가. 아무리 사당지기 소임을 지냈다 하더라도 제 잘못이 아닌 다음에야 무엇때문에 선선히 각오를 하겠는가. 죄가 있더라도 빠지려고 애쓸텐데.)

맹사성은 최득순의 이번 태도에서도 역시 앞서에 관계자로 좋게 본 인상을 다시금 확인할수가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로 하여금 앞으로 피치 못할 뒤수습에 실수가 없도록 미리 각성시켜두는 의미에서 설명을 가하였다.

다른 때라면 이 사건이 혹 가법계 취급될수도 있겠지만 하필 어지가 내린 지금, 더구나 어지를 받은 사자가 현지에 도착한 날 비로소 터진 피변은 틀림없이 어지에 대한 반기로 인정될것이다.

쥐이던 새이던 누가 어떻게 밀지를 냄새맡아가지고 선손을 썼다고밖에 달리는 믿을수 없도록 사건이 맞물려있지 않는가. 임금은 궁성안의 비밀루설자들을 추색하겠지만 한편으로 일은 여기서 터졌으니 당연한 리치로 이곳 사람들에게 벼락을 들썩울것이다. 범인을 잡는다면 벌은 그에게 한정되고말것이다. 그렇지 못한 경우 지금의 임금이 어떤 임금인가. 그의 분노는 반드시 의심스러운자들의 목을 모조리 쳐야만 잦아들것이다.

자고로 오로지 정숙과 위엄만이 깃들어있던 이 신성한곳에서 불원간 전고미문의 아우성이 터지고 피가 흐를것이다.

《애매한 사람들이, 설사 범인이라 하더라도 나는 그를 의인지사로, 단군성왕님의 자손다운 자손으로 생각하는데 그 좋은 사람들이 백주에 맞는 벼락을 어찌 보고만 있겠나. 자순이, 최사직, 우린 이를 결단코 막아야 하네!》

《암, 여부있다. 이 마당에서 발을 뻗다면야 우리가 무슨 사람이겠나. 단군성왕님앞에서는 더구나 면목이 없고... 그런데 방도가 있어야 막을게 아닌가, 방도가?... 참 딱하다교야.》 하고 박함은 몸부림을 치는데 최득순은 무슨 궁리에 골똘한마냥 대답은 않고 땅바닥만 내려다보고있었다. 맹사성은 생각을 더듬었다.

아직은 이렇다 할 단서는 없지만 최득순에게 굴리는 호감에는 변함이 없다. 그가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도 사람됨됨이 도움을 받을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간다. 믿음이 가든 의심이 가든 이러나저러나 매듭은 이 사람을 통해서 풀어야 한다.

《자순이, 여기 일은 나와 저 사직에게 맡기구 자넨 돌아가게.》

박함은 말벌한테 쏘이기라도 한듯 와뜰 놀랐다.

《자네 거 제 정신 가지구 하는 소린가?》

맹사성은 그가 순순히 돌아갈 사람이 아닌줄 잘 알고있었다. 자순 그는 위험천만한 사지판에

친구혼자 떼어놓고 저는 꼬리를 사릴 그런 팔삭둥이가 결코 아니다.

《자네 말이 명답일세. 정말 정신차릴 겨를이 없는것도 사실이네만. 그러나...》

《그러나구 저러나구 여러 소리 말게! 자네야말로 돌아가야 할 사람이야. 여기 주인은 나란말이야, 나! 죄는 천도깨비가 짓구 벼락은 애매한 고목이 맞는다구 난 고목이 되는 자네꼴을 못봐!》

박함은 성이 나서 부진부진 사성의 등을 떠밀었다. 사성은 그를 타일렀다.

여느때와 달라서 지금 고을관장이 리유없이 자리를 비우면 틀림없이 하진이 의심할것이다. 그가 원래 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줄 모르는가. 그의 의심을 사는것은 곧 체손으로 체는 찌르기다.

《나는 <본국도>에 써먹을 지형지물실측으로 어디 나가 돌아다니는것으로 되어있으니 내 걱정은 없네. 내 이제 이 사직과 힘을 합쳐 무난히 처리할테니 믿고 떠나게. 설사 자네가 여기서 붙어있다 한들 뽕죽한 수야 없지 않나.》

《...》

박함은 주춤거렸다. 사직이 얼른 곁들었다.

《사또님,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이 나리님의 말씀대로 따르시면 랑패가 없을줄 아오이다.》

《!》

옳거니, 이것은 저를 믿으라는 소리가 아닌가.

(틀림없이 이 사람이 사건에 관련돼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럴수 없지.)

사성의 믿음은 더욱 굳어졌다.

박함은 공감이 되었던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나서 최득순에게 《예로부터 대를 물려받으며 오로지 단군신에게 일생을 바친 최씨가문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랑심을 버리지 말라.》는 당부를 남긴데 이어 《이 어른은 나와 형제나 같은 동향친구로 동지춘추관사인데 이번 하진의 수행으로 내려오기는 하였지만 그와는 속이 다른분이니 뭐나 꺼리지 않아도 되네.》하고 맹사성을 소개해준 다음 총총히 떠나갔다.

최득순은 맹사성을 자기의 집으로 안내하였다.

맹사성은 어쩐지 선뜻 집안으로 들어가기가 저어되어 둘째부터 살펴보았다. 수백년이 잘되는듯 두텁게 실린 기와꼴의 이끼는 마치 이 집이 구월산의 나이와 같다고 그윽히 일러주는듯싶었고 하늘을 찌를것처럼 높이 솟은 집뒤 세그루의 은행나무들 역시 장구한 세월 이 집을 지켜온 주인들의 기품인양 고상하게 느껴졌다. 따라서 그의 머리속에 (이 집주인들은 저 세그루의 은행나무를 세 성인들의 뉘트로 여기고있는것이 아닐가.)



하는 생각이 떠오르며 가슴이 후터왔다. 그러는 사이, 두어아름드리 나무들의 껍질에 들어붙은 이끼발이 눈에 띄웠는데 그것은 놀랄만치 주의를 끌었다.

(내 언젠가 뉘한테서 <은행나무는 천년을 묵어야 이끼가 돋는다.>고 한 말을 들은적이 있거니 이끼도 천년을 묵은듯 발을 이루지 않았는가. 파시 성인들의 넋을 상징할만할진저!)

이런 감동과 아울러 《한즉 참으로 오래된 집이로군!》하는 경탄이 절로 새어나왔다. 그런 말을 기다리고있었던듯 최득순이 얼른 대답하였다.

《예. 그러하오이다. 고려태조시기라고 전해오기는 합디다만 딱히는 잘 모르겠으나 옛적에 삼성사를 이 소증산에 모신데 이어 우리 해주 최씨가문의 아흔아홉대 선대 조상인 최달성어른께서 이 집을 지으시고 초대 사지기로 계셨소이다.》

그의 목소리는 저희네 최씨일족이 마치 삼공륙경을 배출한 삼한갑죽가문이기라도 한듯 자못 자랑스럽게 울렸다. 사성은 감동이 컸다.

아, 백대를 내려오며 시조신을 받들다니! 십년이면 강산이 변하기마련이다. 인심이라고 어찌례외이라. 어찌보면 가장 잘 변하는것이 인심이라. 《인심조석변》이란 말이 우연일수 없다. 그렇다. 세상만사란 이런 법이건만 심산공곡에서 사당지기를 한가문이 백대를 이어오다니! 이는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천명에 의해서 그 직분을 맡았다 하더라도 한가문이 그토록 오랜 세월 불변할수 없다. 사지기, 이는 결코 험하거나 흥미있는 직분이 아니지 않는가. 따분하기 그지없고 절해고도의 정배살이에나 비길수 있는 고생이다. 인간세상과는 인연을 끊은듯한 심심산중에 벗이라야 수목일뿐 고적하기 그지없다. 산짐승의 생활이라 할것이다. 아니, 짐승들도 무리를 지어살기 마련이어늘 하물며 인간이 세상과 떨어져 살려니 그 고통이 여복하겠는가. 주립에는 살이 마르지만 고독에는 애가 마르기마련일진대, 알리로다. 이 최씨일가는 이웃들과 정을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한 생활속에서 사람답게 삶을 누릴줄 몰라서가 아니다. 겨레의 마음속 사직으로서의 단군신을 받드는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하기에 고독을 락으로 삼고 한뉘를 바쳐오는것이라. 하기에 그의 대답이 이처럼 자랑스러울수 있는 것이 아닐가...

생각을 더듬을수록 감회는 깊고 믿음이 굳어졌다. 불당처럼 깨끗한 방안에 들어서니 맞은편 바람벽에 드리운 두폭의 족자가 첫눈에 안겨왔다.

《홍익인간》

《리화세계》

(아, 단군성왕님의 치도근본!)

끓어오르는 격동과 함께 어느덧 마음이 엄숙해

졌다. 마치 성난 폭풍이 날아오르는듯 거세장쾌한 여덟개의 글자를 바라보느라니 단군성왕님이 근엄한 자세로 앞에 앉아있는듯만싶었다.

맹사성, 그는 단군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있었다. 첫째가는 가보로 중시되는 단군의 진(초상화)이 아버지의 서탁앞에 걸려있었는데 그림의 바른쪽 옷가장자리에 《술거》라는 락판이 뚜렷하게 박혔었다. 그밖에도 여러곳에서 단군의 화상을 보아온 그였다. 때문인지 지금 이 고색질은 족자에 단군의 모습이 생생하게 어리는것이 아닌가. 그렇다. 단군의 의지를 이렇듯 가풍으로 삼고있는 이 집에서는 결코 시라소니가 나올수 없다. 따라서 이렇듯 성실한 사람은 모르게는 그 어떤 귀신도 삼성당에 손을 대지 못할것이다...

안택이 간소한 주인상을 들여왔다. 역시 옛스러운 룩모소반우에 버섯, 도라지, 고사리 무침접시 셋과 구수한 냄새가 군침을 돌구는 된장공기며 그우에 얹은 산마늘 여러문개가 안주의 전부였고 얼굴이 들여다보이도록 열른거리는 반병두리에 걸쭉한 락배기(막걸리)가 한절반 들어있었다.

사성은 어쩐지 고향인 온양 외가에 나들이를 온듯 가슴은 어느덧 애뜻한 향수에 젖어들었다.

주인내외는 《존객에게 대접이 초라해서 부끄럽다.》고 못내 미안해하면서 나무람더라도 많이 들라고 권하였다.

맹사성은 소박한 주인들의 인정이 고마왔고 지어 혈육같이 따뜻한 친근감에 목이 메여올랐다.

아마도 이 감정은 첫 인상으로부터 족자에 이르기까지 거듭되어 온 호의의 연장이었던지는 몰랐다.

하여 그는 주인이 권한대로 달게 먹으면서(아니게 아니라 터분한 락배기도 향기로운 산채들도 모두 입안에서 살살 녹는듯 맛이 기막혔다.) 자기가 서울을 떠나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를 조금도 숨기지 않고 낱알이 털어놓았다.

정이 통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남이 품은 진정의 자물쇠에 대해서는 오직 자신의 진정만이 열쇠로 될수 있기에 신분격차의 높은 담장을 헐어버리고 고향친지앞에서처럼 진심을 보이였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전이었다.

별안간 최득순이 넙적 엎드리며 절을 하였다.

《아하, 이 사람 왜 이러나?》

맹사성은 저으기 놀라 그를 붙잡아 일으켰다.

《나리님처럼 단군성왕님을 진정 조상으로 받드는 뜻높은분이 여기 오셨으니 시조께서는 무량한 감개에 눈물을 금치 못하리로소이다. 정말 고맙소이다! 나리님의 이번 왕림을 나라에서 전년들에 내려보내던 축문과 한벌 향축에 어찌 비기겠소이까. 이 구월산사람들이 선생님께서 오신 뜻을 이제 알게 된다면 진정 기뻐하리로소이다.

소인이 그네들을 대신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목이 메어 말끝을 맺지 못하는 최사직의 눈에는 그렇그렇 눈물이 맺혔다. 맹사성은 후더워오르는 마음속에 내가 과연 사람을 잘못보지 않았다. 저 눈물은 저자신과 마음을 같이하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닐수 없으며 단군상이 무사하다는 암시가 아닐수 없다고 확신하였다.

...믿을만한 사람들과 뒤수습대책을 의논하고 올테니 그동안 기다리라는 부탁을 남기고 최득순은 떠났다. 그가 사라진뒤 얼마 되지 않아 웬 건강한 사나이 하나가 흠뻑 땀에 젖은 말을 끌고 나타났다. 그는 박함의 서찰을 전하였다. 박함은 쓰기를 이 사람은 나의 심복부하 군관인데 한꺼번에 대여섯을 능히 당해내는 력사이다, 완력행사가 필요한 정황이 생기거나 박함 나에게 급히 통고할 일이 생기면 말아나설 사람이라고 하였다.

(자순, 고맙네!)

해가 질무렵 최득순은 중늙은이 셋을 데리고 돌아왔다. 그들은 끌고온 소기르마우에서 거적때기를 제껴버리더니 큰 절구통만한 통나무 하나를 갇힌 보물 다루듯 조심히 안아내렸다. 최득순과 그를 뒤따른 사람들은 맹사성에게 이 통나무로 단군목상을 하나 새로 만들어 하진의 눈을 속여 버리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

이 제안이 어찌나 큰 충격을 가하였던지 맹사성은 한동안 얼이라도 나간마냥 굳어져있었다.

격동의 순간이 지나간 다음에도 자기의 기쁨을 다르게는 표현할수가 없어 다만 《고맙소, 고마워. 참 기특한 생각이요.》 했을뿐이었다.

그런데 하늘의 구원같은 방도가 생겼어도 근심거리가 또 있었다.

《래일아침까지 하진이가 믿을수 있도록 꽤 만들어낼수 있을까? 내 알기에는 여느 목상을 하나 깎는데 흔히 빨라서 한달이 걸린다 하던데?》

최득순이 안심시켰다.

《넌려마소이다. 일이란거야 사람이 할타에 달렸습지요. 이 사람들에게는 결사의 각오가 돼있으니 해낼수 있소이다. 게다가 목각재간들이 어지간한지라 믿을만하오이다.》

《!!》

통나무토막을 옷방에 들여놓고 사방 초불을 밝혔다. 최득순까지 합쳐 네사람이 팔소매를 걸어 붙이고 끝을 잡았다. 한쪽벽에는 단군화상을 걸어놓았다. 넷이 저마끔 한면씩 말아가지고 부리나케 쪼아들어갔다. 잠시후 그들의 이마에는 팔죽같은 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잔등이 화락하게 젖어들었다. 하지만 누구 하나 한숨돌릴 생각을

하지 않았다.

(정말 《결사의 각오》가 되어있구나!)

맹사성은 일손을 도울수가 없어 마음이 괴로왔다. 량반의 체면만 아니였다라면 수건을 들고 그들의 땀이라도 씻어주었을것이였다.

새벽 첫닭이 해를 칠즈음 머리와 가슴의 형태가 거반 다잡혔다. 이제부터는 몇곱절 더 어려운 세공작업이다. 밝을 때까지 도저히 끝낼것 같지 않아 맹사성은 속이 탔다. 최득순이 의견을 내놓았다.

《나리님도 사또님과 함께 하집의를 동행해갑지요?》

《그러하오. 그한테 털끝만한 의심도 주지 말자면 동행해야 등탈이 없지.》

《털끝만한 의심이 화근이 될수 있으니 나리님은 이제 곧 말에게 채를 쳐 고을로 돌아가소이다. 사또님께서 뜬눈으로 밤을 새셨겠는데 위로도 드릴겸...》

《?!》

사성은 다시금 그가 돋우보였다. 확실히 용의 주도하고 궁리가 트인 사람이다. 《본국도》구실이 있기는 하지만 거사당일에는 마땅히 수행원의 행실을 해야 할것이요, 더우기는 임의의 정황에서 박함을 돕기 위해 그와 같이 있을 필요가 있는것이다. 하지만 도중에 떠날수가 없었다. 일거리가 범벅으로 될가보아 도저히 마음이 놓이지 않는것이였다. 그의 속마음을 짐작했던지 모두들 한마디씩 건넸다.

《나리님, 이왕지사 저희들을 믿으시고 벌린 일이라 끝까지 믿으사이다.》

《성패에는 나리님이 결에 계시나 안계시나 매일반인데 그럴바치고는 순리를 따라갑지요.》

《우리도 단군성왕님의 자손들이거늘 나리님이 안계셔도 결코 소홀치 않으리이다.》

참으로 정의롭고 의리깊은 사람들이였다. 맹사성은 이들에게 무엇으로 감사를 해야 할지 알수가 없어 기쁘기 그지없는 마음이 한편 무거웠다.

드디어 그는 박함이 보내주었던 군관과 함께 말을 탔다.

...하진일행은 거의 한낮때에 이르러서야 《단군문》밖에 이르렀다. 어뜩새벽부터 분주탕을 피우는 하진을 맹사성과 박함이 배를 맞춰가며 이 구실 저 핑계로 질기게 부린 늦장이 은을 낸것이였다.

맹사성과 박함은 하마비앞에서 말을 내렸다. 하진은 끔찍하지 않았다. 두 선비는 눈썹이 시였으나 꼭 참고 먼저 문안에 들어섰다.

뒤에서 가마를 타고오던 하진의 호통이 들렸다.

《이봐라. 이제는 단군을 조상으로 섬기지 않게

되었는데 웬놈의 하마야, 하마가! 썩 어서 가지 못할가!》

교군군들은 마치 망두석으로 변해버린듯 움직일 줄 몰랐다. 하진은 얼굴이 수수땀이 되어 하는 수 없이 스택스적 가마를 내리면서 주리대를 안길테라고 교군군들에게 울려했다.

맹사성과 박함 두 선비는 한걸음 두걸음 속을 뚫었다.

새 단군목상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을가? 밤을 새워 돌패던 사람들이라 혹 깜박 졸던 서슬에 다된 코끝이나 귀바퀴를 끌로 잘못 찍어내지나 않았는지? ...골짜기를 따라 최득순의 집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두사람의 이마에는 땀발이 점점 굵어졌다. 벌써 이리 다 왔단 말인가. 어쩌면 산골의 험한 삼십리길이 이다지도 가깝더라 말인가...

사지기의 집에서부터 한마장쯤 떨어져 삼성당이 자리잡은 치반이언덕 밑에 장작더미가 쌓였다.

박함은 데리고온 관노들에게 《너희들은 내 가마를 가지고 올라가서 세 성인님들의 목상을 고이 모셔내려오라.》고 가까스로 분부하였다.

이 순간부터 둘은 얼굴을 들지 못하였다.

시퍼런 저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덮칠것만 같아서였다.

아니다. 이들은 벼락에 앓길 목숨이 두려워서 가 결코 아니었다. 이 천추에 씻지 못할 범행을 막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동참하는 죄, 여기에는 천벌이 가벼운줄 너무도 잘 아는 이들이었다. 단군의 후손일진대 그 조상앞에서는 불효하고 단군이 겨레의 사직일진대 그앞에서 불충한 죄, 아니, 효와 충을 지켜 한목숨 내던지지 못하는 배신자라는 죄의식이 하도 가혹하여 도저히 하늘땅을 볼수가 없었던것이었다. 그러면서도 삼성사로 올라갔던 관노들이 되돌아내려왔을 때 슬그머니 눈길을 아니 들수가 없었다. 비록 대역부도와 한가지인 불충불효의 죄는 크지만 시조성인들에게 최후의 눈인사라도 올리고싶은 충동이 불길처럼 일어났던것이다. 가슴허비는 고별의 눈물을 삼키며 성인상들에 눈길을 주던 두 친구는 흠칫 놀랐다.

새개의 목상에 올린 금박물이 모두 똑같이 생생하지 않는가? 하나하나 자세히 뜯어보지 않고서는 어느것이 누구인지 분간이 어렵도록 착색은 한결 같았다.

맹사성은 가슴이 뜨거웠다.

(하진의 눈을 흘리려고 최득순이 새로 몽땅 한색을 입혔구나!)

그앞에 절을 하고싶도록 고맙기 그지없었다.

쓰라린 눈물이 고이던 눈에 감사의 뜨거운 눈물이 맺혀 앞이 뿌옇게 흐리었다.

하진이 가마우에 나란히 놓인 세 성인목상앞으

로 바투 다가갔다. 맹사성은 은연중 손에 땀을 쥐었다. 박함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졌다. 아차! 단군상이 다른 새것인줄 알아봤는가?

하진은 모의를 눈치채고 그 단서를 들춰내기라도 하려는듯 한상 한상 자못 간간히 살폈다.

두친구는 점점 가슴이 한줄만 하게 조여들었다.

하진의 눈길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불안에 떠는 맹사성과 박함의 눈길이 하진의 뒤 허공에서 고통스럽게 부딪쳤다.

드디어 하진이 표독스럽게 물었다.

《사당지기, 어쩌서 금박을 새로 다 올렸지?》

맹사성은 가슴이 철렁하였다.

(아차, 걸렸구나?...)

주위는 얼어붙은듯 조용해졌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라도 들릴듯 숨막히는 정적이 한초 한초 흘렀다. 급기야 궁지에 빠진 최득순이 구원을 바라는데 맹사성을 애처롭게 바라보았다. 그 순간 맹사성은 스스로도 놀랄만큼 궁리가 터졌다. 그는 즉시 하진의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다.

《사람이 죽었을 때 입관에 앞서 목욕을 시키는 법이 아니겠소. 그 전례를 밝아 내가 사당지기에게 미리 그러라고 일켰었소.》

...

삼성사 세 성인의 목상들을 불태워버린 하진은 쉬어가라는 박함의 호의를 뿌리치고 부랴부랴 상경길에 올랐다.

아마도 천벌벼락이 두려웠던지.

...

단군상의 행치는 어디겠는가?

풍파를 겪고나니 더욱 절절해지는 관심이었다.

맹사성은 당초의 본뜻을 이루기전에는 구월산을 떠날수가 없었다. 사태흐름의 모든 점으로 보아 단군상이 어디에 잘 보존되어있다고 믿어진다. 그럴진대 결단코 부친의 유언을 실행해야만 하였다.

그것은 단군의 자손이 된 량심의 가르침이기도 하거늘 단군상이 아주 없어졌다 하더라도 차마 발길이 돌아서지 않겠는데 하물며 있는줄 알고서야 어찌 그냥 돌아가랴. 아울러 이번의 불의지변을 막아낸 이곳 사람들을 꼭 만나보고싶었다. 내 단군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를 묻은 조선사람이 분명할진대 겨레의 넋을 지켜낸 의인지사들을 몰라본다니 말이 안된다. 미더운 그들, 충성스러운 그들앞에 진심으로 허리굽혀 절을 하고싶은 심정이였다. 자신이 임금이라면 그들모두의 이름을 《충신록》에 올리고 정문을 세워 표창하였을 것이였다.

아무튼 단군상의 행처를 알자면 그들을 만나야만 한다....

이날저녁 맹사성은 띠를 풀어놓고 박함의 후한 대접을 마음껏 받으면서 이러한 심정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술은 목으로 넘어가고 진정은 목밖으로 흘러나왔다. 박함은 연송 고개를 끄떡였다.

《옳거니! 내가 친구 하나만은 정말 잘 두었지... 나역시 그 생각뿐일세. 현대 서울 가서 김서방 찾기지. 그들을 어떻게 찾겠나. 목숨을 내놓고 의거한 사람들이라 필경 목숨을 내놓기전에는 저들의 밀행을 발설치 않겠는데.》

《자손, 최사직을 다시 한번 더 믿어보세.》

《그래? 그의 모든 행적을 미루어 그가 다 알상 싫다?... 그럴듯한 생각이야, 좋아. 다시 찾아가세나.》

...최득순은 맹사성과 박함의 청을 듣고는 두세 마디만에 단군상의 행처도 그 관계자들도 전혀 모르노라고 딱 잘라뻘었다. 했으나 겸손한 두 선비가 이제는 우리를 믿을수 있지 않는가, 사람이 다들뿐 마음은 같은데 그렇게 멀리하면 인정이 아니지 않는가 하고 거듭 간청을 하자 생각이 달라졌던지 의연 아닌보살은 하면서도 《뭐 좀 짚이는데가 있기는 한데... 정 그러시다면 내 이제 산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고 오겠소이다.》며 총총히 사라졌다. 두사람을 기다리기에 펍 지치게 만들어놓고야 돌아온 최득순은 단군상이 보관되어있는 석굴을 알아냈노라고 반가운 소식을 전하면서 길잡이로 나섰다.

삼성사뒤 험준한 울리막길을 한참동안 걷고난 일행은 땀을 식히느라 쉬게 되었다. 서늘한 참나무그늘밑에 자리를 잡자 맹사성이 물었다.

《이보게 최사직, 이제야 뭐 다 알게 된 사실이라 숨길게 없겠으니 묻는건데 삼성사 세 성인상을 없앤다는 말을 어떻게 들었소?... 손을 쓰기전에 소문이 퍼지면 서울이 끓고 온 나라가 끓을것이라 그게 두려워 엄한 비밀에 붙인 어지였는데 사전에 그걸 알았다니 놀랍거던.》

《선생님, 소인은 선생님이 단군천왕님존상을 뵈옵기전에는 돌아가지 못하실줄도 이에 대해 몰으실줄도 알고있었소 이다. 그것은...》

그저께 한밤중이었다. 잘 아는 고을판노 하나가 숨이 턱에 닿게 삼십리 밤길을 달려왔다.

《콘번났소. 지금 조정에서 하진인가 하는 봉명사자가 고을로 내려왔는데 사또님께서 사색이 되셨소. 내가 여기로 떠나오기 직전이요. 우리 모친이 안전께서 주무시기에 앞서 늘 자시군하는 탕약을 가지고 찾아갔다가 침소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사또님의 노성 한마디 <...삼성당의 성인목상

들을 몽땅 없애란다니, 이게 웬놈의 도깨비감투 끈인가!> 하는 소리에 그만 깜짝 놀랐다고. 우리 모친은 황급히 내게 이 말을 전하면서 삼성사گران리를 겪게 되었는데 가만있으면 어찌냐고 내 등을 떠미시기에 이리 오지 않았겠소.》

《?!》

이 소식에 경풍할듯 놀란 최득순은 그달음으로 마을사람들을 찾아가 심중히 의논하고 선손을 썼다.

이야기를 다 듣고난 두 선비는 무량한 감개에 사무쳐서 참 잘하였다고 과연 단군의 자손들답다고, 그대들이야말로 숨은 충신들이라고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

최득순은 어린애처럼 낯을 붉히고 몹시 점찍해 하더니 동쪽으로 환하게 트인 벌을 그윽히 바라보며 자신에게 이르는 말처럼 조용조용 뇌이기 시작하였다.

우리들가운데 자손구실에 대해서 생각한 사람은 없다, 이번 거사를 충의로 본 사람은 더구나 없다, 우리 구월산사람들은 자자손손 오천년 이래 우리 나라를 영구히 우리 나라로 되게 하시고 우리 겨례를 영구히 우리 겨례로 되게 하신이가 바로 단군성왕님이시기에 그 성덕을 잇을수 없고 그 못잇음이 우리 백성들의 얼이기에 얼을 잇기 게 않고 조상들처럼 제 정신을 가지고서 땀땀이 살려니 그 일에 뛰어들었을뿐이다...

소박한 인간의 진정은 맹사성의 가슴을 뜨겁게 울렸다. 눈굽이 젖어 손이 저도 모르게 얼굴로 올라갔다.

그는 최득순의 투박한 손을 소중스레 부여잡고 《이 손이 겨례앞에 큰 공을 세운 손이구만! 세상은 몰라도 세상을 울린 큰 공을 세웠으니...》하고 진심을 터보이며 무겁게 뒤를 이어나갔다.

《여기 구월산사람들은 참말 장하오. 뭐가 제 정신인가를 알고있거던. 단군목상을 숨겨모신 밀모가 드러나는 날에는 장본인은 물론 그 련루자들이 몽땅 삼대멸족될터인데도 여기 사람들은 서슴지 않았으니 이 얼마나 장하나 말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건 제 한목숨인즉 님들 목숨 아까운줄 모르라마는...》

감사의 정에 목이 메여 끝을 맺을수가 없었다.

그는 헤아릴수록 민족정기의 상징-단군시조상을 재난으로부터 구원한 사람들의 씩씩한 기백앞에 머리가 숙여졌다. 마치 그의 속마음을 대신하는듯 박함이 찬란을 터뜨렸다.

《이런 사람들의 나라, 천세만세 존엄이 높을시고!》

아마도 이것은 세상에 널리 알리는 자랑이었던지 몰랐다.